

CROSS SMITH VOYAGE

UFO와 신의 비밀

미스터피

가톨릭 보리문지름 / 김기현



이 기사를 통한 여행

첫 번째 화성 방문

UFO 납치 루시

화성 문명 발견기

화성 탐사선의 실종

스타트렉 - 외계인의 노력

은하전쟁

아담과 이브

화성인 시계단

현행의 외계인

화성 파괴 사건

장부의 개입

한빛



커트니 브라운

커트니 브라운은 미국의 영문 대학인 조지아 주
에틀랜타의 에모리 대학 정치학 부교수다.

사회현상의 비선형수리 모델링과
환경정치학,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분야를
전공했다. 그는 UCLA에서 찰스그로브하인스 교수와
'카터 브레지덴실 센터'의 명예회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에틀랜타의 '피사이트 연구소'에서
과학적 원거리투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미스터리
—UFO와 신의 비밀

COSMIC VOYAGE

By

Courtney Brown

Copyright © courtney Brown, 1996.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Dutton Signet, a division of Penguin Books USA Inc.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1996 by Hantent Publishing Co.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Dutton Signet, a division of Penguin Books USA Inc.
through Eric Yang Agency.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Eric Yang Agency를 통한
Dutton Signet, a division of Penguin Books USA Inc.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한국어판권임 한뜻출판사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작품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미스터리
—UFO와 신의 비밀

커트니 브라운 지음 / 홍지희 옮김

인문

작가의 말

이 책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쓰여질 수 없었다. '의식'에 대해 가르쳐 준 은사들의 도움 또한 없었다면 연구를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들이 지도해 주기 전에는 내 존재의 중요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의 암흑에 가까운 시기를 거친 후 내가 누구이며,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나의 대리인이며 친구인 산드라 마틴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그녀는 내가 이 책을 구상하고 있을 때 출판을 제의했고, 원고가 완성되기까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계속 격려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동료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편집장 에드워드 스타클러의 지원에도 감사한다. 다른 책의 출판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편집자들을 이 책에 배치해 주었다. 학술적인 문체보다는 명확하고 쉬운 문체를 쓰도록 조언해 준 것 또한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로버트 듀란트, 조 르노르 조르단 그리고 데일 스티븐스의 도움 또한 큰 힘이 됐다.

아내와 아들도 나름대로 도와주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후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내 나를 지원해 주었다. 아들은 모든 생명의 의미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넓은 맥락에서 내 연구를 도와주었다.

단언하건대 외계인은 존재한다. 외계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자료를 모으거나 이 책을 쓸 수 없었다. 이 책은 나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책이기도 하다. 적어도 이 책은 외계인, 그들의 진실한 이야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연구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줄 모든 독자들에게 미리 감사하고 싶다. 새로운 분야의 연구는 항상 비판받기 마련이며, 그 비판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유익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척이나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 책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면 내가 한 모든 노력이 가치 있을 것이다.

차·레

프로그 · · 13

1부 예비단계

용어 설명 · · 23

1 미국 군사 심리전 프로그램 · · 25

2 원거리무시 · · 31

3 아카샤를 통한 여행 · · 54

2부 미지의 세계

4 첫번째 화성 방문 · · 73

5 UFO 납치 부시 · · 78

6 화성인, 현재의 생존자 · · 83

7 화성 문명 절정기 · · 91

8 부분공간의 조력자 · · 98

9 화성 탐사선의 실종 · · 105

10 은하연맹 · · 112

11 회색인의 마음 · · 120

12 인간 보존 · · 129

13 사실 확인A · · 136

14 외교적인 도약 · · 139

15 에 수 · · 146

16 회색인 초기 문명의 멸망 원인 · · 156

17 스타트렉-외계인의 노력 · · 167

차·레

- 18 예수를 다시 방문하다 · 177
- 19 모든 회색인은 같지 않다 · 182
 - 20 아담과 이브 · 188
 - 21 구무 데브 · 197
 - 22 신 · 202
 - 23 화성인 사제단 · 210
 - 24 로스웰 사건 · 216
 - 25 지구의 미래 환경 · 223
 - 26 연맹의 회색인 · 230
 - 27 부 처 · 238
 - 28 지구의 화성 문화 · 245
 - 29 사실 확인B · 252
 - 30 산타페블디 · 256
- 31 화성인과의 공식 접촉 · 262
- 32 지구의 단순 생명체 · 267
- 33 화성 파괴 사건 · 273
- 34 지구의 미래 · 277

- 3부 은하계란 위한 인류의 접근
 - 35 외교관의 훈련 · 287
 - 36 정부의 개입 · 297
 - 참고문헌 · 307
 - 역자후기 · 309

COSMIC VOYAGE

Courtney Brown

프롤로그

이 책은 지능을 가진 두 외계인 사회에 관한 면밀한 연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외계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찰 기록이다. 두 외계인 사회가 어떻게 멸망했는가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우리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꼭 알리고 싶었다. 외계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우주적인 차원의 이런 만남은 두 사회를 공통의 운명으로 묶는 그런 미래로 이끌 것이다. 이 세 종족을 연결하는 가장 큰 고리는 그들 모두가 삶의 터전인 행성의 생태학적인 재난을 경험했거나 곧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이미 행성의 멸망을 경험한 두 외계인으로부터 폐허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에 보고된 연구는 최근 미군이 첩보용으로 개발한 매우 엄

격하고 정확성이 높은 '원거리투시법(투시법 혹은 투시)'이라는 실험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상상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 자체임을 밝힌다. 투시법이 연구를 가능케 한 유일한 연구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 방법으로서 투시법에 어떤 하자가 있지는 않다. 이 연구법은 새로운 방법이고 아직 과학자들이 합법적인 연구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근거가 확실하고 아주 신뢰도가 높은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본문에 소개될 내용들은 모두 훈련 과정과 실용 과정에서 직접 알아낸 정보이다. 제1부에서는 투시법에 대한 설명과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철저한 투시법 훈련 과정과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핵심은 제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외계인에 대한 분석과 자료를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여기서는 외계 문명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느꼈던 흥분과 감동을 독자들도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이 전개되는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제3부에서는, 인간 사회가 광대한 우주 사회의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은하의 서로 다른 종족간의 상호 교류에 동참하고 은하의 연합체인 '은하연맹'에 인류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은하 외교관 코스에 대해 제안하였다.

외계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여기서는 최근에 지구를 찾아온 두 외계 문명에 대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소개한다. 외계인에 대한 짐작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진화해 온 외계인 사회에 대한 연구 결과이자 그 결과의 분석을 기록한 것이다.

어떠한 학문도 초기 단계를 거치기 마련인데, 이 연구도 그런 부류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 쓰여진 연구 방법이 조만간 널리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한다. 이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

밀한 과학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학계에서는 새로운 연구의 활용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그러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에 보고된 자료는 권위 있는 사회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통제된 방법에 의해 얻은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연구법을 사용했다는 말은 아니고, 단지 그런 연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과학적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뒤에 설명이 따르겠지만, 본 연구 결과가 반복적 일관성*이 있다는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합치되지 않는 정보들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과학자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미리 형성된 세계관을 '현재 통용되는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며, 내부적으로 형성된 이런 사고의 틀은 새롭게 습득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정보는 신문, 친구, 대학 강의, 책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패러다임'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이나 개념—사실은 차치하고라도—에 직면할 때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믿지 않으려 한다. 때때로 '현재 통용되는 패러다임'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이에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기각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텔레파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비물질적인 존재와 텔레파시적인 의사 소통을 나누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이

* 반복적 일관성(reproducibility)이란 어떤 연구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그 결과에 입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과학적인 연구의 가능한 중요한 기준이다.

상 정기적으로 교회를 왕래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이면 분명해지겠지만, 텔레파시나 원거리투시와 같은 것이 '실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좋게 말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은 편견이 너무 심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과학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사려 깊은 과학자들은 초심리학적인 심령 현상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는 많다. 그렇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제된 인간 사이의 텔레파시적 의사 소통에 관한 연구로, 주류심리학 저널인『심리학회보(Psychological Bulletin)』의 1994년 1월호에 실린 두 심리학자 데릴 J. 베른과 찰스 호노튼의 공동 연구일 것이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이 초심리학적인 심령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과학의 진보는 누군가 중대한 발견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 새로운 발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위대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말한 적이 있다. 오히려, '세대적 확률(generational chance)'이 과학 발전을 연계한다고 볼 수 있다. 원로 과학자들은 자신이 왕성하게 연구를 했던 시기에 통용되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로 과학자들이 참신한 생각을 가진 젊은 과학자들로 대체되어야만 새로운 발견이 가능할 때가 많다.

15년 넘게 투시법—공간과 시간을 넘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엄청나게 발전해 온 데 반해, 아직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

하는 게 사실이다. 역사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거리상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은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왜 몇몇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이 부여되는지, 왜 때로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능력의 실재는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15년 간 이런 놀라운 행위를 위해서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개인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다. 이러한 재능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과학자를 포함해서—배울 수 있으며 대단히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타고난 심평가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제대로 시행한다면 원거리투시법을 사용한 연구가 정확하게, 언제든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처음에 투시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특수비밀 작전팀과 육군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미국 군인들이었다. 군인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원래의 목적은 첩보에 있었다. 그런데 일단 훈련을 받고 나자 이들은 미사일 지하 격납고나 크레몰린 장벽 안의 회의보다는 더 흥미있는 타깃들을 투시하기 시작했다. 미확인비행물체와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 존재의 수수께끼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의 투시자 그룹과 내가 교류하게 된 것은 그중의 상당수가 새롭게 배운 투시법을 더 넓은 분야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군을 떠난 후의 일이었다. UFO에 관한 그들의 초기 연구는 우주선을 조정하는 존재에 집중되었다. 그보다는 우주선을 만들어 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나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외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사회과학자로서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라면서 그들과 협조할 것을 제의했으며, 그 결과로 이 책이 탄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투시가 UFO 현상에 대해 밝혀낸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은 현재의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명확히 말해서 이 책은 UFO나 외계인에 관한 확실한 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단지 그러한 의문을 푸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의 새로운 도구를 소개하려는 시도이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외계인의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것이다.

연구 대상의 선택

이 책에서 다룬 두 외계 문명 가운데 하나는 지구에 공룡이 존재하던 시기에 화성에서 번영했던 고대 외계 문명으로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거쳐 지금은 근근이 종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회색인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문명이다. 두 문명만 선택한 것은 다른 문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 문명의 현재 진화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화성인과 회색인의 문명이 현재 가장 적절한 조사 대상이다. 화성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그 행성의 역사에 흥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인간은 가까운 미래에 화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문명의 고고학적인 유적을 가까이서 검토할 것이고 투시 자료에 대해 물리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회색인은 오랫동안 화성인,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태양계에서 회색인의 활동 범위를 고려해 볼 때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들의 흥미로운 역사를 서술하는 일은 의미 있을 것이다.

목표와 대가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결코 허구가 아니다. 여러 상황에서 관찰의 정확성을 반복해 확인하였고, 내가 발견한 많은 것, 아마 거의 대부분이 훈련받은 다른 투시자들에게 의해 독립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반복적 일관성은 내 연구의 신뢰성을 입증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도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투시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연구 결과들을 독립적으로 재생해 내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35장에 상세히 기록했다.) 반복적 일관성은 모든 과학의 일차적인 기준이다. 새로운 발견을 한 과학자는 사용한 연구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원래의 실험을 되풀이해 보지 않고서는 최초의 주장에 대한 어떤 비판도 유효하지 않다. 이것은 입자가속기와 같은 실험장치로 새로운 미립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의 연구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연구에도 적용된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어떤 과학 소설의 줄거리보다도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이다. 상상력만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들여다보면 이 사실들은 모두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처음 접할 때는 모든 기존 관념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런 모든 과정이 쉬웠다고 쓴다면 거짓말이 된다.

어리석고 순진해서 이 책을 내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출판 후에 쏟아질 비판을 즐기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고도의 수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매우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방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잃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과학자

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에 따르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과학자로서 내가 할 일은 인기 있거나,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만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는 아무리 타당해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도 그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예상되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증명 가능한 연구 결과를 출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간단히 말해, 인류는 진화로 불리는 역사적 대장정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우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주 차원의 생활 영역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한 과학자의 직업에 대한 단편적인 근심은 우리가 다룰 이 광대한 주제에 비해 하찮은 일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내가 발견한 것이 다른 이들에 의해 수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내 연구는 완전하지 않으며 미래의 학자들이 덧붙일 것은 덧붙이고 틀린 것은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분석의 근간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 탐구하는 이들은 인간 세계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치 않은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부
예비 단계

동시현시 무시자의 주의가 타깃에 강하게 이끌려 타깃과 무시 위치 양쪽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

매트릭스 항목의 이름이 적힌 기록표로서 원거리무시에 이용된다. 무시자는 무시를 통해 얻는 데이터를 해당 항목에 기록한다.

신호 SRV 중 무시자의 무의식에서 오는 정보.

에너지믹스 원거리무시 중 엄청난 에너지가 타깃 위치에 피져 있는 에너지장에 대한 느낌. 이 에너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외계인의 우주선처럼 동력에너지의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태양열과 같이 복사에너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위치 이동 타깃에 관계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SRV 기법.

타깃 SRV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대상. SRV의 타깃은 주로 장소, 사건, 또는 사람이다. 특정인의 상상, 사건의 원인 또는 신 등을 타깃으로 할 수도 있다.

AI aesthetic impression. 원거리무시 중 보이는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과학적 원거리무시는 무시자에게 모든 AI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시자의 감정으로 인해 데이터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

AOL analytic overlay. 원거리무시 중 무시자가 내리는 판단으로 무시자의 논리적 분석을 나타낸다. 이러한 판단이 때로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과학적 원거리무시는 모든 AOL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AOL/M AOL-matching 무시자에게 오는 매우 강한 AOL로서 무시 영상이 무엇인 지 알아맞췄다는 느낌을 무시자가 갖게 한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AOL/S AOL-of the signal line. 원거리무시 중에 무시자가 데이터로부터 직접 온다고 느끼는 AOL. 이러한 AOL은 무시 타깃의 해석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무시자는 이를 통해 타깃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다.

EI emotional impact. 무시 장소와 관련된 느낌을 말한다. 이러한 느낌은 그 장소에 있는 존재로부터 올 수 있으며, 과거나 미래에서 올 수도 있다. 무시자의 감정이 아니라 대상에 얽혀 있는 감정을 무시자가 느끼는 것이다.

SRV 과학적 원거리무시.

1~7단계 과학적 원거리무시법의 단계들. 특정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여기서는 1단계와 2단계를 '예비 단계'라 하고, 타깃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설계되어 있다. 1단계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초보적인 것이니 예를 들어 타깃과 관련된 인공 구조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2단계—타깃과의 접촉을 증가시킨다. 이 단계에서 얻는 정보는 색깔, 표면의 질감, 기온, 맛, 냄새 그리고 소리를 포함한다.

3단계—처음으로 타깃을 스케치한다.

4단계—타깃과의 접촉은 상당히 긴밀하다. 4단계에서는 무의식이 무시자를 지배하여 정보의 흐름을 결정하고 의문점을 해결하게 한다.

5단계—방 안에 있는 가구와 특정 구조물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6단계—원거리무시자가 지시를 받고 타깃을 탐사할 수 있다. 무시자는 자신의 의식을 통해 무의식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시간선(일종의 연대표)과 지형학적인 배열 등이 분석되며 타깃에 대한 정교한 스케치가 그려진다.

7단계—위치의 이름 등 장소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미국 군사 심리전 프로그램

이 책은 인간이 진화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곧 미치게 될 두 외계 문명에 관한 이야기이며, 과학적 원거리투시법 자체에 관한 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개될 자료를 얻는데 원거리투시가 사용되었고 또 새로운 분야이므로 이 연구에 사용된 기술을 적절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원거리투시법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심령 현상에 미국 정부가 관여하게 된 것은 적대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필요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1970년대에 CIA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미육군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우수한 장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극비 프로젝트가

* 이번 장에 요약된 사건들은 짐 마르스의 *The Enigma Files: The True Story of America's Psychic Warfare Program*(Humansy 1995)에 기록되어 있다.

시작되었다.

군사정보 수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때때로 요원들이 본국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항상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첨단 장치들은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고 감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발각될 위험이 있고 정보 수집이 여의치 않으므로, 물리적인 장치 없이도 워싱턴 D.C.에 정보를 전달할 수단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미국방성과 모스크바 간에 심령적 교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요원은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지시받았다. 예를 들어 구소련이 신형 무기를 가졌는지에 미군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정보 수집 임무를 띤 첩보원은 심령 교신을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록 첩보원이 KGB의 감시하에 있더라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또 구소련이 심령전의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은 뒤떨어지길 원치 않았고, 이는 곧 심령 전술적 냉전으로 발전되었다.

공교롭게도 구소련은 심령전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창설하기보다는 국민 중에서 타고난 심령가를 선발하는 방법을 택했다. 유능한 심령가들을 모으는 동안에 그들은 미국과 똑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군 고위층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미·소 양측 모두 UFO같이 특정한 타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미국과 구소련 양국의 고위층 인사들은 전통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 맹신에 가까운 신뢰를 보냈으며, 비교적 이성적인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심령적 정보 수집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군대 밖에서도 일반적이었다. UFO에 관한 국방부의 극비 보고 중 국방장관 바로 밑의 고위 관리가 외계 문명의 존재와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그 관리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에게 듣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루어 보건대 구소련의 상황도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프로젝트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심령 현상에 CIA가 최초로 관여한 것은 심령가들과 일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니카라과 만의 CIA 프로젝트가 미의회에서 제기되었을 때 CIA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곤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분대와 프로젝트를 없앴고, 이것으로 CIA는 심령전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심령 교신’을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군으로 하여금 정보 수집에 심령 기술 적용을 탐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점에 관해 특히 두 가지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하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프린스턴 대학 ‘페어 연구실’의 로버트 잔 교수의 연구로서, 페어 연구실이 군이나 정보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그렇지만 군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헤롤드 퍼트호프 박사가 이끈 SRI 인터내셔널(전 스탠포드 연구소)의 원거리투시 실험실에서 한 연구였다.

미육군에는 CIA를 괴롭혔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다. 육군은 목표 지향적인 집단이었으며 CIA의 심령전 프로젝트가 난관을 겪는 동안에도 정보 수집상의 난제를 해결해 줄 ‘비밀’ 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특수부대 중 하나는 G특수대라고 암호명이 붙었고 군 조직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G특수대는 적대국의 극비 군사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 심령 기술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부대의 이례적 특성 때문에 수집된 정보는 소수의 고위 장교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알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프로젝트가 유용한 정보 수집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현재의 수준보다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에 문제점은 원거리투시에 대해 과학계가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육군은 이 현상에 보다 과학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어떤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현상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몇 가지 과학적 노력에 기금을 대기 시작했다.

심령적 정보 수집에 대한 초기의 노력에는 사실상 오늘날 실행되는 원거리투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첫번째 노력은 타고난 심령가들의 변형된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통 심령가의 머리와 발에 전극을 연결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게 한다. 전극 장치는 보통 심령 상태의 변환을 나타내 주는 징표인 신체 전압의 180도 극이동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쓰여진다. 이 방에는 '조력자'가 한 사람 있어서 타깃으로 '이동'하여 관찰한 것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이 실험들이 가치있는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아진 정보가 모든 실험마다 혹은 주제에서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은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고위군 당국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1982년에, 타고난 심령가인 잉고 스완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뒷받침할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원거리투시에 비약적인 발

전을 이루게 했다. 스완은 여러 해 동안 스텐포드 연구소(Swann 1991, pp.92-4)"를 포함해 여러 과학 연구소의 광범위한 실험에 참여했을 때 이것을 발견했다. 그는 지리적인 좌표를 사용한 원거리 투시의 양식을 발견하였고 이 양식은 '좌표 원거리투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완은 이 방법으로 10여 명의 사람들과—몇몇 군인과 민간인—훈련하기로 계약했다. 훈련은 1년 간 지속되었다. 훈련받는 이들에게 변형된 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팀은 우선 버지니아 주에 있는 몬로 연구소로 보내졌고, 육체 이탈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훈련을 받았다.

워싱턴 D.C.에는 가끔 입법부와 언론계의 주의를 끄는 커다란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스캔들 후에 항상 당국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이란-니카라과 사건 와중에 국방장관은 군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나 조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원거리투시 부대를 알아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감찰반을 보냈다. 원거리투시팀은 연구팀이므로 민간 관료들은 그들이 보기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형태를 제시하였다.

그 시점부터 국가의 고도로 훈련된 원거리투시자들에게 작전상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워싱턴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크지도 않았지만 결국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때부터 팀의 모든 멤버는 자신들이 특별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러한 재능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 SKI 인터내셔널과 임했던 실험가로는 조셉 맥모너군이 있다. 그는 최근에 원거리투시용 주제로 재미있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Mind Trek: Exploring Consciousness, Time, and Space Through Remote Viewing*에도 화성의 고대 문명을 무시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다. 사실 통제된 조건하에 행해진 내 연구는 맥모너군이 고대 화성 문명에 관해 관측한 내용들을 입증하고 있다.

책무가 뒤따른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으로 인하여 그들은 보다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게 되었고, 하늘의 별들로 마음의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을 때는, 그들 중 아무도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원거리투시

배경

현대 원거리투시(투시법을 이용하기 위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투시법 자체)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가장 유익한 정보는, 미군에 의해 사용된 실질적인 초기 원거리투시법을 발전시킨 잉고 스완의 책일 것이다. 『만인을 위한 ESP 안내서 Everybody's Guide to Natural ESP』에서 스완은 투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스완의 견해는 원거리 투시에 관한 가설이나 이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예술가이자 미술가이며 특출한 재능을 지닌 심령가이지 과학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는 이 주제에 관해 매우 귀중한 직관을 제공한다.

원거리투시가 텔레비전이나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심령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해야 한다. 원거리투시는 정밀

하게 구성된 절차들을 포함한 정확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훈련받은 사람만이 자료 수집의 목적을 위해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선천적인 심령가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에 근거한 의견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밀쳐두는 것이—적어도 잠깐이라도—좋을 것이다.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 책은 거의 모든 독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과학적 원거리투시

원거리투시는 많은 발전과 보완을 통해 기술에서 과학으로 발전되었고, 나의 연구 과정도 원거리투시의 기법과 이해를 증대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의 좌표 원거리투시에 관한 현대적 군대 기법의 공헌은 지형학적인 좌표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의 탈피를 가능하게 한 데에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헌은 좌표 원거리투시보다 훨씬 방대하고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는 군에서 개발된 기법을 사용하는 개인 기관들이 있고 누가 그것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기법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내 트레이너조차 새로운 이름을 붙였을 정도다. 그러나 이 기법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도 미군에 의해 개발된 것 그리고 오늘날 군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한다.

이 책을 위한 연구에 사용된 원거리투시를 나는 '과학적 원거리투시SRV' 라고 부른다. SRV도 군에서 개발된 기법이지만, 사용되는 방법과 목적 때문에 현대 군대 기법과는 조금 다르다. SRV는 구조상으로는 원거리투시를 위한 현대 군대 기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군의 기법과는 달리 원거리투시자와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간에 쌍방 교신이 가능하다. 군의 원거리투시는 항상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절차였고, 의사 소통의 목적으로 이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 어쨌든 군에서 유래한 원거리투시 기법의 구조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따라서 SRV의 구조에 대해 언급할 때는, 크게 보아 현대 군에서 개발한 기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SRV는 '무의식'이 의식과 의사 소통하게 함으로써 자각의 한 수준으로부터 다른 수준으로 가치있는 정보를 전하는 일련의 정형화된 절차이다.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정보는 보통 직관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말하자면 자녀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듣지 못했어도 감지한다는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직관은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물리적인 수단 없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작용한다. SRV는 직관을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종이에 기록하고 나중에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SRV를 이용하면 합리화나 상상과 같은 통상적으로 깨어 있는 지적인 과정이 의식에 개입하기 전에 무의식으로부터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기법들은 역사 문헌에 묘사된 대상을 그려내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사실 스케치하는 것은 SRV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중대한 요소이며, 원거리투시자는 타깃(즉 투시되는 대상)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 그림들을 해독하도록 훈련받는다.

타깃에 대한 정보는 훈련받은 개인에게 무의식을 통하여 온다. 원거리투시자는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면서 투시 중에 이 정보들을 빠르게 기록한다. SRV의 규칙들은 원거리투시가 끝날 때까지

투시자가 의식의 지적 과정을 사용하지 않게 해준다. 규칙을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이 과정에 의식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이 즉시 데이터를 해석하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상상력이 활발해지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훈련받지 않은 선천적 심령가가 신뢰할 만한 원거리 투시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SRV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가 다 수집될 때까지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거리투시가 백일몽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종교를 믿듯이 믿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연구 조사의 기록일 뿐이다. 훌륭한 과학 연구가 독립적으로 재검증될 수 있듯이, 이것도 과학적 원거리투시법을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 재검증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자들이 여기 기록된 것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 보고된 모든 정보를 상당한 정도까지 입증하고 기록했다. 그 입증 절차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술하였는데, 이 연구나 다른 어떤 과학 연구 조사에서도 신앙이나 믿음은 전혀 끼여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겠다.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석했는데, SRV 기법을 훈련받은 연구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 자료들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타깃 좌표

과학적 원거리투시는 항상 타깃에 초점을 맞춘다. 정보를 필요

* 무의식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면, 타르그와 빗호프의 *Mind Reach*와 웹버의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 그리고 미브로미티스의 *Hypnagogia: The Unique State of Consciousness Between Wakefulness and Sleep*을 보라.

로 하는 것이면 거의 무엇이든 타깃이 될 수 있다. 장소나 사건 또는 사람이 보통이지만, 꿈이나 신과 같은 타깃을 투시할 수도 있다. 투시자는 필요한 정보를 무의식을 통해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얻어내는 것이다.

투시는 타깃 좌표를 이용한 절차들로 시작된다. 타깃 좌표는 무작위로 뽑은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지며 투시자는 어떤 타깃이 어떤 번호를 갖는지 알아서는 안 된다. 번호를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 좌표는 타깃의 지형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번호 자체는 의식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러하면 타깃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의식과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오는 상상력과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추측과 데이터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준다. 게다가 좌표 번호만 줘도 무의식이 타깃을 즉시 안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투시자가 다른 추가적인 정보 없이 타깃 좌표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원거리투시자는 투시가 끝날 때까지 타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타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좌표로 SRV 기법을 시행한다.

투시자는 좌표를 사용하여 투시 중 내내 엄격한 SRV 기법을 따른다. 타깃과의 정신적 연결은 '신호'를 추출해 낸다. 투시자는 신호 정보에 들어 있는 특이한 정신적 영향을 알아내는 법을 배움으로써 타깃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와 왜곡된 정보—상상에서 오는 정보와 같은—를 구분하게 된다. 투시가 끝나면 투시자는 데이터와 비교하도록 타깃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데이터 수집 과정에 피드백을 얻게 된다.

SRV 기법

SRV 기법은 7단계로 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타깃에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얻게 된다. 투시는 1단계에서 7단계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초기 단계를 사용하여 타깃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었을 경우에는 7개의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

일곱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1, 2단계는 '예비 단계' 라고 하는데, 타깃 장소와 접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1단계에서 얻는 데이터는 초보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타깃 위치에 관련된 인공 구조물이 있는지 본다.

2단계 : 목적지와와의 접촉을 증가시킨다. 여기서는 색깔, 표면의 질감, 온도, 맛, 냄새 그리고 타깃과 관련된 소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3단계 : 타깃에 대해 처음으로 스케치한다.

4단계 : 타깃과의 접촉은 상당히 긴밀하다. 4단계에서는 무의식이 투시자를 완전히 지배하여 정보의 흐름을 결정하고 의문점을 해결하게 하는 단계이다.

5단계 : 방에 있는 가구와 같이 특별한 구조물에 관해 세부적인 정보를 얻는다. 특정한 대상에 관해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단계는 생략된다.

6단계 : 원거리투시자가 목적지에서 지시에 의해 탐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에서 투시자는 자신의 의식을 통해 무의식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시간선과 지정확적인 배열 등이 분석되는 단계이다. 정교한 스케치도 역시 이 단계에서 행해진다.

7단계 : 위치의 이름과 같이 장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이용된다.

원거리투시 데이터의 범주

원거리투시에서 얻은 데이터가 다 같을 수는 없다. 데이터는 다양한 조건에서 얻어지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원거리투시는 어떤 조건에서든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눈을 감는다고 갑자기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의 투시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대상이나 존재, 개념 등 타깃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타깃을 여러 번 투시해야 할 때도 많다.

원거리투시로부터 얻은 데이터에는 6개의 유형이 있다. 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투시자가 원거리투시를 시작하기 전에 타깃에 관하여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을 들 수 있으며, 이 정보의 양은 매 투시 시간마다 차이가 있다. 데이터 유형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투시할 때 진행을 돕는 감독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투시의 목적에 따라서 투시 기법의 일곱 단계를 거치는 동안 때로 6백 가지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작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마음의 분석적인 부분이 데이터를 왜곡하고 해석하거나 오염시키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타깃에 대한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는 데 있다. 투시가 끝나면 투시자는 여러 가지 양식의 데이터가 기록된 20장 정도의 기록지를 해독하고 해석하며 종합하는 단계를 거친다.

SRV 중에 타깃과 아주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이것은 투시 도중에 투시자가 자신의 육체적 위치와 타깃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이 투시 중 자주 일어난다. 이럴 때는 투시자가 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집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1종 데이터

원거리투시자가 혼자서 투시할 때 이를 '단독 투시'라 부른다. 단독 투시의 경우 투시자가 타깃을 선택하면(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얻어진 데이터를 제1종 데이터라 한다.

타깃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을 때는, 이를 사전 지식(front-loading(이하 FL))이라 한다. FL이 필요할 때가 많고 투시자가 알려진 타깃에 대해 무언가 알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이런 형태의 투시에서의 문제점은(주로 초보자들이 겪는), 투시자가 타깃에 대해 미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투시자의 상상력이 데이터를 쉽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원거리투시법의 정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데이터의 왜곡은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습관을 기른다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제2종 데이터

제2종 데이터에서는 원거리투시 초보자가 데이터를 왜곡할 위험이 제1종 데이터보다 감소한다. 이 유형의 원거리투시는 단독으로 하지만 특정한 투시를 하기 위해 투시자가 타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타깃은 사전에 결정된 타깃 목록에서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컴퓨터는 투시자에게 타깃의 좌표만을 제시한다. 투시자가 타깃 목록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타깃 목록을 선택하는 데 참여했을 수도 있다—컴퓨터만이 특정한 각 타깃과 어느 번호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다. 원거리투시자는 타깃과 좌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므로 투시자는 타깃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투시자가 사전 지식이 없거나 타깃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종 데이터

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단독으로 하는 또 다른 유형의 투시가 제3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쓰인다. 제3종 데이터에서는 원거리투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타깃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투시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투시 본부에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훈련받은 원거리투시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의 관리자는 타깃을 알지만 투시자는 모르며, 투시자들은 서로 연락도 취할 수 없다. 그들은 타깃에 관하여 제한된 약간의 정보—예를 들어 타깃이 장소인지 사건인지에 대해서—를 받는다. 그러면 투시자들은 좌표만을 사용하여 투시해 나가고 결과를 본부에 팩스로 보낸다. 여러 투시자들을 이용하여 입증된 정보가 100퍼센트의 정확성을 갖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투시자들이 한 타깃을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투시하게 되므로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깃에 대해 보다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단독 투시에는 몇 가지 결점이 있다. 이는 투시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분석력을 배제한 채 투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시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채 타깃을 투시하게 된다. 단독 투시를 통해 타깃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투시의 향로를 지시해 주는 조력자가 있으면 타깃에 대해 좀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조력자를 '감독'이라 부르며, 감독과 함께 하는 투시를 통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제4종 데이터

'감독된' 원거리투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때로 감독이 자

신은 타깃을 알지만 투시자에게는 타깃의 좌표만을 알리는데, 이것이 제4종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 유형의 감독된 투시는 흔히 훈련 중에 많이 사용된다. 감독이 투시자를 안내하는 데 이용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4종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감독은 투시자가 할 것과 볼 곳, 갈 곳 그리고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될 경우 질문할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이 모든 분석을 하는 동안 투시자는 거의 자신의 분석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투시 중에 감독과 원거리투시자가 같은 방에 있을 필요는 없다. 감독과 투시자가 대화하기 위해서 스피커폰을 사용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장소에 있을 때라도 감독된 투시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투시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투시 시간 중 한두 번쯤 감독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은 '원거리에서 감독된 투시'라 한다. 이 책에 사용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런 제4종 데이터가 많다.

제5종 데이터

아주 중요한 사안을 접할 때에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을 위해 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감독이 투시자를 유도할 가능성을 막으려 노력한다. 이 경우에는 투시자와 감독 모두 타깃을 모르고 제3의 외부 인사나 컴퓨터가 제시하는 좌표를 받아 투시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제5종 데이터이고, 이 조건하에 행해진 투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단점이라면 다른 형태의 원

* 목적이 김면 감독과 투시자가 목적 내용을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 목적이 상당히 김 경우에는 의식이 타깃을 알아맞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거리투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감독이 투시 중 얻어지는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행기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출발한 후에 조종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출발 전에 계획이 정해졌을 때 비행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종 데이터는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결과에 보다 높은 신뢰도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제6종 데이터

마지막 종류인 제6종 데이터는 감독과 투시자가 타깃에 대한 정보를 갖고 하는 투시에서 얻어진다. 이런 형태의 투시는 투시자가 특정한 타깃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단독 투시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 사용한다. 이런 경우 감독이 항해를 하지만, 투시자와 감독이 투시 목적에 관하여 사전에 의견을 나눈다.

제1종: 단독, 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 투시자에 의해 선택된 타깃.

제2종: 단독, 사전 지식이 없다. 사전에 결정된 타깃 목록에서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타깃.

제3종: 단독, 사전 지식이 없다. 외부인에 의해 결정된 타깃.

제4종: 감독되며, 투시자는 사전 지식이 없고 감독은 사전 지식을 가진다.

제5종: 감독되며, 투시자와 감독이 사전 지식을 갖지 않는다. 미리 결정된 목록에서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타깃.

제6종: 감독되며, 투시자와 감독이 사전 지식을 가진다.

어느 유형의 데이터도 다른 것을 모두 합한 것보다 낫지는 않고, 각각의 유형은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타깃 목록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된 대다수의 원거리투시는 제4종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감독이 타깃을 아는 반면 원거리투시자는 타깃을 모르고 투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타깃은 감독과 함께 편성한 40개의 타깃 목록에서 무작위로 뽑았다. 연구 과정에서, 감독이 어떤 타깃인지 말하지 않고 15개 정도의 다른 타깃을 첨가하게 했다. 감독은 또한 내가 투시하게 될 타깃이 특별한 타깃 중의 하나인지 또는 원래 목록 중의 하나인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감독과 함께 투시를 해나가기 시작한 후 나는 의도적으로 원래의 40개 타깃을 다시 보지 않았다. 어떤 타깃을 투시했는지 또 어떤 타깃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조건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원래의 타깃 목록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시간마다 어떤 타깃을 투시하게 될지 몰랐다는 것을 뜻한다.

SRV 기법의 견지에서, 그 목적은 타깃을 추측하는 것이 가망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의식이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한다. 그런 수단은 데이터의 유형에 관계없이 무의식에서 오는 정보만을 보고 할 수 있는 노련한 원거리투시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논쟁의 여지가 큰 만큼 제4종 데이터에 가능한 한 많이 의존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로 연구의 시작 단계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

무지로 인한 비판

원거리투시에 대한 비판은 감독된 데이터에 집중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데이터(제4종부터 제6종)는 감독의 편견과 해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통이다. 특히 자폐증 아이들에게 치료자가 부지불식중에 손을 움직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감독이 투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들은 일반적인 원거리투시 데이터의 정당성을 깎아내릴 때 사용되는 적이 많다. 그렇지만 SRV에 대한 이런 류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

지구상의 타깃을 이용한 대부분의 원거리투시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SRV 기법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적 개념을 믿듯이 데이터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는 진실이든 아니든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타깃 정보의 진위가 물리적 수단을 통해 확인될 수 없다면, 입증 자료를 얻기 위해 제3종 데이터로(사전 지식 없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다른 원거리투시자들에게 타깃을 투시하게 할 수 있다. 여러 명의 투시자가 제3종 조건 하에서 같은 타깃에 대해 똑같은 정보를 얻는 확률은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서 요구되는 통계적 엄격성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이 비판의 문제점들은 대부분의 초창기 탐사가라면 누구나 경험한 것이다. 제임스 브루스는 지금은 에티오피아로 알려진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간 최초의 유럽 탐사가이다. 그는 1700년대 후반에 탐험했는데, 그의 경험을 동시대의 영국인들은 무턱대고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불렀고 그런 이상한 곳은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에티오피아였고, 훗날의 탐사자들은 제임스 브루스가 발견한 것이(Hibbert

1982, pp.21-52)⁹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루스를 거짓말쟁이라 추궁할 별다른 근거도 없고, 그의 경험에 겨룰 만한 개인적 경험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의 경험을 입증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 사람의 경험에 관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한다.

SRV의 한계

과학적 원거리투시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한계는 어느 정도 특정한 타깃의 본질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훈련된 원거리투시자는 책을 타깃으로 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읽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내 경우에는 외계인의 유니폼에 있는 배지를 투시했다. 그 유니폼이 흰색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배지에 있는 모양을 정확히 그려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훈련을 통해 가능해질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이 거리의 이름이나 교통 표지판을 읽는 어려움과 유사하다.

또 하나의 한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곳과 비교하여 자신이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외계 문명의 별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태양계와 관련하여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한 원거리투시자가 지구에서 외계인의 행성까지 비행선을 뒤따라 갈 수는 있어도 정확한 경로는 알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얻는 '대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의 의미에서—가 크다. 다른 예를 들자면,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일단의 외계인들이 지구의 어떤

등근 산 지하에 기지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많은 원거리투시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 산의 위치를 알아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SRV의 대부분의 한계는 적절한 시간과 노력,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닌 형태의 한계가 있었다. 때로 원거리투시자는 외부의 다른 원천에 의해 방해받았는데, 예를 들어 UFO 피랍에 대한 문헌은 '회색인'이라고 알려진 외계인에 대해 무수히 언급하고 있다. 이 외계인들은 회색빛 피부에 작고 말랐으며, 인간을 우주선으로 데려가 의학적인 검사를 하고 부인과적인 처치를 한다는 것이다. 회색인들의 우주선에 침투하려고 시도했던 원거리투시자들은 시아가 '차단'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시자에게 대체 영상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짓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쉽다. 회색인이 대체 영상을 보낼 때 여러 명의 원거리투시자가 똑같은 대체 영상을 받는 않는다. 중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14장에서 명확해지겠지만, 최근에는 UFO 피랍 사건의 경우에도 투시 방해 현상이 사라졌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마지막 한계는 '개념'의 문제이다. 원거리투시자들은 '있는 그대로' 투시를 시작한다. 원거리투시는 눈을 가리고 외국 도시에 들르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눈가리개를 벗고 주위를 둘러본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건물들과 사람들, 낯선 언어를 알아차리게 된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거리투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시자가 많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의식은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만, 투시된 데이터에 관련된 기본 '개

념' 들을 의식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일은 더 쉬워진다. 예를 들어 진보된 외계인의 과학 기술을 세부적으로 투시하는 데 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무의식이 그런 기술에 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이상은 의식에 이해시킬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공학자들은 전문적인 부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중요한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학자가 받은 교육이 이해를 도와준다. 한편 나는 사회과학자이므로 외계 사회를 투시하는 일은 아주 잘 해낼 수 있다. 즉 의식은 무의식이 보여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무의식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지각할 수 있지만, 지각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원거리투시의 한계들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 장애가 우리의 기술이나 훈련 때문인 경우에는, 미래의 보다 잘 훈련된 세대 이전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외계인이 우리에게 강요한 한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거의 투시를 방해하지 않는데, 방해할 때는 자신들의 활동이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다. 인류가 은하 사회에 소개될 정도로 충분히 성숙됨에 따라 이런 한계들조차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UFO 문헌의 편견

지구나 지구 가까이의 외계인 활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UFO에 관한 현존하는 문헌에는 비과학적인 편견들이 많다. 그렇지만 문헌에서 발견되는 많은 잘못된 결론들은 이해 능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에

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쓴 많은 책을 읽었고 그들과 대화하기도 했다. UFO의 수수께끼는 원거리투시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데이터가 없다면 추측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알려진 다른 정보는, UFO의 목적이나 피랍 보고들—최면 상태의 개인에게서 추출되는 것이 보통이다—혹은 우호적인 외계인들이 실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준 '채널 정보'에 근거한다.

나중 형태의 모든 데이터에는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UFO를 목격했다는 보고들은 과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충분한 정보를 내포하지 않는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전히 비행선 안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들의 사회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피랍 보고들과 연관된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하므로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UFO에 갔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하며, 지금 우리는 많은 보고 내용을 입증하는 원거리투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보고들은 인간이 납치되고 있으며 유전학적으로 일부분은 외계인이고 일부분은 인간으로 설계된 후손을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역할로 이용된다고 한다. 그 문헌은 회색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생리 구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피랍자들은 납치한 측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억상실을 일으키는데, 훈련된 치료자에 의한 최면으로 극복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유익한 보고로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존 E. 맥의 『피랍Abduction』과 템플 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제이콥스의 『감추어진 생애: UFO에 피랍되었던 실제인물의 기록 Secret Life: Firsthand Documented Accounts of UFO Abductio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맥 박사는 한 연구 조사에 근거하여 1백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납치된 경험이 있다고(Jacobs 1992, p.9)^{*} 했는데, 그런 경험은 미국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보통 심리 상담의 형식으로—구하기도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40만 명 정도가 (현재까지) 자신들의 피랍 경험과 관련하여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찾았을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보고를 몇몇 치료자에게서 들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다.

카운슬러를 찾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외계인과의 만남으로 특별히 정서 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 이유야 어떻든 대부분의 다른 교류는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는 반면, 일부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교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피랍 문헌은 납치당하여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의 기록이므로 왜곡이 심할 수 있다. 이것이 문헌들이 내포하는 5가지 문제점 중 하나이다. 즉 문헌은 납치되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런 잠재적으로 비대표적인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외계인과의 접촉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초래한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문헌들은—맥의 저술을 제외하고—나치와 같은 유전 실험을 위해 성인을 납치하고 유아를 유괴하는 악한 외계인에 관한 경고로 채워져 있다. 요점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

* 이 문제에 관해서는 휘몰리 스트리버도 그의 책 *Abduction: The Near Step*에서 언급하고 있다.

람들의 편협한 선택에만 근거해서 외계인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다 균형 잡힌 사례의 선택은 인간과 외계인들의 교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치료자가 알 수 없다.

거의 모든 피랍 문헌에 포함된 두 번째 주요 편견은 최면술의 이용에 기인한다. 납치되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소생시키는 데 최면이 크게 도움된다는 점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문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색인들이 인간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면을 통해 회상된 기억들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최면으로 되살린 기억은 쇼크나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 순간과 같이 납치의 기억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료는 납치의 충격을 받은 비전형적인 사람들로부터 가장 극적으로 왜곡된 기억만을 추출해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고된 자료들이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료에서 전체 외계인의 전반적인 의도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외계인들이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들을 인터뷰하는 것만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려 하는 것에 비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는 인간은 조심성이 없고 취할 때가 많으며, 가학적이고 자기 종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한 종족이라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인간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세 번째 주요 편견은 연구자의 시각과 관련 있다. 유괴되고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기는 쉽다. 인간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의 희생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쉬운, 아주 정서적인 종족이다. 우리는 악한을 증오하고 보복을(추구)한다. 연구자들은 감춰진 기억을 되살리는 최면을 할 때

희생자와 함께 소위 감정 이입 상태에 들어가기 쉬우며, 희생자의 경험과 자신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훈련받은 연구자들은(백은 제외하고) 아주 적다. 심리 상담법을 훈련받은 전문가들만이 그런 억압된 기억들을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심리 치료는 엄격히 통제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도로 환자가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해석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심리 치료 기법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수집한 자료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할 뿐이다.

피랍 문헌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편견은 그러한 사건이 보고되는 사회 전반의 문화적 배경이다. 우리는 폭력에 대한 보고를 좋아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뉴스를 보면 분명해진다. 차분하고 건전한 얘기는 거의 들을 수 없고 방송 매체를 지배하는 뉴스는 강간, 살인 그리고 온갖 범죄들이다. 희생자들은 감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뉴스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어려서 성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그리고 도심 빈민가의 뒷골목에서 윤간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와 같은, 동정적인 내용은 거의 듣지 못한다. 우리는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는다. 복잡한 삶의 여러 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다.

덧붙여, 우리 문화는 상상이건 현실이건 폭력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즐긴다. 폭력물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가장 흥행성 있는 제작품 중 하나이며, 극장가에서도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 사회가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폭력에 대한 애호이다. 이것은 납치된 사람들이 학대로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합당한 이유로 인한

것인지는 전혀 묻지 않고 학대에 대한 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확대한다면, 이야기의 다른 면을 간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예방 접종을 위해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갈 때 아이들이 폭력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외계인들에게 확대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납치된 이들의 이야기를 우습게 보아 넘기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결정하기 전에 두려움과 증오를 잠시 멈추고 사건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피랍 문헌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편견은 가장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 생각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 편견은 인종적인 고정 관념에 의한 것이다. 납치된 이들이 인종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보려 하는가이다.

피랍 문헌들에 따르면, 이런 활동에 연루된 외계인들은 말 그대로 회색빛이다. 작고 말랐으며, 길고 큰 눈과 질긴 피부를 가졌고, 감정이 부족하다. 그들은 큰 키에, 파란 눈과 금발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자동적으로 이들에 관한 고정 관념을 유발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인종주의가 없는 사회라면, 여기서 이런 문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솔직해지자면, 우리 사회는 인종 차별의 인습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대하는 데 이렇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관해서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납치되었던 이들은 분명 우리 사회의 일원인데, 우리 문화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존재들을 늘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외계인들이 종종 악마로 묘사된다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데이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우주 사회에서 성숙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의 심리 문제에 솔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고, 다른 문화들을 보다 객관적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우주관이 지닌 심각한 문제의 단편으로 피랍 문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종적 고정 관념의 한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저자를 비판하기 위해 선별한 것은 아니다. 그 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단지 일반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최근에 출판된 조지 C. 앤드류의 책에 있는 내용이다. 그는 피랍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다시 전하고 있는데, 다른 피랍자들도 이 견해 중 상당 부분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쓰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회색인들이 히틀러와 접촉을 가졌고 AIDS 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를 살포하기 위해 CIA, 나치 등과 협력하고 동물의 호르몬을 추출하여 자양분을 만드는 등 해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그들의 적(즉 선한 외계인들)은 '키가 큰 금발' 혹은 '스웨덴 인'이다. 이 존재들은 서구 주류 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아름답고 잘생긴 것이 보통이다. 금발의 외계인은 우리 정부가 그들의 나쁜 적인 회색인들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Andrews 1993, pp.142-64).¹¹

외계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란다면 이런 형태의 인종적인 편견과 고정 관념적인 일반화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다시 반복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얻고 이 자료를 현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편협된 자료와 연구 관행, 문화의 문제점에 의해 곡해된 자료들에 대한 해석을 내려왔다. 우리는 외계의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편견을 버리고 그 현상에 대해 보다 완전한 상황 파악을 해나갈 필요

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자료 수집의 마지막 방법은 '채널링' (어떤 생각이나 에너지 등을 제3자의 몸을 빌려 전달하는 행위, 채널러는 이것을 수행하는 영매이다—역주)인데, 이것이 원거리투시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채널링은 한 사람이 외계인과 텔레파시로 의사 소통을 하는 동안 실신 상태에 빠질 때 발생한다.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 외계인이 그 사람의 심신을 일시적으로 '차지' 한다는 주장도 때로 있었다.

내 경험으로 보아, 채널링을 통한 정보는 원거리투시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신뢰할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다. 전형적으로 채널러는, 인간에게 우리는 선한 외계인이며 악한 이들을 조심하라는 외계인들의 경고를 알린다. 채널링을 하는 존재들은 경고, 권고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 보낸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채널러 사이에 일관성도 없고, 원거리투시의 결과와 일치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원거리투시에서는 연구자가 관찰하는 것과 관찰자의 훈련 그리고 데이터 관찰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엄격하게 선별과 조사 절차를 통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채널링은 그렇지 못하다. 단순히 채널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야 하는데, 믿음은 독립적으로 증명되고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을 위한 만족스러운 대체 방법이 아니다.

아카샤를 통한 여행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원거리투시로 외계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2년 1월쯤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러 외계인과 폭넓은 교류를 했다. 대부분의 접촉은 원거리투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외계인들 모르게 독자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외계인의 생각대로 지구 외의 문명에 대한 관심의 전 단계로서 '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흥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시받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런 암시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방향으로 인도되고 유도되었다는 것을 (무수한 정황적인 증거가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직관적으로 안다.

인간의 의식을 향한 나의 탐험은 세 단계 훈련을 포함했는데 '시디Sidhis'라 불리는 고도의 초월 명상(TM)을 배움으로써 시작됐다. 둘째 단계의 훈련은 버지니아 주 파버에 있는 몬로 연구소

의 한 주짜리 과정이었고, 셋째 단계는 원거리투시 훈련이었다. 각 단계는 다음에 설명하듯이 외계 연구에 직접 관련됐다.

시디

1991년, 나는 TM-시디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TM처럼 시디는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에게 훈련받은 선생들이 가르친다. TM-시디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외계의 존재에 관해 연구하던 중 나는 시디와 비슷한 수행을 하는 외계인을 만났다. 둘째로, 원거리투시 중에 집체 의식을 가진 한 무리의 외계인 의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 외계인의 집체 의식(‘다중의식’이라고 해도 좋다)은 TM-시디 프로그램의 수행 중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주관적인 경험을 갖는다.

TM-시디 프로그램에 대한 내 원래의 관심사는 명성있는 사회과학 저널에 발표된 이례적인 논문과 관계가 있었다. 『갈등 해소에 관한 저널(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의 1988년 12월호에, 초월 명상을 하는 명상자들과 한 장소에서 TM-시디 프로그램에 관여된 이들이 근방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론적으로 정교한 논문이 실렸다(Orme-Johnson 외 1988).⁹⁾ 이 현상은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를 기념하여 ‘마하리시 효과’라 불렀다. 이 논문이 출판되었을 때 모든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아직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마하리시 효과에 대한 논문의 발간에 이어 나는 명상이 정말로 세상의 갈등을 감소시키는지 열린 마음으로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TM-시디 프로그램을 배워 마하리시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에모리 대학에 연구 보조금을 신청했다.

보조금을 받았고, 곧 그후에 시다(Sidha, 고도의 명상가)가 되었다.

초월 명상회와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어떤 형태로든 그 단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금전적으로나 다른 물질적 혜택을 받은 적도 없다. 연구에 종사해 온 독자적인 사회과학자로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며, 명상에 관해 언급한 것은 모두 외계 문명에 대한 연구와 관련있는 내 생각과 경험들을 반영한다. 주위의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과학자이며 훈련된 관찰자로서의 내 모든 과학적 지식을 사용했다.

TM-시디 프로그램의 주관적 경험

정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은 다섯 가지 신체 감각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으로부터 전해지는 감각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정신 활동은 이 감각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사용한다. 전해진 감각들은 논리와 상상 같은 지적인 활동에 사용된다. 그렇지만 명상 중에는 이 감각들의 흐름은 결국 침묵하게 될 때까지 작아진다. 이 시점에서는 논리와 상상 또한 멈춘다.

그렇다고 텅 빈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명상가들이 '의식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과 연결되는 상태로, 매우 활발한 정신 활동일 수도 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영역은 모든 개체의 내면 의식을 포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나타난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영역을 직접 경험한다. 통상적으로 이 영역과의 접촉은 신체의 오감에서 오는 신호와 사고, 기억, 정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그러므로 비물질적인 것을 지각하기 위해 감각들로부터의 자각을 물리침으로써 의식을 초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정의상 물질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지만 발달된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지각은 명상자의 몽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각이 강화될 때까지 의식의 영역을 연습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달하면 더 이상 명상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사람은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갖게 되고 자아를 실현했다고 묘사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식이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자극에 대한 인식과 내면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하나의 통합된(즉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의식만을 지닌다. 의식의 영역은 생명의 모든 측면에 연결되므로, 통상적인 오감에 더 큰 차원의 인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인식은 더욱 풍부해진다. 이것 없이는 생명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해안을 가질 수 없다. 앞서 묘사한 경로를 통해, 명상은 통상적인 인식 체계에 내면 세계를 비추어 주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자아 실현 현상은 고도로 발달한 의제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인 데 반해, 인간 사회에서는 겨우 몇몇 사람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흔히 그러하듯이, 자아를 완전히 실현한 사람은 우리와 공존하는 비물질적인 생명의 다양성을 빠르게 자각하게 된다.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모든 생명은 일종의 공간에 존재한다. 불행히도 영어의 'space' (외계의 공간에서와 같이)는 물리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어 왔다. 물리적 생명체와 비물리적 생명체 둘 다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용어는 산스크리트어의 아카샤akasha이다. 우리는 모두 아카샤에 존재하며 모든 여행은 우주선을 이용하는 고도로 훈련된 의식을 이용하는 관계없이 아카샤 내에서 일어난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으로' 하늘을 돌아다녔으므로 최초의 위대한 우주 비행사였다. 고도의 명상자들과 의제인들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카샤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TM-시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마하리시 국제대학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명상 돔 중 한 곳에서 1992년 첫 주 동안 있었던 강의를 통해서였다. 이 기간 중 돔에는 2천 명 이상의 명상자가 있었고, 우리 모두 TM-시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TM-시디 프로그램은 상당히 복잡해서 여기에 그 절차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의 일부에 '요가 비행'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대중 앞에서 실연된 경우가 많고 TV로 방영된 적도 많다. 요가 비행은 가부좌 상태에서 개구리가 뛰듯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요가 비행은 체조가 아니라, 의식의 영역과 밀접히 연결된 명상 상태에서 특정한 형태의 활동을 연마하는 것이다.

요가 비행의 전 단계에서 나는 뚜렷한 안정감을 느꼈다(침착함, 가라앉음, 자각의 이동과 같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내 의식이 어디론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노력'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은 마음이 통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정보 처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교신을 차례로 압도하기 때문이다. 자각의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면, 자각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와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차이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언급하겠다.

명상적 자각 상태에서, 사고와는 다른 자아를 명확하게 느꼈다. 이 상태에서는 사고 작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더욱이 명상 중에 이르게 되는 자각의 상태에서는, 사고 작용이 나의 본질적인 자아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명상 중에 느낀 바로는 확장된 자아가 내 의식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의식은 사

고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확장된 자각 상태는 모든 활동이 멈춘 상태는 아니었다. 내가 어떤 곳에 와 있다는 것과 또 나 아닌 다른 존재도 나와 같이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 이 경험은 또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 프로그램이 요가 비행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다.

깨어 있는 의식 상태에서 볼 때, 명상 중에 경험하는 자각 상태는 아주 미묘하다고 흔히 말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 이 말은 정확한 것 같다. 그렇지만 확장된 자각의 상태에서 볼 때는,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항상 미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의식의 파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각한 것은 요가 비행 중이었는데, 그 파도는 넓은 훈련장을 물결처럼 퍼져 나가며 엄청난 힘으로 다가왔다.

의식의 파도는 명상자가 한 장소에서 명상을 하며 의식 세계에 다다랐을 때 일어나며, 이때 발생하는 파문은 모든 명상자가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 경험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커다란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다.

물론 주관적인 관찰을 무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것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참여자가 여기에 대해 말할 때 흔히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 행위를 관찰하도록 훈련받았고, 상상과 실제의 지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도로 발달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모두 너무 사실적이어서 이런 경험들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언가 객관적인 것이 마하리시 국제대학의 명상 돔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 경험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물론 훨씬 더 유쾌한 의미에서) 사실적이었다.

커다란 그룹 안에서 첫 명상 후의 내 반응을 똑똑히 기억한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갖가지 실험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현상은 아니었지만 사실적이었고, 물리적인 실체에(예컨대,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무엇이 과학에 의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의식의 매우 미묘한 부분을 여행하며 그 안에서 강력한 에너지파와 같은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할 수는 있다.

몬로 연구소

TM-시디 프로그램의 과정을 마친 지 21개월 후, 과학적 원거리 투시 훈련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버지니아 주 파버에 있는 몬로 연구소의 한 주짜리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뇌파 훈련법을 통해 '변형된 의식 상태'에 대해 가르친다. 이 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원거리투시와 연구를 위한 감독이 되어 줄 사람을 만났다. 그는 몬로 연구소의 교육이 원거리투시에 앞서서 미리 받아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굳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던 나는, 곧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몬로 연구소에서는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학적인 신호에 물리적 변화를 산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들은 뇌의 오른쪽과 왼쪽의 반구 사이에 울려 퍼지는 다양한 주파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소리를 이용하였다. 로버트 몬로는 이 특허 기술을 '헤미싱크Hemisync'라고 이름붙였다. 헤미싱크 음은 한쪽 귀에 한 톤을(예를 들어 100헤르츠), 다른 쪽 귀에 처음

과는 미세하게 다른 톤(104헤르츠)의 주파수를 보내며, 그 결과 '비트 주파수'로 불리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음을 만들어 낸다(이 경우에는 4헤르츠). 비트 주파수는 실제로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분간해 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음을 혼합하여 헤미싱크 음을 만들어 낸다. 이런 식으로 귀에는 탐지되지 않는 낮은 주파수를 뇌의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데 소리가 사용된다.

몬로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변형된 자각 상태를 얻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헤미싱크 음의 조합을 개발했다. 그들은 변형된 자각 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뇌파의 전기 화학적인 활동을 밝혀냈으며, 이것을 헤미싱크 음이 유발하는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오랫동안 자각 여행을 해왔던 선지자나 신비주의자들과 같은 마음의 변환 상태를 스위치 하나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몬로 연구소의 가장 흥미로운 성과는 생명이 존재하는 비물리적인 존재 영역으로의 자각 여행을 가능케 하는 주파수를 발견했다는 데 있다.

『스타 트렉』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에서 부분공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측면은 부분공간에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더 이상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부분공간에 '산다'. 그들은 생생하게 살아 있으므로 이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몬로 연구소의 게이트웨이 코스에서는 부분공간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을 '포커스 21'이라 부른다. 이 상태의 자각에서는 부분공간을 깊이 응시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존재들과 의사 소통을 할

* 부분공간(부분공간)은 본래 수학용어로서 전체 공간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공간을 의미한다. 우주상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의 공간을 포함하는 고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전체 우주의 한 공간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공간을 부분공간이라고 한다.

수 있다. 내가 포커스 21을 두 번째로 경험하는 동안, 외계인들에 대한 견해를 바꾼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침대와 필요한 전자 장치가 딸린 작은 방에서 헤드폰을 통해 포커스 21의 음을 들으며 누워 있었다. 마치 어떤 장소로 정신적인 이동을 당하는 것 같았다. 듣는 쪽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은 자동적으로 톤이 발생시키는 주파수에 파장을 맞추고,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있는 것이다. 몇 분 후에 일종의 통로가 있는 어떤 장소에 도착했고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입구 같은 곳에 있었다.

나는 통로를 통과해 벽이 하나 없는 방을 발견했다. 아주 밝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왼쪽에 한 사람이 보였다. 그 존재는 형광을 발하면서 약간 투명하게 보였다. 그 사람은 내 행동을 관찰하는 듯했다. 방 안으로 계속 나아갔고 정말 놀랍게도 아는 사람을 만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대고모였다.

너무도 흥분되었다. 모두들 반가워했고 나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육신에서는 눈물이 솟아날 것 같은 뚜렷한 느낌이 들었는데, 나의 자각은 그분들에게 머물렀다. 최근에 돌아가신 이모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조금은 근심스럽게 「그런데 엘리 이모는 어디 있지요?」 하고 물었던 것을 뚜렷이 기억한다.

그 순간 또 다른—강력하게 보이는—부분공간의 존재가 가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게 씌웠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로 들려 옮겨졌다. 옮겨지는 동안, 왜 밖을 볼 수 없는지 물었다. (나는 그저 질문을 생각함으로써 물었다.) 그 순간에 가면의 한 귀통이가 들렸고, 굉장히 밝은빛을 보았다. 태양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광원으로 다가가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다시 가면이 씌워졌고 그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내가 여전히 신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빛에 직접 노출되면 해로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잠깐 후, 부분공간상의 여행이 멈추고 가면은 벗겨졌다. 수많은 회색인들이 보였다. 외계인이었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분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는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때 현기증을 느꼈다.

나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 정서적인 고통이었다. 반쯤 열린 가면 뒤로 움찔하여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감각을 통해 느끼기보다는 회색인들이 경험하듯이 그들의 의식을 통해 느끼려고 노력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침착함과 고요함 그리고 평온함을 느꼈고 『스타 트렉』에 나오는 미스터 스팩의 정신 상태에 비교할 수 있는 자각을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표면적인 정서는 없는 것 같으나 아주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고통에 대한 첫인상은, 만약 회색인의 의식으로 살도록 강요된다면 내가 어떻게 느낄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변화 과정은 아주 급작스러웠고 여전히 깊은 고통을 느꼈는데, 내게서 오는 것인지 회색인에게서 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둘 다 아닐까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확실히 몰랐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고 누가 나를 회색인들에게로 데려왔는지 알게 됐다. 그 목소리는 「이들은 내가 돕기 원하는 존재들이야」 하고 말했다. 엘지 이모의 목소리였다.

회색인 중 하나가 다가와서는 여기에 도우러 왔는지 물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첫인상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내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이었다.

모르겠다고 그에게 우물쭈물 말했다. 노력할 것이며 아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무엇이었던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의기소침해졌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도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떠나야 했다.

가면이 다시 씌워졌고 나는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는 입구로 돌려보내졌다. 실제로 이모를 전혀 보지 못했지만 더 이상은 필요없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처음에 보았던 존재가 여전히 홀로 서 있는 통로로 갔다. 놀랍게도 그때 스무 명 가량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내 앞을 지나 아래로 연결된 터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기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신호음이 내 마음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포커스 21을 떠나고 있었다. 무사히 돌아온 후에 통제실로부터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완전히 깨어 있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결과 보고실로 오십시오」

곧 이어 게이트웨이 코스에 참여한 그룹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하기 위해 연구소의 커다란 회의실에 모였다. 처음에 토론에서 화제가 된 것은 많은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부분공간으로의 여행을 함께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여행과 귀환에 대해 말했고 나는 터널에서 보았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 그냥 듣기만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했다.

원거리투시 훈련

내 연구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군의 원거리투시 작전은 기밀이라는 특성 때문에, 트레이너의 신분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언젠가는 자신이 이 연구에서 내 트레이너이며 감독이었다고 알리기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택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을 단순히 '트레이너' 혹은 '감독'이라 부를 것이다.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할 때는 편의상 '그'를 사용하겠지만 이 사람이 꼭 남성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거리투시 트레이너가 될 사람(원거리투시 군부대의 전 멤버)을 처음 만난 것은 한 회의에서였다.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뒤 명함을 건네주면서 원거리투시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금은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다. 훈련은 여전히 군 훈련생들을 위해 잉고 스완이 개발한 원래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간단히 말해서 훈련은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인력을 필요로 했다. 트레이너의 수는 너무 적고 다른 일에 보내 줄 리가 없었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곧 바뀌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당시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이사하게 될 도시를 알려주었다. 회의 후 몇 주 만에 그가 몇 가지 문헌을 보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일년이 넘도록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는 회의에 단지 하루 반나절 정도만 참석했다. 아내는 당시에 임신중이었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계인들과 UFO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회의에 갈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연구에 관련된 전문 회의라는 정도만 얘기했던 것 같다.

오찬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근심에 싸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그녀는 점심 때 방문객이 있었으며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방문은 내 활동과 관련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뒤뜰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등뒤로 어떤 존재를 느꼈다고 했다. 아내는 시다이코 TM 선생이어서 발달된 정확한 지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냥 서서 그녀의 말에 귀기울일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 존재는 관찰하기 위해 그녀를 잠들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임신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으며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잠들지 않으려 저항했고, 대신에 그 존재 쪽으로 향했다. 그때 그 존재가 아내의 앞으로 왔다가 가까운 나무 뒤로 재빨리 달려가 사라진 것 같았다. 아내에게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 존재는 전형적인 회색인에 대한 묘사와 들어맞았다.

외계인이 사람의 대화를 모니터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외계인들에 대해 더 알기 원하며, 특히 그들의 문명에 대해 회의에서 나눈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고, 외계인들이 나에게 좀더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내가 참석한 회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말했다.

그 회의 15개월 후에, 미시건 주 앤아버의 새 아파트에서 명상하고 있었다. 나는 여름마다 많은 나라에서 모인 사회과학자들에게 비선형수학을 가르치곤 한다. 아침 명상 프로그램 도중, 명상이 끝나는 즉시 몬로 연구소 테이프 중 하나를 들으라는 말을 확실히 지각했다. 그 테이프는 포커스 12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포커스 21은 비물질적 세계로 자각이 완전히 옮겨가는 반면, 통상적인 지각 상태에서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명상을 마친 후 즉시 침실로 가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테이프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

다. 휴대용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헤드폰을 쓴 후 편한 자세로 들었다.

테이프에서 예비 단계가 끝난 후 즉시, 빛을 발하는 존재의 정신적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남성이었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전에 회의에서 만났던 사람에게 연락하여 투시 훈련을 받을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프는 끝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했다.

아침 수업 후에 사무실로 가서 꽤 오래 전에 만났던 원거리투시자에게 연락을 해보아겠다고 결심했다. 이전 사무실에 전화를 했을 때 언제나 자동 응답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 그는 그곳에 잘 있지 않는다고 전에 말했다. 게다가 그가 이사하기로 한 도시의 새 전화번호조차 갖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그곳으로 이사를 했는지도 몰랐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전화안내국에 전화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기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다음날의 수업을 위해 강의 준비를 계속했다.

곧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원거리투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외계의 현상에 대해 책을 쓰고 싶으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원거리투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막 원거리투시 훈련 프로그램 개정 작업을 마쳤고 이제 하루에 6시간씩 7일 집중 코스 동안 모든 기초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7주 후 새 코스의 두 번째 학생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비용을 말했고 자신이 내 트레이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편했으므로 내 트레이너가 된다는 사실은 중요했다.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그 코스를 위한 대금 지불을 처리했다. 전화를 끊은 후 아침에 돈로

테이프를 듣던 중에 텔레파시로 접근한 빛을 발하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한동안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원거리투시 훈련을 받는 시기는 완벽했다. 훈련 몇 주 전에 몬로 연구소의 일주간의 집중적인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그해 여름엔, 연구소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경험'이라 불리는 가정 학습 코스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코스는 일주간의 상주 프로그램 중에 사용된 몇 개의 테이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여름에 상당한 시간을 포커스 12 테이프로 보낼 수 있었다. 일주간의 프로그램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몬로 연구소의 경험은 원거리투시 코스를 대비하게 해주었다.

훈련은 단순한 환경 아래서 이루어졌다. 훈련실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회색이었다. 어디에도 밝은 색깔은 없었다. 시각적 상상력이 활발해지고 데이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트레이너는 강렬하지 않은 중간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내게는 휴식을 잘 취하고 훈련 중에 허기지지 않게 준비하라고 했다. 투시자는 자율 신경계의 특정한 측면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것들은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 체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허기와 같은) 데이터의 전체적인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트레이너는 아주 인내심 많은 사람이었다. 의식이 의심함으로써 데이터가 변화되고 무시되기 전에 정확하게 적을 수 있기 위해서는 투시자가 데이터를 신뢰하게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처음 며칠간 중요한 시기에 세심하게 배려해 준 트레이너의 호의에 특별히 감사하고 있다.

원거리투시 중에 발생한 것이, 초월 명상과 몬로 연구소의 헤미싱크 음을 경험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 체계 중 평상시 사용되지 않는 부분과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정신 체계를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디 명상자에게 과학적 원거리투시는 단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수단—필사법—에 불과하다.

제2부의 구성

책의 내용을 위해 선택했던 방법의 한 측면을 강조해야겠다. 제2부에서는 지난 2년 간 했던 원거리투시의 결과들을 기록한다. 그 결과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속기록과 같은 형태로 기록되었다. 투시 과정 중 SRV기법을 행하는 동안 밟아야 했던 무수한 절차들—내 마음과 펜, 종이로 실행된—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 절차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애기한대도 지루할 것이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절차들이 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고, 당연히 보고의 정확성을 위해 직접 해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거리투시의 훈련은 쉽거나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다. 이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정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제2부에서는 제공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해석들을 기록하고 있다. 외제인 입장에서 주제에 따라 구성하거나 아니면 발견해 간 과정을 순서대로 구성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발견해 가며 느꼈던 생생한 스틸을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이 접근 방법의 문제는 각장에 화제가 어느 정도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런 점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구에
관계된 외계의 사건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
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외계인에 대해 주제에 따라 구성하는 방
법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 데이터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지금으로
부터 몇 년 후에야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독자들이 앞부분에 있는 용어 설명에
서 SRV 용어들과 다른 단어들을 충분히 훑어보기 바란다. 이 용어
들은 제2부에 기록된 원거리투시와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2 부
미지의 세계

첫번째 화성 방문

나는 트레이너가 원거리투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에 있다. 사무실에는 주의를 흐뜨릴 만한 것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빛이다. 앞에 있는 탁자에는 펜과 한 더미의 종이만이 놓여 있다. 완벽한 날씨다. 과정은 잘 진행되어 왔다. 지난번의 타깃은 전쟁 중인 베트남 강의 교각이었다. 내 마음이 타깃을 추측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타깃은 여러 가지로 변형됐다. 투시가 끝날 때까지 무엇을, 어디를 투시하는지 모른다.

트레이너는 여느 때처럼 오후를 시작한다. 그는 탁자 건너편에 앉아 있다. 그는 내게 편안한지 묻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린다. 나는 준비가 됐다고 말하고 그는 타깃좌표를 준다.

날짜 1993년 9월 29일

장소 훈련사무실

데이터 제4종

타깃좌표 5987/9221

종이에 좌표를 적고 나서 좌표 오른쪽으로 펜을 옮겼다. 이 시점에서
는 자율신경계가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즉시 스케치를 한다. 이 그림
은 지적인 분석과 직관을 이용해서 탐색되고 분석된다. 이 모두가 SRV 절
차(과학적 원거리투시법)의 1단계에 포함된다.

SRV 절차의 2단계로 넘어가서 타깃에 연관된 색깔과 표면의 질감, 소
리, 온도, 맛 그리고 냄새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1,2단계의
절차들은 타깃 신호와 '정신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이것이
아직 새롭고, 그래서 신호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마침
내 11쪽의 초보적인 데이터를 얻은 후에야 '동시현시'를 할 수 있었다.

커트니 브라운 여기엔 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위의 땅은
약간은 부드럽고 평평한 모래에 덮인 지역이에요. 무언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요
평평한 지역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 있군요.

감독 좋아, 3단계 스케치를 하지. 모두 기록하고 4단계로 가게.

브라운 알았어요 매트릭스 상에서 이동합니다. 여기는 갈색에 모
래투성이예요. 집이 하나 있군요. 피라미드가 왜 여기에 있는 걸
까? '피라미드'라 투시 분석 AOL합니다. 이걸 내 상상일 거야.

감독 판단하지 말고 우선 AOL로 기록해 두게.

브라운 집은 다소 길면서 좁은 형태군요.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
아요. 가만! 그런데 다시 그 피라미드 같은 것이 보여요. 정말 거대
하군.

감독 계속 데이터를 기록하게. '실체'를 기록하는 난에 모두 적
어 넣고... 그 밖에 뭐가 보이냐? 매트릭스 상의 이동을 계속하게.

브라운 지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동물도 있고. 사람과 동물들… 매트릭스에 전부 적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일종의 숭배와 관련이 있군요. 이걸 '무형' 이죠?

감독 물론이지! 계속하게.

브라운 피라미드는 높고 돌로 뒀으며, 단단하고 거칠군요. 이곳엔 모래가 많고 바람이 불어요. 피라미드는 견고하면서도 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군요. 와, 정말 높군.

감독 좋아, 위치 이동을 하게. 기록할 준비를 하게. 피라미드 안에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을 걸세.

브라운 이야! 가만! 갈색과 밝은 황갈색이 보여요. 표면은 거칠고 모래가 있는 데다 걸끄럽고 돌로 되어 있어요. 서늘한데 춥지는 않군요. 난 방 안에 있어요. 가만 있자, 마루가 있고 돌로 된 벽들이 있군요. 탁자가 하나 있고 탁자 위에는 유리잔 모양의 물체가 있어요.

감독 해당란에 모두 쓰게.

브라운 이 장소는 어쩐지 좀 착잡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 같군요. 필요함과 단호함 같은 개념이 느껴져요. 흠, 터널들이 있군요. 난 한 터널 쪽을 향하고 있어요.

감독 터널을 따라 가보게.

브라운 바닥에는 흙이 쌓여 있어요. 터널은 어둡고 밖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지금 표면 위의 건물 바깥에 있어요. 길이 하나나 있고 이 주변에는 모래가 많군요. 다시, 이 건물에 착잡한 느낌이 듭니다.

어, 지금은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구조물이나 주변의 것들은 거대한 빌딩 프로젝트이고 사람들이 도움과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것을 건축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군요.

바로 이웃에 도시가 있어요. 와, 가까이 활화산도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알기로 피라미드 가까이에 활화산은 없는데… 폼페이 같기도 한데, 폼페이 부근에 피라미드는 없잖아?

감독 분석하지 말고, 데이터만 기록하게. 계속하지.

브라운 사람들이 무수히 죽었고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부산해요. 사람들이 뛰고, 또 흩어지고… 절망감이 만연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군요!

이 장면을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활화산은 도시의 동쪽에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생존자들이 가까운 곳에 마을을 형성했군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판잣집들과 천막이 있는데 정말로 비참한 상태예요.

흐음, 도시를 재건하려는 새로운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새로운 그룹을 위해 재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주 멀리서 온 이들에게, 주민들을 돕는 것에 대해 당황하지 않는군요. 간편하게 여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독 좋아. 우선은 이걸로 충분하네. 시간을 기록하고 그만하기로 하지.

브라운 어디였죠? 트레이너는 탁자 위로 서류철을 건네준다. 서류철을 열어 인공 위성이 찍은 화성의 시도니아 지대 사진을 꺼낸다. 거기엔 피라미드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그 증거는 활화산이 피라미드의 우측(동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담이겠죠. 나를 지구 밖으로 보냈단 말입니까? 화성으로요?

감독 물론! 난 학생을 그곳에 보내는 걸 좋아하지. 꽤나 긴장하게 만들거든.

토의

화성에 한때 정말 거주민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접했다. 이전에는 과학 소설에만 관련된 얘기인 줄 알았다. 화성 역사의 실제적인 한 부분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데는 그날 하루가 걸렸다.

UFO 납치 투시

원거리투시자들이 UFO를 포함해 인간의 피랍 경험을 관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트레이너는 여러 번 말했다. 과거 원거리투시자가 시도할 때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랍 사건 대신에 다른 신호를 받았다. 이 신호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상징적으로만 해석될 때가 많았다. 투시자는 무언가를 보곤 했지만 타깃은 아니었다.

수집된 정보는 타깃과 어떤 유사성도 갖지 않았을지 모른다. 같은 타깃을 다른 투시자들이 시도했을 때, 각자가 얻은 결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피랍 사건 타깃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이번 장에 기록된 타깃은 외계인에게 인간이 납치된 사건이다. 목표된 사건은 제이콥스의 책⁹에서 취한 것이다.

트레이너는 투시자에게 특별히 이 타깃을 준 적은 없지만 납치

대신에 엉뚱한 신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외계인들이 내가 이해하기 원하는 상징들을 포함한 신호였다. 그들은 납치 자체가 오해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고 그래서 납치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목적과 의미를 알리는 상징들로 대체시켰다.

물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실제적인 타깃에 관해 나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날짜 1993 9월 30일
장소 훈련사무실
데이터 제4종
타깃좌표 2864/0576

예비 단계는 타깃이 건조한 땅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브라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 갈색과 흰색, 황갈색... 따뜻하군요. 사막 같아요.

감독 3단계 스케치를 하게.

브라운 빌딩이 하나 있고, 울타리와 철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자 트레이너는 그 주변 지역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위치 이동을 하게 했다.

무언가 가두는 장소 같습니다.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종이에 빙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그렸다.

감독 좋아. 4단계 매트릭스 상으로 가게.

브라운 음, 확실히 울타리가 있어요. 평평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일종의 일터 같은 곳이에요. 울타리 안에는 동물들이 있고 사람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백인인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동물들은... 말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거로군요. 작업 환경이 분명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일을 마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군요. 일을 끝내려는 강력한 의지와 치열함이 있어요. 투우 같은데요.

감독 '투우 같다' 를 AOL/S로 기록하게. 해석하지 말고 데이터만 수집하게.

브라운 동물들이 있는 울타리 안에 사람이 있어요.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여기엔 지붕 없는 관람석이 있고 구경꾼도 많아요. 울타리가 있는 원형 지역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군요."

감독 커트니, 휴식을 취하게.

계속.

브라운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외치고 고향지르고 또 웃어대고 있어요.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의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들에게 이젠 토요일의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때 트레이너는 그 자리에서 5천 피트 위로 위치 이동을 하게 했다.

어, 다른데요... 여기에 은빛의 금속성 물체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외계인의 우주선으로 AOL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 탈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는 내게 위치 추적법을 실행하게 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나는 그 위로부터 탈것들의 진원지를 추적해 갔다.

우주선—그것은 아주 빛나는 금속성 비행기 같았다—안에 있는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건방져 보이는군요. 출발점은 한 도시예요.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그 비행기 안의 사람들이 도시인을 해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타깃인 모양인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빌딩이 많고 축축하고 서늘한 날씨군요. 공황이 있어요.

원래 장소에 돌아오니, 동물들은 정말 위협당하고 있군요. 공포에 떠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재미있어 하는군요.

감독 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소.

브라운 마치 가축을 치는 것처럼 동물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요. 이젠 트레이닝 캠프네요. 그들은 동물들이 어떤 일을 하게끔 훈련하고 있습니다.

감독 조금 앞 시간으로 이동해 보게.

브라운 동물들이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군요. 조련사로부터 먹을 것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감독 그만 마치자고. 이것이 타깃일세.

토의

이번 투시에 대해서는 개인적 해석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독자들은 이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지도 모른다. 이런 형태의 투시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발생했다. 첫번째는 UFO 납치를 투시할 때였고, 두 번째는 군의 원거리투시자가 위험한 에너지 장치를 관찰하려고 시도했을 때였다. 이 경우 인간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누군가가 대체 신호를 주는 것 같았다.

이번 투시에서 동물들은 인간을 나타내는 듯하다. 울타리 안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훈련하는 외계인들이다. 관람석의 사람들은 아마 우주의 제3자일 것이다. 비행기는 울타리 안에 있는 조련사와 관계있는 외계인의 비행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안의 존재들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용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타깃은 여기에 서술하는 이런 종류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심벌을 통해 이해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다른 타깃들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몇몇 외계인들은 대체 신호를 만들어 보낼 수 있고, 그들이 원거리투시자의 마음과 경험에 비추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대체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화성인, 현재의 생존자

훈련 도중에 의자에 편히 앉았다. 트레이너는 새로운 타깃이 들어 있는 서류철을 들고 있다. 타깃이 어떤 것일까 추측하고 싶은 유혹이 아직 있지만 가볍게 저항해 본다. 트레이너는 내가 정보를 직접 얻는 데 익숙해짐에 따라 타깃을 추측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인내는 배워지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아침 그는 거대한 포크가 벽에 돌출되어 있는 이상한 박물관 전시물을 투시하게 했다. 그가 때때로 언급하는 메릴랜드 포트미드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 나를 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우스운 생각을 해본다. 그는 탁자 건너편에 마주앉아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죠」

날짜 1993년 10월 1일

장소 훈련사무실
데이터 제4종
타깃좌표 5664/1821

예비 단계는 타깃이 산과 관련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과 녹색이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서늘하군요. 휘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나무 냄새가 납니다. 흐름,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군.

감독 좋아. 커트니, 3단계 스케치를 하게.

브라운 백지에 둥그런 산을 그렸다. 산꼭대기는 벌거숭이지만 저 아래로는 나무들이 있다. 바람이 산의 표면을 치며 때린다. 4단계로 간다. 매트릭스 상에서 이동 중이에요. 음, 사람들이 있군요. 백인들입니다. 지금 '예감'이라는 개념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산이 보이는데 바람이 부는군요. 와! 두려움과 흥분,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느낌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감정이 느껴져요. 비행물체 같은 것이 보이고, 광적인 움직임은 느낄 수 있어요.

감독 곧 위치 이동을 할 테니 준비하게. 산 위 1천 피트 상공에서 무언가 보이는 게 있을 걸세.

브라운 이동한다. 여기에 어떤 일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힘들군요.

감독 그러면,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뭐가 보이냐?

브라운 아까처럼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군요. 흥분했어요. 흐름, 아마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산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웠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해요. 탈것이 있고 열 명 가량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감독 위치 이동을 합시다. 그는 내게 산꼭대기로 가라고 지시한다.

브라운 아주 빠른 원형의 움직임이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군요. 일종의 소용돌이예요.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돌풍 속에서 새가 하강할 때 원을 그리듯이 말입니다. 와! AOL 해봐야겠어요. 외계인의 비행선이 포착됩니다. 광택 나는 금속성에 따듯한 느낌입니다.

감독 기록하고, 6단계 스케치로 옮겨가게.

브라운 지금은 산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 여러 개가 둥그런 모습 이군요. 그 산들은 지금 내가 위치한 산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산의 한쪽 편에는 평평한 지대가 있고, 이 산과 다른 산을 분리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탁 트인 평원이 있고 주위엔 특히 남쪽과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독 다시 위치 이동하게. 그 물체 안에서 무언가 보일 걸세.

브라운 알았어요 이 안은 거울 같아요 빛나는 광택에 빛들도 많고요. 따듯하네요. 무언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웅웅 소리 같은 것도 나고요. 아니! 이 물체가 정말 움직이잖아!

감독 6단계 스케치.

브라운 이 물체가 바로 산 속으로 가고 있어요! 바위들을 통과해서요! 이게 뭐지?!

감독 투시 절차를 따르고, 데이터만 얻어 모두 기록하게. 6단계 매트릭스로 가게.

브라운 알았어요. 이 비행선 안에 존재들이 보여요. 전부 같은 모습은 아니군요 이곳에 벽이 있어요 장치들이예요. 그 존재들의 마음으로부터 뭔가 느껴져요. 무언가 공급하고 있어요. 별건 아니예요. 그들은 임무를 실행하는 중입니다. 이 존재들은 인간과 비슷한데... 기술자들이군요. 모두들 유니폼을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굴이나 구멍 같은 곳 안에 있습니다. 비행선이 중앙에 착륙했어요. 창고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떤 액체를 운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액 같은 게 정말 역겨워 보여요. 생물학적인 목적이 있는, 그들에게는 중요한 액체입니다. 자동차 오일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군요.

난 지금 이곳 주위를 돌아보는 중이에요. 많은 존재들이 일하고 있군요. 남자들은 이것들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자들은 기술적인 영역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보살핌을 받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건강해 보이질 않는군요. 어린아이들은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자들은 거의 공포에 질렸고, 겨우 자신을 지탱하는 정도예요. 조용히 앉아 있지만 매우 불안해 하고 있어요. 아주 두려워하면서요. 다시 남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랄까, 이 문화는 성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감독 커트니, 휴식을 좀 취하지. 시간을 기록하게.

점심식사 후 계속.

브라운 다시 유아원에 있는 여성들에게 와 있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기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말없이 있고 우울하거나 자고 있지 않으면, 즐거워 보이지 않는군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몇몇 젊은 남녀들이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기들이 훨씬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병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문제점을 몰라도 어머니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신체의 기능 부

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 문제예요. 그들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문화나 사회적 유대 관계로부터 뛰쳐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인간이 도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트레이너는 그때 그 문제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몸에는 유전적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젠 점점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이 존재들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화성인이란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 문제를 고칠 수 없어요. 커다란 문제죠. 절망감이 만연하고 있어요.

장비와 자원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진보돼 있지 않아요. 여성들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면서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남자들은 일에 매우 열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고집스럽군요. 여기서는 생존이 중요해요. 생존! 이런, 이 존재들은 절망하고 있군요!

감독 커트니, 그 액체에 대해 더 알아보게.

브라운 화성에서 왔어요. AOL로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서 화성의 느낌이 들 뿐입니다.

감독 그냥 기록하게. 분석하지 말고.

브라운 액체는 흉측하군요. 이상한 맛이 나고 구역질나는데, 이들은 그 액체를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유리병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걸 보관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녹색빛이 도는 검정색입니다.

감독 액체가 생산되는 곳으로 가게.

브라운 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방금 어디론가 빨려들어

갔어요. 어떤 다른 장소로 낚아채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장소는 붉은빛에 모래가 많군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갈까요?

감독 우선 그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 좀더 말해 주고 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브라운 사막이에요. 자라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군요. 불모집니다. 출기도 하고. 이 건물은 벽돌집 같아요. 안은 금속성이나 플라스틱 표면으로 빛나는군요. 생산 공장이에요.

감독 위치 이동을 하게. 잠시 중단. 생산 공장에서 동쪽으로 5킬로미터에 무언가 보일 걸세.

브라운 어? 비행선이 하나 있네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고 회전하고 휘몰아치면서 내려와요. 꼭대기에서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지붕을 통해서요!

감독 다시 건물 안으로 돌아가게. 건물로 가서 그 비행선을 따라가게. 어디로 가는가?

브라운 난 지금 건물 안에 있어요. 흠, 비행선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에 지하실이 많군요. 비행선의 그 존재들은 구조물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요. 건물 밖에는 붉은색과 황갈색이 확실히 많고 화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감독 지하실로 들어가게.

브라운 현대적이긴 하지만 초현대적이지는 않아요. 남자들은 보이는데 여자들은 없군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 작업 환경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비번이군요. 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아래에 살고 있군요. 사실상 하나의 도시예요. 동굴과 터널들이 많고, 곳곳에 기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의 작업 동굴보다는 여기가 훨씬 쾌적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기서 살 수 있었

어요. 이곳을 떠나기 두려워하는군요.

감독 그런데, 왜 떠나고 있나?

브라운 이곳에선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죽어 가는 곳입니다.

감독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보게.

브라운 지금은 남자들만 보입니다. 인간과 유사한 얼굴인데 머리 카락이 없어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인종인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사고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자아와 서로 통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장치를 통제합니다. 그 존재들은 피부색이 밝고, 인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허약해 보이네요.

감독 좋아. 이만 끝내지.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네.

브라운 휴우! 이번엔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었지요? 말해 주세요.

감독 메릴랜드 포트미드에 있는 하수 처리장.

브라운 뭐라구요?

감독 농담일세. 자, 서류철이니 보게. 나는 서류철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낸다. '화성인, 현재의 생존자들'. 긴 침묵이 계속된다.

감독 괜찮겠어?

토의

그날 늦게 트레이너와 화성인에 관해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그는 다른 원거리투시자들과 내가 묘사한 것을 토대로 산의 위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는 뉴멕시코에 있는 산타페 근처 산의 사진을 보라고 했다. 사진을 보았을 때, '이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 여러 투시자의 데이터로 보아 그 위치는 확실한 것 같았다. 투시로부터 얻어진 증거는 그 산이 뉴멕시코의 산타페에서 멀지 않은 국립산림 안에 위치한 산타페볼디임을 암시한다.

지구에 화성인들이 있다. 그러나 당황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암시하는 바를 명확히 생각해야 한다. 이 화성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미루어 보건대 화성인들은 화성의 척박한 지하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표면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그들의 고향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다. 마지막장에서 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에 인간이 어떻게 이웃 화성인들에게 대응해야 할지 설명할 것이다.

화성 문명 절정기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다. 어제 오후, 트레이너는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 만을 투시하게 해서 배를 보았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은 다르다. 그는 제6종 조건 아래 투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감독과 원거리투시자가 중요한 타깃 정보를 미리 알고 투시하는 것이다.

타깃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하므로 내가 궁금해 했던 전성기의 화성 문명을 택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의 사회를 보고 싶었다. (멸망을 초래한 위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할 것이다.)

이번 투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흔히 그렇듯이 투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럴 때 경험 있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

날짜 1993년 9월 2일

장소 훈련사무실

데이터 제6종

타깃좌표 8587/7258

예비 단계는 매마른 땅과 인공 구조물에 관련있는 타깃임을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과 황갈색, 붉은색이 보입니다. 이 주변은 모래가 많고 바람이 부는군요. 기온은 온후하면서 선선하고요. 목소리와 음악, 애깃소리가 들립니다. 또 무언가 문지르는 듯한 시끌시끌한 소리도 들립니다. 케냐 동쪽 해안에 있는 고대 스와힐리의 항구 올드타운 몸바사와 조금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감독 이어서 3단계 스케치를 하게.

브라운 길이 하나 있고 한쪽엔 빌딩이 있습니다. 둥근 구조물 가까이에 한 사람이 서 있군요. 마치 작은 원형 경기장 같아요.

감독 좋아. '원형 경기장 같다' 를 AOL로 기록하고, 4단계로 계속 하게.

브라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주 많아요. 지금은 남자들만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없고 인간보다 커다란 눈에 피부는 밝은 편입니다. 집들이 있군요. 건물들은 벽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의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여요. 살기엔 별로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는 물이 많아요. 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을 갖고 있고, 의사 소통 수단도 초보적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군요.

감독 '아프리카 같다' 고 AOL로 기록하게.

브라운 그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텔레파시 능력을 약간은 갖고 있어요. 아, 여자들과 아이들을 찾아냈어요. 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감독 그들의 문화에 대해 뭐 좀 보이는 게 있나?

브라운 글썄요,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일종의 마을 회의 같은. 남자들을 다시 불게요.

감독 잠시 쉽시다.

30분 후에 계속.

브라운 음, 다시 집들이 보입니다. 한 집에 들어갑니다. 방이 세 개 있고,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요리 기구와 컵들이 보입니다. 이곳엔 한 가족이 살고 있군요 네 사람인데 남녀예요. 일부다처제인 모양입니다.

감독 어떤 형태든 심벌 같은 게 있는지 보게.

브라운 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시간 이동을 경험했어요. 다른 시간으로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채찍 끝에 매달린 것처럼...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감독 분석하지 말고 데이터만 얻게. 뭐가 보이냐?

브라운 한 '표지' 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광택이 나는 하얀 표면, 금속 물질들이 주변에 보이고 회색, 검은색의 연기들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갔던 곳에 비하면 엄청난 과학 기술의 차이군요.

지금 여기엔 다른 생명체들이 보입니다. 더 왜소하고 작아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 봅니다. 와, 굉장한 의욕들이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른 존재들은 비행선, 우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지를 단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이들 중 몇 명은 비행사예요. 지금은 화성인이 보이지 않는데요.

감독 화성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게.

브라운 바로 그거예요. 화성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집도 비어 있어요. 난 아직 화성에 있지만, 작고 진보한 이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유명한 도시인 셈이예요.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상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안에는 과학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현대적이군요.

감독 그 존재들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보게.

브라운 그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첫단계로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마치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 좋아. 시간을 따라 6단계로 들어갑시다. 화성 문명의 전성기를 시간 좌표상에 표시해 보게. 잠시 중단. 그럼 이제 다른 종족들이 도착한 시간을 표시하게.

기록지에 화성인의 절정기를 시간 좌표의 왼쪽에, 그리고 다른 종족의 도착 시기를 중간쯤으로 표기했다. 작은 존재들의 유니폼에 있는 표지를 그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발렌타인데이 하트 중앙에 딱 리를 튼 뱀 한 마리가 있는 모양이었다. 하트의 테두리는 황금색이고, 안쪽의 배경은 흰색, 뱀의 머리는 붉은색이다.

감독 좋아, 이제 6단계 매트릭스로 이동하게.

브라운 두 종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화성인들은 이들을 우주인이 아니라 화성의 다른 부족 중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작은 존재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공포스럽고 절망적이었어요. 이들은 우유처럼 희군요. 화성인들은 그들을 신처럼 생각했어

요. 붉은 액체가 보이네요. 작은 존재들은 방법은 모르지만 이 액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화성인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괴상하군요. 이들은 화성인의 몸에 육체적인 변화를 가하기 위해 잠시 동안 화성인들을 저장 탱크 안에 넣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회색인 같군요.

감독 좋아, 커트니. 끝내지. 마친 시간을 기록하게.

토의

심벌을 찾으라는 감독의 지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 있는 회색인의 유니폼의 표지로 나를 인도했다. 그 이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감각은 신체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갑작스런 이동 후에 갑작스런 멈춤 그리고 순간적인 어지러움 그런 느낌이 든다.

화성의 전성기는 기술 문명에서 고대 이집트에 전줄 만하다. 그들은 혹독한 조건에서 살았지만, 가족을 부양했고 도시에 살았으며 지역공동 사회에 참여했다. 그 사회에서 남녀는 다른 기능을 수행했다.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다.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화적 측면이 오늘날에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화성은 몇 번의 파국을 겪었다. 수많은 화성인들이 죽었으나 몇몇은 구조되었다. 화성인들이 이 구조라는 용어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자들은 지금 회색인으로 알려진 존재들이다. 그들은 화성 문명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다. 엄청난 속도로 그들은 화성인들을 '저장했다.' 미루어 보건대 이것만이 화성인을 구하는 길이었다. 전문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구조의 요점은 화

성인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수백만 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 이번 투시의 결과 트 레이너와 나는 화성인들이 어떻게 '환원'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구에 도달했는지 궁금해졌다. 화성인들이 보다 무거운 중력과 다른 조건들을 가진 지구에서 살기 위해 유전적으로 변형해 온 것 같다는 데이터를 모든 원거리투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인 변형은 오랜 보존 기간을 거쳐 최근에야 시작됐고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화성인의 과학 기술 진보에 대해 궁금했다. 회색인 과 비교해 보면 많이 뒤떨어지긴 하지만, 오늘날의 화성인은 진보 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주선으로 시간과 은 하 크기만큼이나 먼 거리를 가로지를 수 있는 회색인의 과학 기술을 안다. 하지만 화성인은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위기가 오 기 전 시간의 화성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들의 우주선은 진보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추진 기술을 이용하고, 물질의 상태를 변 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단단한 물체도 통과할 수 있다.

이 투시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초적인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1. 화성인은 회색인에 의하여 멸망으로부터 구출되었다.
2. 화성인은 완벽하지 않은 유전 변형을 지닌 채 현대의 시간으로 보내졌고 결과적으로 많은 자손들이 죽음을 맞아야 했다.
3. 화성인은 현재 인류보다 약 150년 앞서는 수준의 과학 기술을 이루었다.
4. 현대의 화성인에게 지구 외의 다른 피난처는 없다.

이 시점에서 화성인의 기술이 조금 앞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

각했다. 마치 누군가 지구인과 화성인이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최후의 순간에 화성인들을 구조하기 위해 회색인들이 왔다는 것을 회상해 보자.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면, 아마 지구의 파국적인 위기를 내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게 할 것이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화성인의 과학 기술일지도 모른다.

부분공간의 조력자

같은날 오후 1시 30분. 트레이너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는 맛있으면서도 싸고, 조미료를 넣지 않는 중국음식점에 갔다. 화성인에 대한 투시로 인한 긴장을 푼다는 의미에서 색다른 점심식사는 도움이 되었다.

외계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계인들이 단순히 지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활동 뒤에 어떤 절실한 목적이 있으며, 적어도 어떤 화성인은 꽤 오랫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화성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혹독한 환경 조건과 지구인의 적대감을 피해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았다. 화성인들은 상황을 호전시킬 자원이 없었고, 우리도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외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이번 장은 트레이너가 타깃을 선택하고 나는 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투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날짜 1993년 9월 2일

장소 훈련사무실

데이터 제4종

타깃좌표 8976/6643

예비 단계는 타깃이 복잡한 인공 구조물과 연관되었음을 암시했다.

브라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입니다. 파란색, 빨강색, 대부분 흰색이고 검정색과 녹색이 있군요. 마치 페인트 같은 느낌이에요.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면서 빛납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여기는 따뜻하고 쾌적하군요. 호흡, 진보된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긴 처음인 것 같은데 좀 헛갈리는군요. 이곳에 있지 말아야 할 것도 같고 있어야 할 것도 같은...

감독 3단계 스케치로 가게.

브라운 알았어요, 가만! 검고 네모난 것이 보이는군요. 꼭대기에 움직임이 있고 커다란 물체가 많은데요. 이런! 도시 같아요.

감독 우선 AOL로 '도시' 라 기록하고, 4단계에서 계속하게.

브라운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빌딩들이 곳곳에 있군요.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목표가 있다고나 할까.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가 흥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감독 분석하지 말고, 매트릭스에서 이동해 데이터를 기록하게.

브라운 그렇지만 이 타깃이 내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걸요. 전에는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비물질적인

존재가 여기에 있는 느낌이에요.

감독 알았네. 우선 잠깐 쉬었다 하지. 시간을 기록하게.

5분 후.

브라운 지금 다시 빌딩 앞에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이 여기 있군요. 그들 사이에서 목적 의식을 탐지하는 중이에요.

감독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은가?

브라운 우선은 빌딩으로 가야 할 것 같군요.

감독 좋아, 빌딩에서 시작하지. 계속 매트릭스에서 이동하게.

브라운 빌딩 앞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구조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 같은... 빌딩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감독 그러면 안으로 이동하지. 계속 이동하면서 모두 기록하게.

브라운 와! 정말 여기에 어떤 존재들이 있군요. 인간은 아니에요. 투명한데요. 여기가 어디지?

감독 매트릭스에 머무르고 분석하지 말게. 데이터를 빨리 기록하면서 계속하게.

브라운 방 안에 있습니다. 벽이 있고 벽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군요. 흰빛이에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와본 느낌인데.

어? 나를 환영하고 있군요. 이 존재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긴장되는데요.

감독 투시 절차에 따르게, 계속 매트릭스에 머무르는 것 잊지 말고.

브라운 출입구가 있군요. 이 존재들은 이곳에 살고 여기서 일합니다. 방 안에는 탁자가 하나 있어요.

감독 빌딩 밖은 어떤가? 뭐가 보이지?

브라운 도시요. 거리가 있는데, 아주 많아요. 밖은 시끄럽군요.
감독 방으로 돌아가 보게. 그 존재들이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
나?

브라운 이들은 흥분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들 중 하나가 내 궁금증을 풀어주길 원하는군요. 그들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들이 영혼과
일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진보된 존재들이에요. 정말 흥분하고 있
어요. 원거리투시자가 방문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모양이에요.

감독 투시 절차를 따르게. 그들이 하는 일은 뭐가?

브라운 이곳 주위엔 불빛이 많군요. 물리적인 도구로 일하지 않
아요. 진화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계속 나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하네요.

감독 좋아, 잠시 휴식을 취하지.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이게. 같
이 밖에 나가서 좀 걸어도 좋고.

20분 후.

브라운 그들은 과거에는 천사로 불렸던 것 같은데 천사는 아니에
요. 복도와 다른 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른 존재들이
있군요. 그런데 인간 에테르인지 영적 존재도 있어요.

감독 미래에 관해선 무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브라운 그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
다른 인종과 종족들도 이 일에 관련될 거라고 말하네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닥쳐올 거예요.
이 시기에 과학 기술이 서서히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
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겠지만 원시적은 아니지요.

감독 화성인에 대해 물어보게.

브라운 인간들이 화성인들의 거처—뉴멕시코 동굴 부근—근방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군요. 화성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우리 인간이 도와야 돼요.

화성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아주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화성인들은 밖으로 나오길 원치 않고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공격성을 두려워합니다. 화성인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문명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주 직접적으로 내게 말하는군요. 화성인들이 공식적인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감독 대화는 어디서 하게 되나?

브라운 집이요. 사람의 집에서요. 인간은 화성인들이 동굴을 떠날 준비가 될 때야 그 동굴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네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나갈 필요가 있어요. 화성인들이 우리에게 해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군요.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감독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브라운 더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원거리투사는 그 일부일 뿐이에요.

감독 우선 이 정도로 해두지. 떠나기 전에 고맙다고 하게. 마치자고. 이제 타깃을 봐도 좋네. 그는 탁자 위로 커다란 봉투를 밀어준다. 나는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낸다. '미드웨이어' 라고 쓰여 있다.

브라운 도대체 미드웨이어가 누구예요?

감독 그 얘기를 하려면 오래 걸릴 걸세. 배경부터 살펴볼까….

토의

저녁식사 내내 트레이너는 미드웨어와 자신의 교류에 대한 배경을 말해 주었다. 초창기 원거리투시 연구에서 투시팀의 몇몇 군인들이 영적으로 지향한 계시서 『우란티아』에서 유래한 특정한 비물질적인 타깃을 조사하기 원했다. 그 팀은 미드웨어(중간자)라 불리는 한 그룹의 영적 존재들을 투시했다. 『우란티아』에 따르면 그들의 신체 밀도는 인간의 신체 밀도와 비슷하고 그들의 몸은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차원에 있지만, 전혀 물질적인 형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 미드웨어들은 인간의 영적인 진화를 돕기 위해 지구에 왔다.

미드웨어가 존재한다는 발견으로 SRV팀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한편 그들이 존재한다는 정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격납고에 있는 탄두 숫자를 더 염려하는 장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미드웨어들은 영구적으로 지구에 뿌리를 둔 것이 명백하므로 외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도 아니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들은 인간 환경 안에 사는 영적 존재들이다.

미드웨어들은 여기서 일하지만 그들의 정부 조직은 이 행성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정황으로 보아 그들은 영적 존재 중 하나이다. 미드웨어들은 SRV팀처럼 한 조를 이루어 함께 일한다. 그러나 군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진화적인 잠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간의 정신 측면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인간을 돕는 동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신과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이들에게 중요한 어떤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

트레이너는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영적 존재들과 일하는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그들과 나를 연결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또는 내게 어떤 종류의 정보를 줄지도 몰랐다.

화성인들이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인간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드웨이어는 우리가 화성인에게 위기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주었고, 이것은 어찌 보면 모순 같기도 했다. SRV를 훈련받기 시작한 지 여러 주 후에, 화성인이 인간과 직접 일하려는 희망을 갖도록 돕는 길은 그들이 인간을 피해 숨어 있는 동굴의 지형적인 위치를 포함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움직임과 활동을 추적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은 인간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화성인이 우리와의 교류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화성인과 교류하길 원하게 하는 것인데, 트레이너와 나는 후자가 더 어려운 문제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인간의 폐쇄적인 측면에 대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다면 우리가 얻은 이만큼의 성과도 불가능했으리라는 사실을 둘 다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거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주제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밟아나가는 것뿐이다.

화성 탐사선의 실종

1993년 8월 21일, NASA의 우주 탐사선이 화성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탐사선과 지상 통제실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화성 탐사선은 위성 사진에 나타났던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얼굴 형상 같기도 한 지형과 같이 화성 표면의 특이 현상을 포함하는 화성의 정밀 사진을 지구로 송신할 계획이었다. 그전까지도 잘 작동하던 이 탐사 위성의 갑작스런 고장에 대해 NASA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뉴욕 타임스』는 NASA의 몇몇 사람들이 왜 화성에서만 이러한 징크스가 계속 일어나는지 의아해 한다고 보도했다. 화성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하나로는 이 사건 전에 구소련 탐사선이 화성의 한 위성에 접근하던 중 유사한 상황에서 고장났다는 것이다. NASA에서는 반농담조로 화성에서만 계속 실패하는 것이 외계인의 장난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몇 달

간의 조사를 거쳐 NASA는 탐사선이 어떤 내부 연료 장치의 문제로 폭발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도 이 발표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비록 추측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여기서는 화성 탐사선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투시 도중이나 그 전에 타깃에 관해 어떤 사전 정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게다가 원거리에서 감독된 투시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즉 나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연구실에 앉아 있고 감독은 자신의 집에 있었다. 감독은 시청각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감독과 투시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스피커폰을 사용했으며, 중간 결과들(스케치와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포함하여)과 투시의 최종 결과들은 감독에게 팩스로 보내졌다. 모든 제4종 데이터에서처럼 투시자는 투시가 완결되었을 때야 타깃 정보를 받았다.

날짜 1994년 2월 7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6421/9054

1단계 데이터는, 내가 단단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에 접하고 있으며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브라운 여긴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호음, 두 개의 물체가 보이는군요. 두 물체는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는 작고 견고해요.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군요. 다른 하나는 크고 더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모양을

한 물체예요.

이상하네. 물체의 어느 쪽 아래도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바닥을 볼 수 없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거기 있어요.

감독 6단계로 가서 스케치를 시작하게. 종이에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하게.

브라운 작은 물체는 옆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지금 거꾸로 따라가고 있어요 어?

감독 무슨 일인가? 절차에 따르면서 매트릭스로 가게.

브라운 우주선이에요. 작은 것이 외계인의 우주선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데요. 우주선에서 작은 물체를 쏘아 불규칙한 모양의 큰 물체를 맞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감독 분석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게. 뭐가 보이냐?

브라운 글썄요, 지금 비행선 안으로 가는 중이에요. 흠, 이곳에 존재들이 있군요. 대머리예요. 전부 그런 것 같은데요. 눈이 있고, 지금 한 얼굴을 스케치하고 있어요.

비행선 전체가 커다란 금속 구조물 같군요. 난 방에 있어요. 이 방엔 많은 물건들이, 기계들이 있네요. 의자, 탁자, 몇몇 존재들, 모니터와 키보드 같은 것들요.

감독 좋아, 우선 휴식을 취하지. 시간을 기록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팩스로 보낸 후에 전화하게. 이따가 연락하세요.

브라운 그러죠. 금방 보낼게요.

계속.

감독 커트니, 6단계 스케치로 다시 가게. 그 비행선이 돌아가는 것을 추적했으면 좋겠군.

브라운 알았어요. 지금 하는 중인데. 아, 됐어요. 출발지예요. 지표

면에 있는 구멍... 동굴이군요. 금속으로 된 우주선이 동굴 안에 있고 존재들이 타고 내리고 있어요.

감독 표면으로 가게. 뭐가 보이냐?

브라운 지금 올라가요. 붉은색과 모래투성이의 거친 지형이군요. 화성 같아요.

감독 지금 분석하고 있군. AOL로 적어두고 매트릭스 상에서 이동하게. 데이터만! 동굴로 돌아가게.

브라운 음, 이 동굴 안에는 존재들이 있군요. 아주 많아요. 회색인 과 비슷한데... 일하고 있어요.

감독 커트니, 그 존재 중 하나를 택해서 마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가 좀 보이냐?

브라운 네. 한 사람을 택했어요. 와!

감독 감성적 반응 AI로 적어두고 계속하지. 그들에 관해 알아보게. 잠들어 있나?

브라운 아! 이제 확실히 알겠군요. 이 회색인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게는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런 느낌이에요. 우리처럼 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의 수면과 견줄 만한 것은 그들의 의식이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때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의식을 다시 따라갈까요?

감독 계속하게. 매트릭스에 머물면서.

브라운 어휴! 아주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에요. 나 빠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감독 그 존재의 탄생 시점으로 시간을 따라가게. 어디서 왔는가?

브라운 찾았어요. 투명한 튜브에 아기가 들어 있어요. 지금 난 다른 위치에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실 같은데요.

감독 밖으로 가게. 뭐가 보이냐?

브라운 공기가 없는 세계예요. 별들과 운석 구멍들, 바위들이 보여요. 인상은 '달 같다'고 AOL로 기록할게요. 여기 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군요. 수많은 별들... 이렇게 밝을 수가!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군. 둘러보니 음... 하늘에 행성이 하나 있군요. 어? 지구 같은데. 구름과 물도 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파랗군요. 그럼, '지구'로 AOL할게요.

감독 튜브 안에 들어 있는 아기한테로 돌아가게. 튜브 안에 뭐가 있냐?

브라운 그냥 아기뿐이에요. 커다란 태아 같은 그리고 걸쭉한 액체가 있군요. 액체는 녹색이에요.

감독 액체를 맛보게. 어떤가?

브라운 옥! 지독하네요. 기름 같아요.

감독 좋아, 동굴의 존재들이 있는 시간으로 가게. 일하는 환경과 그 존재의 인성에 관해 좀더 알아보게.

브라운 이 회색인은, 회색으로 보이니까 회색인이라 부를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군요.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강간당한 느낌조차 드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이 없군요. 이 존재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긴 뭔가 잘못됐어요.

감독 그 존재를 스케치하게.

브라운 알았어요. 회고 가죽 같은 피부인데... 가냘픈 모습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안됐어요.

감독 좋아, 이제 마쳐야겠군. 자네가 그 존재에게 감정 이입을 하기 시작했으니 말일세. 감정 이입은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네. 마친 시간을 적게.

브라운 이번 투시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데요. 타깃이 뭐였는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뭐예요?

감독 '1993년 화성 탐사선 실종 사건'이었네.

브라운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 아니, 탐사선이었어.

브라운 그래서 불규칙적인 형태였군요! 거대한 탄환에 맞다니?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감독 잘 모르겠네, 하지만 데이터를 믿어야지. 이번은 초보적인 투시였네. 상황으로 봐서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는 걸 그들이 원치 않은 것 같은데... 레이저와 다른 것도 많은데 탐사선을 파괴하려고 대포 같은 장치를 사용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도 구 소련 탐사선도 알 수 없는 이유들로 파괴됐고, 고장난 위성으로부터 온 마지막 정보가 어떤 물체나 에너지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위성의 에너지 방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게. 내 추측으로는 외계인들이 데이터가 누출될 가능성을 없애려 했고, 그래서 지구인들이 운석에 의해 탐사선이 파괴됐다고 믿게끔 물리적으로 파괴했을 걸세.

브라운 아직도 얼떨떨해요. 믿기 어렵지만, 전부 들어맞는군요. 이 모든 사실이 확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투시 내용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감독 훌륭한 투시였네.

브라운 고마워요. 결과를 송신할 테니 이만 전화를 끊지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얘기하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감독 좋은 생각일세. 팩스를 기다리겠네. 나중에 얘기하지. 잘 있게.

토의

이번 투시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었고,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용했다. 화성 탐사선은 가까운 외계인의 우주선에서 발사된 무언가에 의해 파괴되었다. 우주선은 지하의 기지에서 왔다(혹은 돌아갔다). 기지에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고 모두들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어떤 존재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작은 회색인 같았다. 그들은 노동자였다. 나는 그들 중 한 존재의 출생 시기로 돌아가 '추적했고' 실험실에서 '탄생' 했다는 것을 알았다.

노동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존재 자신은 반드시 자기가 학대당한다거나 노예가 됐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잠자는 시기에(회색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존재들의 의식은 공허하고 우주 공간 같은 진공 상태에 거주한다. 꿈은 아니었다. 그들이 태어난 실험실은 지구의 달로 알려진 별의 지하 어떤 기지에 있다.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양물은 자동차 기름 정도의 농도를 지닌 녹색 액체이다.

이번 투시는 많은 질문을 떠오르게 한다. 이제 우리는 NASA의 화성 탐사선에 발생한 일에 대해 알게 됐다. 그러나 외계인들이 인공위성에 의해 탐지되거나 촬영되기 원치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화성의 기지에 연루된 회색인들이 어느 곳에서 회색인들과 일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회색인들은 노동자인 것 같고 인간을 닮은 다른 존재들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 불행히도, 통제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내지는 못했다.

은하연맹

피랍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하는 UFO 문헌은 '은하연맹'으로 불리는 외계인의 기구에 대해 언급할 때가 많다. 그것은 UN과 비슷하면서도 은하 차원에서의 조직으로 추정된다. 이번 원거리투시는 그런 기구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대해 알아내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투시 결과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어서 개론적인 얘기는 많겠다. 이것은 제4종 데이터로서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은하연맹을 투시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날짜 1994년 2월 9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

타깃좌표 3114/0029

예비 단계들은 타깃이 인공적인 구조물과 움직임 그리고 고에너지와 관련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브라운 아주 엄청난 에너지장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신호는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아주 밝은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공기 같고 부드러운 포근한 느낌이고,, 뜨겁고 서늘한 기온에 에너지가 방사되고 있어요.

감독 좋아. 3단계 스케치로 이동하게.

브라운 밝은빛—노랑, 파랑, 하양—으로 둘러싸인, 가운데가 단단하고 둥근 것을 그리는 중입니다. 빛 주위에는 솜털 같은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건 금속성이거나 금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가 회오리바람이라는 AOL을 주는데요. 가운데 단단한 물체 주위가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에너지의 소용돌이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감독 좋아, 회오리바람으로 AOL하고 4단계에서 계속하게.

브라운 다시, 빛이 아주 많아요. 뭔가 둥글고 원형인 것이 있군요. 의식도 탐지되고 있어요. 어떤 영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감독 매트릭스에 전부 기록하고 나서 좀 쉬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팩스로 보내고 전화하게.

브라운 알았어요. 조금 후에 전화하지요.

계속.

감독 커트니, 단단한 물체의 표면으로 가서 4단계 매트릭스로 계속하게.

브라운 지금 하는 중이에요... 와! 이걸 시로 기록해야겠어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퍼져 있어요.

감독 그 느낌이 사라지게 하고 계속하게.

브라운 파랑고 공기처럼 밝은빛이 있어요. 에너지도 많고. 난 지금 표면 위에 있어요. 흐름, 어떤 장소인데. 둥근 물체는 행성일지 모르겠어요. 여긴 회미하고 안개가 자욱해요. 빛은 거의 위쪽에서 비추고 있고요. 표면 위는 조금 춥군요. 공기 중에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물체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좀 가까이 가볼게요... 지금 단단한 금속 옆에 와 있어요. 빌딩이나 구조물 같은 거군요. 이 구조물은 어떤 존재들을 위한 거예요. 통로가 보이는데 문인가 봐요. 들어갈까요?

감독 그전에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조금 뒤쪽으로 이동해 보게.

브라운 그러는 중인데... 정말 굉장히 크군요. 타워링 같다는 게 적절하겠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거대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군요. 도시 같은 다른 구조물은 가까이 안 보입니다.

감독 좋아. 지금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브라운 다시 그 통로에 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아, 이곳에 존재들이 있군요. 아주 많은데요. 여긴 좀 피상하군요. 이 존재들은 모두 대머리예요.

감독 투시 절차에 따르면 AOL에 주의하게. 매트릭스에 기록하고.

브라운 이 존재들은 모두 잠옷 같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회거나 회색빛을 띤 하얀 얼굴이에요. 중요한 장소 같아요.

감독 그중 한 얼굴을 스케치하게.

브라운 하는 중이에요... 인간과 비슷하군요. 이곳은 불교 사원을 연상시키는데요.

감독 해당란에 '불교 사원 같다' 라고 쓰게.

브라운 이들은 텔레파시와 언어를 사용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회의는 중앙 조직으로 구성되었어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듯한데, 정치적인 문제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성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일을 원했군요. 모두들 원하는 일이라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주 경쟁이 심해요. 지시하는 의장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다른 이들은 그를 지지하고요. 그는 일종의 대통령이나 위원장, 아니면 국무총리 같아요. 어?

감독 무슨 일인가?

브라운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는 모양인데요.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착해서 기쁘다고 말하는군요. 지금 회의장에 있어요. 이 회의에 인간 대표가 지금 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의장에게 안내되지 않는군요. 그가 내 얼굴을 뚫히 바라보고 있군요. 푸른빛이 감도는 흰색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체격이 좋아 보이네요.

감독 커트니, 자네 혼자서 해보게. 투시 절차에 따르면서 모두 기록하고.

브라운 그에게서 진지하면서도 유머 감각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군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부처 같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감독 AOL란에 기입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게.

브라운 자기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네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어찌죠?

감독 들어가게. '인도'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

지 보게.

브라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우주에 왔어요. 은하수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하계를 4분면으로 가르는 점선이 보이는군요.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군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주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웬지 저항하게 되는데요.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데 왜 우리를 필요로 할까...

그 지도자가 내 저항을 느끼고 한 행성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군요. 아! 지구란 걸 알겠어요. 미래에 인간들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난 그저 그 자체를 말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구인이 현재로서는 폭력적이고 다루기 힘들다는 느낌은 확실해요. 그들은 향후의 통합을 위해 더 발전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지구 밖으로 뺄어나가기 전에 어떤 변화를 겪을 필요가 있군요.

감독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어떤 실질적인 제안이 있는지 물어보게.

브라운 이 책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다른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할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많은 종족과 대표, 그룹들...

감독 원거리투시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누굴 만나야 할지 물어보게.

브라운 화성인뿐입니다. 흐름, 가까운 미래엔 우선 화성인들로 한정된답니다.

감독 지금 모르는 것 중에 알아야 할 새로운 정보가 있는가 물어보게.

브라운 이 자는 참을성이 대단하군요. 내게는 벅차다는 것을 알

아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군요. 분명히 행성 전체에 재난이 닥칠 거예요. 많은 재난이라고 해야겠지요. 정치적인 혼란과 격동, 현재 정치 질서의 난동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새롭게 닥친 현실에 우린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극복하려면 최우선으로 의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지금 당신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그가 당신의 위치를 알아내어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여기 다시 와야 해요. 우리가 최초의 인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의식'이 여기까지 오기로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또 우리는 구조자가 아니라 최초의 대표일 뿐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표의 의무가 있다는군요. 우리를 추켜세우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잘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당신의 유머 감각을 좋아하는군요. 앞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책에 집중해야 해요. 이 책은 앞으로 그들이 이용할 겁니다.

감독 고맙다고 하게. 이제 그만해야겠군.

브라운 말했어요. 중단해야 할 때라는 걸 벌써 알고 있군요.

감독 커트니, 마친 시간을 기록하게.

브라운 한참 후에. 이제 타깃을 말해 주세요.

감독 약간 초조하게 웃으면서. '연맹' 일세.

브라운 그랬군요.

토의

이번 내용은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로부터 깊은 철학적 차원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해석하는 데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은하에는 정부 기구가 있다. 나는 권력 체계가 어떤지, 중앙 집권적인지 혹은 이 기구에 얼마나 많은 종족과 문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모른다. 게다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이나 문명이 있는지, 연맹으로부터 거절당한 문명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구인이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그 의회장에 처음 들어간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한 문명의 일원이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 기구를 찾는 것이 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중 하나일지 모른다. 감독과 내가 우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한다는 사실이 꺼림칙하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방문으로 우리가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된 셈이다.

연맹의 구성원들은 아주 진보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나 부분공간의 측면에서 완전한 자아를 이루었다. 더욱이 연맹의 구성원들은 인간이 은하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대해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투시 중에 의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나의 의식이 회의실을 찾아 들어갈 만큼 충분히 진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측정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식의 성장은 그렇게 먼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의식을 널리 성장시키는 일은 필수적이고 긴급하다. 나아가 인간들은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실재를 분리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의식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이에 관해 근시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성장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사회이며, 우주의 문화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은하 문명의 반류(伴流)로 남아 있을 것 같다.

UFO 피랍 문헌은 외계인과 인간이 교류하며 미래에 일어날 지구의 재난에 대해 예기한 보고들로 채워져 있다. 재난은 보통 생태학적인 원인이나 핵무기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인데, 잦은 경고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번 투시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외계인으로부터 처음 받았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인간이 우주로 향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투시를 마쳤을 때 감독과 나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며 이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일차적으로 동의했다.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 둘 다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행접시를 조종하는 외계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낸다는 생각은 이제는 너무 편협하게 보였다.

회색인의 마음

우리는 회색인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을 탐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회색인의 마음을 투시해야 했다. 감독된 투시(제4종)를 하기 전에 우선 독자적으로 회색인들의 집체 자아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제4종 데이터에서는 투시가 끝날 때까지 투시자에게 타깃이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타깃은 우리가 동의했던 긴 목록에서 무작위로 뽑거나 내가 전혀 모르는 타깃을 감독이 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1종 데이터는 타깃을 미리 알고 혼자서 하는 경우다. 이때는 SRV 기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타깃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번 장에서는 두 번의 투시 과정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회색인/집체 의식'을 타깃으로 하여 혼자서 투시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거의 동일한 타깃을 감독하에 한 것이다. 단독 투시 내용은 내면적인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다.

날짜 1993년 11월 27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1종

타깃좌표 7119/5108

15분 간의 예비 단계는 움직임과 에너지의 느낌을 주었다.

회색과 흰색이 보이는데 광택이 나는 강철 같은 표면임을 알 수 있다. 꽤 덥고 떠들썩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규모로 보아서는 아주 넓고 특 트여 있는 느낌이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적인 혹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느낌이다. 어쨌든... 끝없이 계속된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으며 한계가 있지는 않다.

또 움직임이 탐지된다. 어떤 물체나 에너지가 중앙과 바깥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무언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포착된다. 좁은 의미에서 사랑과 보살핌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마치 보초자랄까, 어머니랄까, 아니면 아주 귀중한 무엇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정, 무한한 자유의 느낌을 지닌 크기가 없는 가정이다.

계속해서 또 안전에 대한 염려가 느껴진다. 여기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곳에는 강한 두려움이 있고 질식할 것 같다. 우주선, 고도로 진보된 우주선들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두려움과 다른 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이 다시 느껴진다.

회색인들이 꿈쩍 못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아기가 산도

(産道)에 끼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데 두려움은 이런 상황과 관계 있다.

하지만 의아스럽게도 고요함이 이러한 공포의 감정을 감싸고 있다.

토의

회색인들의 집체 의식은 보호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다. 동시에 무엇인가 간혀 있다는 그런 공포의 감정이 양존한다. 마치 회색인들이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탈출하지 못한,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과 같은 것이다. 두려움을 에워싸고 있는 고요함은 어떻게든 집단적인 지능—신체적인 생존을 가능케 하는—을 안정시키고 일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과 보호의 느낌은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거의 압도적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슬픔이랄까, 연민을 느꼈다.

투시를 한 지 두 달 반 후에, 감독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타깃을 결정했다. 타깃의 뉘앙스를 바꾸었고 그럼으로써 아이디어에 다른 접근을 하도록 북돋웠다. 스피커폰을 연결시킨 후, 우리는 보통 때처럼—새로 들은 조크부터 이 책의 출판사를 고르는 일들과 같은—잡담을 하고 나서 시작했다.

날짜 1994년 2월 11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4384/8296

예비 단계들은 액체와 움직임의 느낌을 나타냈다.

브라운 터키옥 같은 색깔과 파란색이 보입니다. 액체도 많고요. 또 바위 같고 매끄러운 질감이에요. 온화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짠맛과 비린내가 나는군요. 뭘지는 모르지만 광활하고 아주 깊게 느껴져요. 강력한 에너지도요.

감독 3단계.

브라운 지금 그리는 중인데... 종이에 수평선만 그렸어요. '물고기와 바다'로 AOL됩니다.

감독 AOL한 것을 적게. 4단계로.

브라운 액체가 아주 많이 있군요. 아주 많이. 이 액체는 생활 환경이에요. 출산하는 장소 같아요 이곳엔 생명체들이 있어요. 유기체 말예요. 여긴 보호 장소예요.

그 액체 아래 방 하나가 감지됩니다. 지금 그곳, 방에 와 있어요. 실험실 같군요. 우선 그걸 AOL로 적을게요.

음, 이 방엔 회색인이 한 명 있군요.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어쩐지 남성인 것 같군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독 자네의 무의식에 맡기게.

브라운 그러죠. 이동 중인데... 와!

감독 투시 절차에 계속 따르고 매트릭스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뭐가 보이냐? 기록하게.

브라운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깊은 공허함... 그러면서도 그 '마음' 안에 거대한 자아, 그게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한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는군요. 이 회색인은 할 일이 있어요. 노동잔데 상당히 바쁘군요. 인간처럼 표면적인 감정은 별로 느

까지 않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몬로 연구소의 '포커스 15' 같아요.

감독 그 존재보다 우월한 다른 존재가 혹 느껴지지 않나?

브라운 그 마음 자체가 우월한 존재군요. 어떤 집체 자아 같은 건데, 그런 집체 자아가 회색인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어느 개인이 우월한 게 아니에요. 회색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예요.

감독 목적 같은 것이 있나?

브라운 생존이 일차적이고 그 다음이 진화군요. 그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인 유기체인데,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감독 6단계로 가게. 시간을 기록해 두게. 자네가 지금 이 존재와 함께 있는 시점을 표시하게나. 이제 이번 투시의 시작시간을 위치 한 후 중요한 사건의 시점을 표시해 두게. 6단계 매트릭스로 가서 계속하게.

브라운 지금 하는 중이에요... 잠시 후. 지금 매트릭스 내에 있어요. 지금 큰 회색인 집단이 하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뭔가 강력한 게 전해져요. 그들이 육체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절망적인 필요예요. 이건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해요. 마음... 유기체가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긴급한 거예요. 마음이 감혀 있어요.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집단 안에서 공포가 느껴지는데, 우리 식이 아니고 회색인의 의미에서요.

회색인들은 집단적인 탈출을 위해 인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들과도 협력하고 있군요.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확실히 공포감이 있어요.

감독 그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은 어떤 걸까?

브라운 물리적인 행성을 갖게 될 겁니다. 지구는 아니고 그들은 행성을 변형시키고 어느 곳이든지 여행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을 지구에서 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엔 우주가 너무 넓죠.

감독 연맹과의 관계는 어떤가?

브라운 회색인은 연맹의 좋은 일원들이예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우주비행선 제작에 힘쓰고 있어요. 회색인은 연맹의 다른 종족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군요.

감독 인간이 회색인의 진화를 도울 수 있을까?

브라운 기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유전적인 도움은 줄 수 있고 또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회색인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감독 회색인들은 '여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브라운 그들에겐 인간이 생각하는 '여가'가 없어요. 회색인에겐 모든 시간의 연속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반영하지요. 회색인은 다른 걸 해요.

감독 인간의 관점에서 수명은 얼마나 되나?

브라운 회색인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육체는 옷이나 껍질로 생각하고,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니예요.

감독 보통 회색인 육체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브라운 인간의 수명보다는 길지만 때에 따라 달라요. 지구 시간으로 평균 200년은 될 거예요.

감독 그들의 이상적인 환경에 대해 알아보게.

브라운 회색인의 이상적인 환경엔 여러 면이 있어요. 물리적인 행성은 지금도 얻을 수 있으니 그것만도 아니고, 이상적인 환경은 진화된 새로운 개개인의 육체예요. 회색인들은 새로운 탄생 과정

에 있어요.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떠나서 하나로 연결된 개인으로 생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미있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어요. 아니면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번영하는지 놀라워한다고나 할까. 두려워하기도 해요.

감독 회색인과 인간 대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시간에 집중해 보게.

브라운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긴 한데, 인식과 참여도에서 그들만 큼은 안 되는군요.

감독 어떤 방법을 통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나? 장소는 어디고 필요한 조건은 뭐가?

브라운 회색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해요.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군요. 인간과 교류하는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통제력이나 권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아는군요.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해요. 곤경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들을 도울 좋은 생각이 있는지 방금 묻는군요. 뭐라고 얘기 할까요?

감독 우리가 노력할 거라고 말하게.

브라운 그러죠, 방금 얘기했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그들 방식으로도.

감독 그들을 돕는 데 화성인도 관여하는지 물어보게.

브라운 회색인들은 화성인과의 접촉하고 있어요. 화성인들한테서는 별 도움을 기대할 수 없군요. 화성인들은 자기들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시간과 자원적 여유가 거의 없어요.

방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회색인들과 만날 것을 제안했는데 거

절됐어요.

감독 회색인들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자네와 날 만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게.

브라운 그건 받아들이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요. 곧바로 연구해보겠다고 말하는군요.

감독 좋아, 커트니. 그만할 시간일세. 시간을 기록하게.

브라운 휴우! 이번엔 특별했어요. 한숨 돌려야겠네요. 그럼, 이젠 타깃을 말해주시죠.

감독 '회색인의 의식'이었네.

브라운 그럴 줄 알았어요.

감독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브라운 좀 쉬었다가 전화할게요. 데이터는 즉시 보내지요. 잠시 후에 연락드리죠.

토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 투시를 시작했을 때 착륙했던 행성이 회색인 사회에는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 행성은, 특히 바다로 보아서 회색인의 행성과 비슷했는데 정말 그곳이 회색인의 행성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 행성은 이 회색인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또한 그 행성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원거리투시 탐사와 UFO 피랍 문헌에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내용에 근거하면 회색인들은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한다. 집단적 의식이나 집체 자아 같은 개념들은 때때로 회색인과 연관되는데, 우리의 의식과 비교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회

색인과 교류하려면 그들의 정신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만약 회색인들이 정말로 인간과 자신들이 관계된 유전공학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우리는 마음을 열어두고 이에 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회색인의 의식은 집단적인 정신이며 그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회색인의 집단적인 지성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들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전적인 우월성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 저변에 깔린 이타주의의 한 측면과 연계되는데,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것이다.

문헌상에 기록된 과거의 피랍 사건으로 보아(Jacobs 1992, Mack 1994),³⁰⁾ 회색인들의 활동과 의도가 왜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적대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색인들은 침입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대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할지도 모르지만 악하지는 않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이 종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원거리투사를 통해 경험한 바로는 회색인들이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인류와 인류의 현재를 두려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내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그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넓은 우주 사회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종족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 보존

감독과 나는, 납치됐던 사람들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세계에서 왔다는 외계인에 대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정보가 정확히 어디서 유래했는지,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얘기들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험적으로, 지각이 있는 생명체를 찾기 위해 플레이아데스 성계를 투시하기로 결정했다.

날짜 1994년 3월 10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2805/2070

예비 단계는 강력한 에너지와 단단한 인공 구조물을 암시했다.

브라운 연회색과 노란색의 빛이 정말 밝군요. 에너지가 사방에 충만하고요. 기후는 찌는 듯이 더워요. 무언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납니다. 울음소리도 들려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크고 공기, 에너지, 복사, 등근… 그런 느낌이에요. 어쩐지 중요하고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감독 3단계.

브라운 수평선과 육지에서 불타고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아주 빛나는 것을 스케치하고 있어요.

감독 4단계로 가게.

브라운 지금 매트릭스에 있어요. 여전히 빛과 타는 것 그리고 높은 기온이 감지됩니다. 난 지금 땅 위에 있는데 하늘에 불타는 등근 것이 떠 있어요. 두 존재가 탐지됩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고 또 하나는 공중에 있는 탈것 위에 있어요.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빛 가까이 공중에 있는 존재는 지상에 있는 이들보다 더 진보했군요. 빛이 정말 밝군! 그들이 필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네요. 빛 가까이 뭔가 탈것에 있는 듯한데 빛이 얼마나 밝은지 쳐다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은 땅을 보고 있는데 흙과 풀이 있고 평범한 미국인처럼 캐주얼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군요. 가만… 맞아요! 바지, 양말, 신발, 인간의 창조물들…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곳엔 공포감이 퍼져 있어요. 그 빛나는 물체나 하늘에 있는 것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 땅에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데 가족 같아 보이네요. 아이가 울고 있군요.

올려다보고서 다른 존재들을 따라잡니다… 이 존재들은 아주

진보했어요. 그들은 빛나는 것이 아닌 다른 물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내부는 등그렁군요. 그 존재들이 보여서 지금 가까이 다가갑니다. 회색인 같아요.

감독 커트니, 6단계로 가게. 시간선에 타깃의 시점을 정하고 나서 현시점을 표시하게. 잠시 침묵한다. 이제 2000년도를 표시하게. 나는 이 연도를 타깃 시간보다 약간 늦게 표시했다. 다음엔 매트릭스로 가게. 이제 인류와 관련 있는 가까운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에 집중하게.

브라운 인간들이 이곳에 이주한 것 같군요.

감독 아까 울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

브라운 빛나는 물체 때문일 거예요. 당황하면서도 올려다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비행물체와 회색인에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이 당황하는 것은 공중에 있는 것과 관계 있어요.

감독 사람들을 묘사해 보게.

브라운 피부가 희군요. 농부 같아 보이는데 원시적이지는 않아요. 윤택해 보이는데 가까운 도시나 마을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정말 미국인 같은데요.

감독 공중에 있는 물체로 돌아가게.

브라운 공중의 물체는 주위가 너무 밝아서 탈것이 하난지, 아니면 밝은 물체 하나와 탈것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군요. 아무튼 탈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 위쪽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공격적이지 않아요.

감독 그 존재들의 의도를 알아보게.

브라운 그 존재들은 사명을 띠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들이 늘 하는 작업이지요. 비행선 안으로 다시 갈까요?

감독 그 대신에 외계인들의 방문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게.

브라운 그러죠... 와! 갑자기 획 하고 멀리 움직였어요. 줄을 튕긴 것처럼요. 지금은 지구 모양의 행성에서 1천 마일 정도 벗어나 있어요. 구름과 물, 바다, 육지가 있고... 아아! 정말 아름다운 별이네! 처음 타깃과 두 번째 타깃은 시간과 공간상 전혀 별개인 곳이에요.

감독 6단계 도표에 이 행성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은 원을 그리고 처음 타깃의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에 원을 그리게. 내가 그리는 동안에 그는 잠시 침묵하고 있다. 새로운 행성의 원을 따라가며 그 행성에는 몇 개의 태양이 있는지 말해 보게.

브라운 한 개뿐이에요.

감독 좋아. 그럼 처음 타깃에 대한 원을 조사하고 몇 개의 태양이 있는지 말해 주게.

브라운 어! 커다랗고 노란 태양과 작은 백색 왜성 두 개예요. 어떻게 된 거지?

감독 분석하지 말고 투시 절차에 따르게. 커트니, 하늘에 밝은 물체가 있는 3단계 도표로 돌아가게나. 그 물체를 탐사하고 6단계 매트릭스에 데이터를 써나가게.

브라운 잠깐만... 위를 쳐다보니까 무슨 불덩이 같은 게 보여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보다 더 밝은데요.

감독 좀 쉬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팩스로 보내고 전화하게.

브라운 알았어요. 조금 후에 전화하지요.

계속.

감독 커트니, 처음 육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 좀더 알아봤으면 좋겠어.

브라운 그곳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데 그들은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군요. 가족인 모양인데 한 남녀와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고 인간의 외모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인 같아요. 남자는 턱수염을 덩수룩하게 길렀고 여자는 금발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긴 아주 쾌적하고 따뜻하군요. 남자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감독 비행물체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집중하게.

브라운 회색인들이군요. 물론 그들은 인간에 대해 알고 있어요. 흐름, 이상한데. 회색인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이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내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회색인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군요. 무언가 다른 일이 주의를 끄는 것처럼요.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게 정보를 주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요.

아, 일이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지구인인데, 회색인들이 이곳에 데려왔어요. 이주시킨 거죠. 인간들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군요.

감독 이주시킨 이유가 뭔가?

브라운 흐름,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고 지구의 기후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역이 필요했어요.

감독 계속 탐사해서 좀더 알아보게.

브라운 타깃 시점에서는 이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 시간에선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준비만 하고 있어요. 회색인들은 인간이 자멸로 향한 길을 가는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도록 M급 별(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역주)을 준비하고 있군요.

감독 그 외에는 뭐가 이주되고 있나?

브라운 유전 자원이 대부분입니다. 더 나은 진보된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유전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감독 유전변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게.

브라운 정신과 육체가 더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유전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과거엔 생존하는 데 처음의 유전자 구조가 필요했지만 나중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롭고 수정된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감독 좋아, 커트니. 여기서 끝내지. 마친 시간을 기록하게.

브라운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였어요?

감독 사실은 '플레이아데스 성계의 문화' 였네.

브라운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한다. 농담 아니죠?

감독 사실일세.

브라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감독 커트니, 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이제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아. 그런데 이전 정말 특별하군 그래.

토의

이번 타깃은 2000년경 두 개의 태양을 가진 성계를 선회하는 M 급 행성을 보게 했다. 투시하기 전에 나는 두 개의 태양이 있는 성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회색인들은 적절한 환경을 위해 행성 혹은 그 가까이에 일종의 보호 장치를 했을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 행성에는 회색인이 지구에서 이주시킨 인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른 지구인들이 언제 알게 될지, 이주한 후에야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조용히 일어날지도 모르며, 이 경우 모든 정보는 원거리투시를 이용해야

만 얻을 수 있다. 투시 시점에서 이주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주의 목적은 광범위한 유전자 정보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다. 미래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밀접히 연결되도록 어느 정도 유전자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인간의 파괴적 경향에 기인하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은 전 세계 인구를 생태계와 천재지변의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러한 재난과 싸우는 동안 몇몇의 인간은 선택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다.

미래의 인간이 갖게 될 행성 문제에 관하여 회색인에게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이 재난이 발생하는 때는 아직 모르겠다. 감독은 회색인들이 이 시기에 지구의 동식물 표본을 수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른 원거리투시 데이터에 대해 말해주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플레이아데스 성계 행성의 변화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우주 생명체 가운데 몇 종이나 회색인들과 같이 진화할 수 있으며 지구에 남아 있는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저 멸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플레이아데스에 떨어져 있을 우리의 동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갈 것인가?

사실 확인A

지금까지 열 번의 원거리투시 결과들을 기록했고(11장에서는 두 번의 투시), 많은 새로운 개념과 내용을 소개했다. 이것이 모두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독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거리투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조정 타깃'을 이용한다. 이 타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일차적으로 SRV 기법의 사용을 검토하기 위해 쓰인다.

감독과 나는 이 분석에 몇 가지 조정 타깃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시는 제4종 데이터로서, 투시 중이나 그 전에 타깃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았고 원거리에서 감독되었으며 25분 정도 걸렸다.

날짜 1994년 5월 1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4933/4876

예비 단계는 복잡한 인공 구조물을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과 황갈색이 보입니다. 시멘트처럼 거칠고 걸끄러운 질감이에요. 따뜻하군요. 큼직하고 육중한 것이 여럿 보입니다. 도시 같아요. AOL하고 있으니 기록해야죠.

감독 3단계.

브라운 그러죠. 도시의 지평선과 같은 그림이에요. 중앙에 주요 구조물이 있고 양쪽으로 두 개의 다른 구조물이 있어요.

감독 목표물을 찾아서 안으로 이동하게.

브라운 한동안 말이 없다. 회색과 흑백의 색깔들이 보여요. 윤이 나고 매끄러우며 빛나고 있습니다. 기온은 쾌적할 정도로 따뜻해요. 획 하는 소리,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간적으로 짧고 넓으며 웅색할 정도로 좁아요.

감독 4단계.

브라운 지금 매트릭스 상에서 이동합니다. 종이 같은 것이 보여요. 평평하고 수평적인 것이 있네요. 사무실 같군요.

감독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집중하게.

브라운 그러죠. 이곳엔 사람들이 걸어나고 있어요. 정장을 하고 있군요. 슈트, 재킷, 바지... 남자와 여자들인데 모두 정장 차림입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있고 서류 같은 게 놓여 있어요.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와!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감독 SI로 '와!' 라고 적고 계속하게.

브라운 이걸 AOL하는 게 낫겠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는 클린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어요.

감독 그만! 타깃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이었네.

브라운 우리는 전화상으로 킁킁대며 낮게 웃었다. 하하... 국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로 해두죠.

감독 그의 생각을 투시하게 할 수도 있었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이번 투시 목적은 달성했잖은가.

브라운 국가 비밀을 빼내는 건 그만하자구요. 결과 내용들을 당장 팩스로 보내지요.

감독 좋아, 커트니. 완벽한 시간이었네. 잘 있께.

토의

국가 비밀의 유지를 둘러싼 논쟁에 이번 투시가 암시하는 바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논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외계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정보 보호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사실만큼 걱정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외계인들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인류의 장래를 위해 더 유익한 다른 일에 신경쓰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 그들의 계획이라면, 현명하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다. 이 일의 성공 여부에 관한 그들의 추측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궁금하다. 희망적이면 좋을 텐데...

외교적인 도약

어느 날 감독이, 한 원거리투시자가 최근에 자신의 피랍 사건을 투시할 수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오래 전에 UFO 외계인에 의해 납치됐다.) 감독이 얘기했던 그 투시는 엄격히 통제된 제4종 조건하에서(투시자는 사전 지식이 없고, 감독은 FL) 이루어졌다. 놀랍게도 투시자는 UFO 피랍을 투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언제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신호를 받아서 불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지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알아차렸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며칠 후 무슨 변화로 인해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날짜 1994년 5월 31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예비 단계는 매마른 땅과 인공 구조물에 연관된 타깃을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과 황갈색이 보이고, 거칠고 나무 같은 질감입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기후군요. 테레빈유 냄새와 수풀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야외인가 보군요. 우선 '숲'으로 AOL할게요.

감독 3단계로 갔다가 4단계에서 계속하게.

브라운 집처럼 보이는 목조 건물이 있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은 고풍스런 나무 탁자가 있고 내부는 정사각형, 아니 직사각형 정도의 모양이에요. 소박한 주거 공간이군요.

감독 6단계에서 계속하게. 위치를 이동합시다. 그는 건물에서 500 피트 상공으로 이동하게 했다.

브라운 건물 가까이 산과 길이 있군요. 강이 있고 건물 근처에 급류나 폭포가 있습니다. 조사해 볼까요? 그는 가까운 지형적 특징을 통해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고안된 여러 절차들을 시행하게 했다.

감독 커트니, 4단계로 돌아가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무의식에 맡기고.

브라운 알았어요. 지금 안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군요. 작업복인 체크무늬의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고 턱수염을 길렀어요. 별다른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감독 시간적으로 조금 이동해 보게. 자네의 무의식에게 맡기고.

브라운 잠깐만... 집에서 강한 두려움이 느껴져요. 밤이에요. 약간 시간 이동을 했거든요. 외계인들의 활동이 감지됩니다. 희한하게 도 피랍 사건이군요. AOL/S로 쓰고 있어요.

감독 투시 절차에 따르면서 계속하게.

브라운 탁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마룻바닥도 그대로예요. 그

런데 지금은 회색인들이 많군요. 몇 명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유니폼을 입었고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곳엔 한 여자가 있는데, 모두 그녀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여자를 공중에 띄운 후 집 창문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통과해 나갔어요! 그 여자를 따라가는 중인데 밖에 회색인들이 있군요.

여긴 굉장히 밝아요. 지금 회색인들이 그 여자를 커다란 비행선 안으로 데려가는군요. 그녀가 창을 통과해 이동할 때의 집안 풍경을 스케치하는 중입니다.

감독 한 회색인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게.

브라운 잠깐만, 그러는 중이에요. 생존 프로젝트군요.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직업인 셈이에요. 생존의 개념은, 모두에게 그렇듯이 아주 넓은 것입니다.

감독 이젠 여자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4단계 매트릭스에 있게.

브라운 이 상황을 그녀는 확실히 여러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침착한데 좀더 깊은 차원에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건 아직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저 아래, 부분공간의 차원에서는 행복하고 황홀해 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택된 근거가 뭔가?

브라운 스스로 선택했어요. 자원한 겁니다.

감독 비행선 안으로 들어가게. 4단계에 머무르게.

브라운 지금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와!

감독 매트릭스에 AI를 기록하고 계속하게.

브라운 회색인들이 아주 많아요. 수술대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하

넓은 장소인데 모두들 아주 바쁩니다. 다른 인간들도 누워 있는데
상황으로 보아 모두 회색인들이 데려온 것 같아요.

감독 비행선 안에 다른 외계인들도 있나?

브라운 이 비행선에는 회색인과 인간뿐입니다. 목조 건물에 있던
여자가 지금 수술대 위에서 날카롭게 소리지르고 있군요. 키가 큰
회색인 한 명이 그녀의 다리 사이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녀를
진찰하고 있어요.

내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군요. 무언가를 보도록 날 밀어내고
있어요. 통로나 문을 통해 세계 밀리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것
을 보길 원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난 지금 여자의 자궁 안에 있어요. 태아가 있고 인공적인 빛이
느껴집니다. 아기가 나오는 중인데 나오는 대로 따라갑니다. 방금
아기가 밖에 나왔어요. 여자는 잠잠해졌고 몹시 지쳐 있는데 기진
맥진한 것 같아요. 기절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기를 깨끗한 유리
병의 액체 속으로 재빨리 넣는군요.

감독 유리병 속에서 얼마나 있게 되나?

브라운 이 특이한 튜브 속에는 잠깐만 있으면 된다고 옆에 있는
한 회색인이 알려주고 있어요. 일종의 간호사나 산파인 것 같습니
다.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된다고 얘기하는군요.
나중에 아기가 완전할 때까지 커다란 유리병 안에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출산 때처럼 나오게 되지요. 아기는 밖으로 나오고 숨을
쉬게 되는 거지요.

감독 이 수술은 언제부터 계속되었나?

브라운 이것이 인간에겐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하는군요. 전
체 프로젝트를 인간—즉 감독과 나—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최
근에야 결정됐어요. 회색인들은 우리가 투시하는 걸 더 이상 간섭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소위 피랍 사건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

요. 그들은 회색인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중요한 양보를—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하는 거예요 인간과 협력해 일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현재 열중하고 있는 건 아주 새로운 작업이에요. 기존의 방향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점진적인 변화로부터 회색인과 인류를 자멸로 이끌 수 있는 빠르고 큰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 변화는 연맹의 결정에 의한 것이 분명해요. 회색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요구됐고 인간을 돕도록 요구됐어요. 인간이 회색인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했던 도움에 고마워하는 감정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감독 좋아, 지금으로선 이걸로 충분하네. 마치지.

브라운 이번엔 아주 오래 걸렸네요. 굉장히 지쳤어요. 타깃이 뭐였는지 말해 주시죠.

감독 '연맹의 현재 지구에서의 작업' 이네.

브라운 흐름, 이제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감독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지.

토의

이번 투시는 외계인의 피랍에 대한 존 맥의 책이 나온 지 몇 주 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맥은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그 현상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그리고 회색인들에 관해 긍정적으로—다루었다. 우리가 이제는 회색인들의 활동에 대해 과거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상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회색인들이 결론지었기 때문에 투시에 관해서 전술을 바꾸었을 수 있다. 아니면 일차적인 탐구 방법인 최면술을 이용하여 이미 많은 정보들이 발

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원거리투시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숨긴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맥의 책 내용이 긍정적이어서, 아마도 그들의 이런 불가피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자기들의 행위를 보도록 용납하는지도 모른다.

투시 후에 감독은 엄격히 통제된 제4종 조건 아래 외계인의 납치 사건을 투시했던 여러 원거리투시자들과 교류했는데, 그들 역시 모두 성공적인 투시를 할 수 있었다. 1994년 5월 언젠가, 회색인들이 인간과 교류하는 태도를 바꾸었는데,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과 어느 정도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미래에 훨씬 더 큰 협동을 위한 전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투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적어도 한 피랍자가 자발적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투시 중에 이 피랍자가 복잡한 의식 구조 안에서 여러 차원으로 자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깊은 차원에서는 피랍을 알고 있었고 참여를 기뻐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참여하겠다고 이전에 동의한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나중엔 끔찍하게만 여겨서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인간의 의식이 여러 층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회색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왜 그들이 무감각해 보이는 태도로 납치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아마 신체적인 탄생 이전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따라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겪는 공포 정도는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피랍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고 부분공간의 인성이 육체적인 인식의 혼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들의 이런 행위가 모두 용서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것

이다.

최근 인간이 하는 일들이 회색인의 변화를 복돋는 것 같다. 회색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인간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 인간을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상대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 연구에 따라, 이 발견들이 암시하는 바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 따라서 우리의 타깃 목록에 몇 가지 새로운 타깃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타깃들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를 인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조언을 얻기 위해 찾는 스승들인데, 예수는 내가 목록에 덧붙인 그런 인물 중 하나였다.

처음에 감독은 예수를 목록에 첨가하는 일에 망설였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투시를 위해 좌표 번호만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얼떨결에 타깃을 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에게 다가가는 예의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면담 요청을 무시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게다가 처음에 구성된 SRV의 목적을 확대하고 있었다. SRV의 원래 목적은 관찰이라는 수동적 행위를 통해서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목표함으로써 우리는 지각력이 있는 실재와 의사 소통을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원거리투시 중 많은 비물질적인 존재들을 만났고 의사 소통이 가능했으므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추측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는 전혀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투시는 SRV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SRV가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매커니즘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장은 두 번에 걸쳐 예수를 타깃으로 하여 얻은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투시는, 첫번 투시 끝 무렵에 내가 타깃을 정확히 알아맞히자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감독이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다. 처음 투시가 끝나고 타깃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주었을 때는 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우리가 조언을 받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개의치 않은 친절한 인물이었다는 놀라움을 극복하는 데는 얼마간 시간이 걸렸다. 예수가 과학적 원거리투시법의 구조 안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 한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일이었다.

날짜 1994년 6월 2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8863/8473

에비 단계는 타깃이 단단한 인공 구조물과 관련되었음을 암시했다.

브라운 기계 소리가 들리는군요. 기온은 따뜻하고, 쓴맛과 연기 냄새가 납니다. 밀집된 장소에 많은 에너지와 활동이 잡히는군요. 이전 '건축장'으로 AOL할게요.

3단계 스케치로 가서... 몇몇 구조물과 연기, 건축 중장비와 구덩이가 있는 장소를 그리고 있어요

감독 AOL로 적어두고, 4단계로 가서 계속하게.

브라운 그러죠. 연기가 보여요. 타오르면서 독한 냄새가 나는군요. 이 장소는 혼잡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아주 '광적인 염려(EI)'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차가 한 대 보입니다. 이곳엔 존재들이 있군요. 작업복과 청바지를 입고 딱딱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다시 EI인데 이 장소에서 공포감이 감지됩니다. 건설 현장으로 생각되는데요. AOL/S 입을 밝힙니다.

감독 '건설'의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잠깐... 이들이 뭔가 만들고 있군요. 노동자들이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시간상에서 앞으로 움직입니다. 커다랗고 빛나는 빌딩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아주 강한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 AOL/S로 기록할게요. 이전 에모리 대학에서 건설 중인 공중보건 센터 같아요.

감독 빌딩 안으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브라운 급한 건강 문제가 있는데, 행성 전체의 관심사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질병통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강력한 AOL을 받고 있어요. 이전 아는 건물이잖아! 에모리에서 미국공중위생국 바로 옆에 건설 중인 공중보건센터예요.

감독 AOL/M으로 기록해도 좋네. 다음엔 '건강 문제'에 집중하게.

브라운 진행 중이에요.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굶주림

과 질병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박테리아, 생소한 바이러스,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들이에요. 상황이 견잡을 수 없도록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센터에 있는 이들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알아내려 하는군요.

감독 '인도와 도움'의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알았어요. 잠깐만... 인간들이 기본적인 생활 형태로 갈 필요가 있군요. 손쉬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져요.

잠깐, 무슨 일인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어떤 존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 존재에게로 옮겨갑니다. 빛이 나면서 약간 반투명하군요. 가운을 입고 머리카락은 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AOL/S로 적을게요. 이 사람이 내게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존재가 어떤 물리적인 해결책도 그 문제를 구제할 수 없게끔 이 상황을 설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인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구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토의

투시하던 중 감독의 음성이 눈에 떨 정도로 변화했다. 약간 신경질적인 투로 서둘러 마치자고 했다. 타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말했다.

「예수였소.」

난 여전히 약간의 동시현시 상태에서 말했다.

「예수라고요? 농담은 아니겠죠? 타깃이 정말 예수였던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왜 거기에 있을까?」

감독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과 원거리투시 발전에 중대한 사건이며, 전화를 끊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봐야겠다고만 말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내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해 보이고 유머 감각도 느껴지던데요.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화성인과 회색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감독은 그냥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하고 싶어했고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동시현시에서 벗어난 후에 이번 투시가 정말 얼마나 중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첫째로 이것은, 한때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로는, 두 존재—즉 투시자와 어떤 이—간의 의사 소통에 SRV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셋째는, 투시의 대상이 때때로 투시자에게 주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경우에 예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행성 전체의 공중 위생 문제를 투시하게 했다. 이런 경우 타깃의 인격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는 단순히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무언가 경험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경험할 학습 상황을 만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목록에 덧붙인 다른 인물들도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독이 이 타깃들을 언제 투시하게 할지 전혀 모르지만, 곧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예수로부터 받은 교훈 자체도 아주 중요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건강상의 재난들과 지구상의 외계인 활동은 서로 관련이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많은 그룹과 여러 가지 측면이 관계된 복잡한 연극을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 면에서 인간들의 태도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광활한 은하 세계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리고 성숙된 은하 세계의 시민이 되기 위한 책무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이 시점에서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예수를 타깃으로 했던 첫번째 투시 2주 후쯤에, 이번에는 대화를 해보기 위해 제1종 데이터 조건 아래(타깃이 무엇인지 알면서 단독으로) 예수를 투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SRV 기법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능숙해지고 있었고, 정확한 1종 데이터를 얻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른 1종 데이터의 경우에서처럼 정보를 구술하는 식으로 기록한다.

날짜 1994년 6월 14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1종

처음에 받은 인상은 파란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이었다. 무언가 가볍고 우아한 느낌을 받았다. 광대하고 곡선이 느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고요함과 엄청난 에너지장을 감지했다. 안식처라는 느낌이다. 최초의 이미지는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커다란 원형체의 하나였다. 나는 빛 속으로 신호를 따라갔다.

곧 존재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이 나를 기다렸음을 느꼈다. 다시 주변으로부터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일종의 보호지대, 회복을 위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인지는 모르지만).

신호를 계속 따라 인간 모습의 얼굴에 다가갔다. 거기에는 5명

의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 존재들을 모두 꿰뚫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중심 인물에게 다가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고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벽이 있는 커다란 방으로 갔다. 그 방에는 다른 존재들이 많았다. 이 시점에서 이곳이 '전에 와본 적이 있는 연맹 본부'라는 강한 AOL이 들었고, 처음에 빛과 에너지를 발하는 커다란 원형체 같은 모습은 과거에 연맹 본부를 투시했을 때 받았던 인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처음 5명의 존재들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강한 두 가지 AOL을 했다. 이 장소가 일종의 중앙 통제실이라는 점과 다양한 작전들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군사령부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방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들도 있었다.

나는 전에 연맹 본부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체격 좋은, 부처 같은 존재 가까이로 안내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그가 이 장소의 책임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다른 차원 혹은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차원이 겹쳐 있는 것 같았다. '인도'라는 개념에 집중했는데 그건 전에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던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얼굴이 보였다. 예수의 얼굴을 알아보자 자신을 만나러 내가 혼자 돌아왔음을(즉 단독 투시) 반긴다는 것이 뚜렷이 느껴졌다.

과학적 원거리투시법의 구조 안에서 예수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인간과 회색인의 교류'란 개념에 집중했다. 내가 얻은 반응은 아주 명확하고 권위적이기조차 했다. 예수는 인류는 물론 어떤

존재와의 접촉도 모두 자신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와 접촉한 그의 자녀들을 도우라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의도 아래’ 또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예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를 종교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의 의도가 단순하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복잡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생각했다. 독자들은 그의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는, 우리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갖고 있으며 회색인과의 교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많은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나는 ‘인간과 회색인의 교류’라는 개념에 집중했는데, 회색인의 경우와 비슷한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마음과 ‘시디’라는 개념에 집중했다. 예수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응했다. 정신이 그 원천으로 안내되는 데는 무수한 길이 있다고 했다. 강과 강의 지류처럼 길은 하나가 아니며, 시디가 인간의 진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디는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는 유익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인간과는 다른 형태의 마음은 비물질적인 실재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 시디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시디는 인간의 마음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 아닌 경우에 얼마나 시디가 널리 적용될 수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위험’의 개념에 집중했고 탐욕이 인격을 파괴한다는 반응을 받았다. 생명의 다른 요소들과 양립할 수 없으며 물과 기름 같아서 사랑과 탐욕은 섞이지 않는다. 예수가 도덕 강연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아니었고, 단지 사실을 말하는 듯했다.

‘생태계’의 개념에 집중하자 예수는 하느님은 모든 생명을 창

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 생명의 목적은 진화하는 것이다. 다시 '은하연맹'의 개념에 집중했다. 예수는 연맹에 참여한 존재들이 인간보다 더 진화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들도 자신들의 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게다가 그들이 특정하게 예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자신들의 과정이 인간보다는 더 확실하게 신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연맹을 통해 그에게 왔는지 물었는데, 그는 내가 쓰고 있는 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책이 진화에 기여하므로 돕기 원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 중 하나로 느껴졌다. 아무도 뒤처져 있는 다른 이를 돕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이 곧 진화의 법칙이며, 이기심과 탐욕은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연민을 가지고 회색인과 화성인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돕는 것이다. 남을 돕지 않고는 아무도 진보하지 못한다. 돕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은 끝이 없어야만 하며,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계명'이라고 강조했다. 인종적, 종족적 또는 그 밖의 모든 편견들은 진보와 공존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과거의 지식, 습관적인 한계를 탈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직면한 도전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예수에게 감사하고 투시를 끝냈다. 이 시간에 기록한 노트에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토의

예수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아주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그와 객관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시도 등 몇몇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다.

예수의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SRV를 사용하여 우리 시대의 많은 중대 사건들에 관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거리낌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단지 이러한 사실들을 주고받았을 뿐, 현존하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에 도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관점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느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교 개념을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언젠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구에 살았고, 우리 모두의 부분공간 측면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것처럼 그의 부분공간 측면은 여전히 살아 있고 건재한다.

뒷부분에서 부처와 구루 데브와의 교류에 대한 데이터를 다룰 것이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인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부분적으로는 존경심 때문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역시 현명하다고 믿는다.

예수가 외계인들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앞으로 인류의 진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해준 충고는 뒷장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예수가 이 일에 관해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는 우리가 회색인, 화성인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투시 중에 만난 어떤 존재보다 그는 가장 명확한 '명령'을 전달했던 것이다. 즉 우리가 외계인과 협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색인 초기 문명의 멸망 원인

이 연구의 근본 목적 중 하나는 회색인의 초기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성과 역사의 주요 사건들, 그들 문화가 직면했던 더 중요한 시련에 대해 알고 싶었다.

이번 장은 분리된 세 번의 원거리투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다. 첫번째는 '회색인의 초기 문명'에 대한 제4종 데이터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투시는 제1종 조건 아래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보고한 두 번째 투시는 사실 처음에 있었고 감독된 투시 6개월 전쯤에 했다.

날짜 1994년 6월 16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4923/8216

예비 단계는 매마른 땅과 물 그리고 인공 구조물이 있는 복합 타깃을 암시했다.

브라운 파란색과 검정색이 보입니다. 축축하고 질척거리는군요. 서늘하고 짠맛이 납니다. 생선 냄새에, 철벽철벽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평평한 표면 위에 구조물이 보이는군요. 지금 3단계에서 스케치하고 있어요. 표면은 물처럼 젖어 있고 구조물은 단단해요. 감독은 구조물의 꼭대기로 이동하게 했다.

이 구조물 아래에 강력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일종의 깔때기 같은데... 나는 수면을 다시 3단계 스케치로 그린다. 구조물 아래는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 구조물 주변의 (소용돌이 바깥쪽) 물은 아주 격렬하게 출렁거리고 있다.

감독 커트니, 4단계로 가서 계속하게.

브라운 그러죠. 지금 4단계 매트릭스에 와 있어요. 확실히 소용돌이군요. 물이 많고 이곳엔 에너지가 충만해요. 존재들도 있는데 여긴 그들의 작업 장소인 모양입니다.

거대한 물과 엄청난 에너지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소용돌이가 아래쪽으로 빨려들어 가는군요.

그 존재들은 인간과 비슷한데 아주 진보했어요. 지금 구조물로 이동합니다. 외계인 것 같은데, 비행선 같지만 그렇다고 꼭 우주선도 아니에요. 그 존재로 다시 가서... 그들은 바다를 다룹니다. 바다 생태계와 다양한 어종에 관계된 일입니다. 어떤 변화에 대비해 보존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염려와 관련이 있군요.

지금 난 구조물에서 그 안을 보고 있어요. 컴퓨터 같기도 하고 조종판 같기도 한 게 있는데, 다른 외계인의 우주선처럼 진보되거

나 복잡하지는 않군요. 이 우주선의 내부는 인간 같은 존재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이군요. 이곳엔 산뜻한 냄새가 납니다.

다시 그 존재들에게로 갑니다. 확실히 인간과 비슷한데요. 더 가까이 가서… 회색인종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회색인이 확실해요. 움푹 꺼진 눈을 하고 있군요.

이들이 이제 내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나타난 사실에 약간 놀라는데요. 좀 특이하군. 내가 회색인들을 놀라게 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내 방문에 경의를 표하는 것 같고, 그들의 상관이나 존경하는 누군가한테 내게 협조하라는 명령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독 옷차림은 어떤가? 뭔가 입고 있나?

브라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유니폼에 표식도 있는데 지금 그걸 그리는 중이에요. 호흡, 화성인들을 구조했던 회색인 유니폼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거군요. 하트 모양에 뱀이 그려져 있는… 부대나 군단의 심벌이에요.

지금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텅 빈 느낌이에요. 마치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듯한… 그래도 다른 회색인들에게서 느낀 것처럼 행하니 빈 것 같지는 않군요.

감독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보게.

브라운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들의 위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처음엔 주저하는군요. 우리를 혼란하게 할까 걱정도 하면서 한편으론 정보 주길 꺼리는군요. 여기에 관해 집요하게 묻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를 곧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아니에요.

감독은 비행선의 본거지로 위치 이동을 하게 했다.

앞이 특 트여 있는 도시 형태가 보입니다. 광택 나고 매끄러운

빌딩들이 있군요. 꼭대기가 뾰족한 빌딩이 많아요. 여긴 아주 자극적이고 매캐한 냄새가 나요. '회색인의 행성'이라는 강한 AOL이예요.

감독 커트니, 이 시점에서 유니폼에 있는 표식의 의미를 탐사하게.

브라운 구조대의 심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대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특수 부대는 초기 회색인 문명의 멸망 시기에 창설됐다는 느낌이 뚜렷이 드네요.

감독 '멸망'이라는 개념을 탐사하게.

브라운 잠깐! 타는 냄새와 자극적이고 매캐한 악취가 나요. 엄청난 양의 환경 폐기물이군요.

감독 그들의 정치는 어떤가?

브라운 회색인 사회는 아주 이기적인 경향이 있어요. 사회 구조가 '욕망'의 토대 위에 구축됐어요. 사회 전체의 이익엔 개의치 않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걸 정상으로 받아들이는군요. 기묘한 AOL이 드는데요. '부분공간의 반란'으로 AOL하고 있어요. 이걸 루시퍼 반란*으로 AOL/S했다고 기록할게요.

감독 그냥 기록하게. 해석하려 말고. 계속하지. '재앙, 구조, 회복'의 개념을 계속 탐사하게.

브라운 구조대는 그들 사회에서 동원됐어요. 그들이 그 표식을 고안해 낸 이들이죠. 잠깐, 뭔가 변화되고 있는데... 어떤 회색인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의 이해를 돕는 게 그의 일이군요. 이 회색인은 내가 투시 중에 약간 혼란스

* 몇몇 원거리투시자의 데이터에 의하면, 루시퍼와 사탄은 부분공간의 전쟁에 연루된 심체의 다른 두 인격이다. 초기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전쟁에 관해 기록했으며, 훗날 종교적인 믿음과 혼합되었다.

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시키려 해요. 다시 빌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소에 대해 더 정확한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신호를 따라서 환경 파괴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여긴 완전히 오염됐어요. 말 그대로 이 존재들은 자기들의 배설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군요. 그들의 전체 의식은 자기 만족으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성의 개념을 탐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욕이 굉장히 왕성하군요.

음식 문제로 이동합니다. 식량은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인구가 많군요. 정말 말 그대로 수십 억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음식은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연식품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군요. 식량원은 원래 바다였어요. 생선을 먹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신호를 따라서... 이 존재들은 일종의 부분공간의 전사로 타락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마치 거만하고 반역적이고 아주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집단적으로 부추겨진 것 같아요. 나중에 배신감을 느꼈을 땐 이미 너무나 심하게 손상된 후였어요. 그들은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감독 좋아, 커트니. 마칩시다.

브라운 그런데 타깃은...?

감독 '회색인의 초기 문명' 이네.

위에서 기록된 데이터는 1993년 12월에 기록한 단독 투시(제1종 데이터)에서도 입증된 것이다. 이전의 투시에서는 아주 혼잡하고 오염된 도시를 보았다. 회색인의 행성은 혹독하고 지구 기준으로 보면 파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초기 회색인의 음성도 약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음성은 별나게 떠들썩한 소리를 냈다. 또 그 시대 회색인의 심리는 인간의 심리와 공통점을 가졌다는 인상도 받았다. 초기의 회색인들은 지

금 지구와 지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색인보다 작은 눈을 하고, 밝은색에 매끄럽고 만지면 주름이 잡히는 피부를 가졌으며 머리카락이 없었다. 성에 대해서는, 초기 회색인들은 거의 성에만 몰두할 정도였다.

이전의 투시에서는 초기 회색인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해로 병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 인해 많은 회색인들이 죽었다. 회색인들은 종족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출산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이 처했던 곤경에 비해 그들의 문명은 단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다.

감독된 투시 후에 나는, 이전의 감독된 투시와 단독 투시에서 놓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 투시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994년 6월 20일, 제1종 조건하에서 '회색인의 초기 문명'을 목표로 정했다.

나는 감독된 투시 때에 보았던, 바다 소용돌이 위의 구조물로 다시 위치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식량을 생산하고 보존하기 위한 설비였다는 것을 알았다. 물이 소용돌이치는 것은 이 활동과 관련 있었다.

구조물에 있는 회색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생식기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함께 일했다. 또한 그들은 왕성한 성생활을 했다. 성관계의 횟수와 상대의 수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았다. 이 존재들 사이에서는 텔레파시가 인간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섹스에서는 텔레파시적인 요소가 성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들 행성의 대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공해뿐 아니라

해로울 정도의 방사선이 회색인들에게 퍼부어졌다.

단독 투시를 하던 이 시점에서 나는 이 행성의 문제를 탐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화 단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은 대다수의 회색인에게 부작용을 초래했고, 그들의 정신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한 충동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계속 신호를 따라 그들의 정신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시점에서 투시가 눈에 띄게 변화했다. 빛을 발하는 부분공간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무정형의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강력했다. 처음에는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했으며 그다지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곧 회색인의 문제와 관련된 외부 존재에 대해 알아보려 했는데 갑자기 위치 이동을 경험하게 됐다. 곧 부분공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곳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거기에는 많은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복적거리고 있었다. 마치 러시아워의 맨해튼 역처럼 복잡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부분공간의 존재와 회색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사하며 이들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전의 회색인들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부분공간의 존재 사이에서 조직 구조를 탐지했는데, 그들은 완고하고 위계가 확실한 사회 질서를 갖고 있었다. 이 제도 안에서는 거의 군대처럼 통제되어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파괴할 것을 명령받았다. (부분공간에서나 육신으로 태어난 후에도)

계속 신호를 따라 그들 조직의 지도자를 추적해 보았다. 문득 부분공간의 명령 통제 센터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당시에 그 센터에는 10명 정도의 존재들이 있었고 네댓 명의 존재들이 높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 구조물의 내부는 사무실처럼 정돈되어 있고

아주 엄격한 군대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 조직의 한 지배자에게 다가갈 때까지 신호를 계속 따라갔다. 이 존재는 전에 투시 중에 보았던 무정형의 밝고 어두운 존재였다.

그 존재가 극도로 겁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알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있었는데 마치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듯했다.

우선, 그 존재는 죽음에 대해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 군사 투쟁과 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지도자는 자신이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벌을 두려워했는데, 공포 때문에 화해를 생각해 낼 능력이 없어 보였다. 그때 이 지도자가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계속 마음을 탐사하자 부분공간의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회색인의 행성을 파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질 세계에 공포를 불어넣음으로써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공포가 주무기였다. 그 지도자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로 하면, 회색인의 영혼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 겁은 마음은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인성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협상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통제를 원했고, 통치자이며 독재자로서 존재하기 원했다.

사실, 그 지도자는 승배를 바랐던 것이다. 승배를 원하는 것은 그의 인격 구조가 약하다는 데 원인이 있었다. 인격의 결함을 무마하기 위해 승배를 필요로 했지만 기묘하게도 그 지도자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

관찰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내게 주의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시간과 위치를 이동했고 그때, 내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어두운 부분공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내

사무실로 '하강' 하는 것을 느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존재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조사했고, 그는 나를 조사했다. 약 30초 간 관찰한 후에 그 존재는 떠났다. 그는 내가 자신의 활동이나 지배 세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중요치 않은 존재라고 느낀 모양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그에게 성가신 사람일 뿐이었다.

토의

회색인 문명의 멸망 저변에는 부분공간적인 원인이 있었다. 차츰차츰 멸망으로 이끈 이 사건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회색인 자신들이 행성을 파괴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때 그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현재의 회색인들이 초기와는 다른 외모를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추후의 경험으로 인해 상당히 변형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 회색인의 눈이 커진 것은 상당히 어두운 환경 즉 지하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그들 행성의 육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회색인들에게 성생활이 부족한 것은 그들이 이 생리적인 과정을 유전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그들은 스스로를 거세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인구 통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태아를 성장시키는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번식하는 다른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UFO 피랍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험관 아기들과 액체로 가득 찬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태아들에 대한 보고들과 일치한다(Mack 1994, Jacobs 1992).⁹⁾¹⁰⁾

아마도 회색인들이 성기능을 없애기로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회색인들은 단지 성 외적인 방법으로 종족을 보존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성 충동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초기 문명 몰락의 경험으로 인해 문제의 원인을 재평가하게 됐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들은 성적 충동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가혹한 새 환경에 빨리 적응할 의도로 유전자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성적 기능까지 더 확대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재미있는 일은, 내가 관찰하고 분석한 것 중 어떤 것은 채널 데이터에 근거한 로열과 프리스트의 연구(Royal, Lyssa, and Keith Priest 1992)⁹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초기 회색인 문명의 멸망에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나는 멸망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역 지도자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일종의 테러리즘에 의해 멸망한 것 같다. 그러나 지도자는 누구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에 생존을 위해 반역을 해야만 했을까? 부분공간에서의 활동이 정확히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인류는 부분공간에서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회색인들에게는 차원과 차원간의 교류가 용이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경로를 통해 비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반역 지도자의 명령 아래 일했던 존재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는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외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물질적 존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지도자가 무정형성이라는 점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답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회색인 문명의 멸망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물리적인 측면과 부분공간의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었던 두 차원간의 문제에 대해 배워야 할 것 같다.

스타 트렉-외계인의 노력

이 책을 위해서 연구했던 2년 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타 트렉』*에 등장하는 많은 아이디어와 원거리투시를 통해 얻은 실제 외계인의 활동 데이터간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94년 봄, 이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영된 후 나는 외계인이 『스타 트렉』 시리즈를 보는 세대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타깃 목록에 덧붙이자고 감독에게 청했다.

원래 목적은 외계인들이 작가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하여서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내게 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것이다. 외계인들이 인류가 다양한 은하 생명체에 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기 원하며,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간

* 『스타 트렉』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방영된 SF 프로그램으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사용 내용으로 한다.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시리즈물로 3종류가 있는데, 지문이는 그중에서 'Star Trek: The Next Generation'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접적으로 많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 트렉』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사실적인 개념들을 내용에 끼워 넣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인간을 교육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적어도, 이것이 새로운 타깃의 추가를 고려할 때 감독에게 말했던 내 생각이었다. 감독도 할리우드 제작물들을 외계인이 이런 형태로 오랫동안 조종해 오지 않았나 생각했고, 원거리투시팀의 몇몇 군인들이 그 의혹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이 장에서는 두 원거리투시 과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첫번째는 감독된 투시로서 타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 트렉』에 관련된 타깃을 받았다. 두 번째는 제1종 데이터로 단독 투시인데, 첫번째 투시에서 생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날짜 1994년 7월 1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1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8074/7435

예비 단계들은 (이번에는 4단계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타깃에 두 장소가 관련되어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회색인의 행성이 이 장소 중 하나였다. 감독은 처음에 다른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브라운 점정, 회색 그리고 황갈색이 보입니다. 거칠고 매끄러우며 약간 광택이 나고 잎이 많아요. 따뜻한데 서늘한 곳도 있어요. 약간 짠맛이 나고 먼지 냄새가 납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빌딩 같은

구조물과 옆이 약간 있는 풍경을 스케치한다.

나무들이 보이네요. 일종의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강이나 시내 같은 물도 있어요. 물살이 상당히 썩니다.

구조물도 있군요. 지금 그 안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인간들이에요. 모두들 양복을 입고 있어요. 호흡, 지금 의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엔 비물질적인 존재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와, 부분공간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날 알아보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관심의 초점은 아니에요. 인간들과 일하느라 아주 바쁘군요.

부분공간의 존재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 활동이 좋은 나쁜 지구의 어떤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감독 부분공간의 존재들은 몇이나 되나?

브라운 많아요. 10명이 조금 넘는군요. 외모는 인간과 비슷하고 모두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감독은 예비 단계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했다. 다시 회색인의 행성에 도착하면서 시간을 건너뛰었는데, 두 장소가 동시에 교류하고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다른 시점이다. 부분공간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과거나 미래에서 한 장소의 어떤 것이 다른 장소의 현재와 교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단계에서 회색인의 행성과 구조물에 있는 부분공간 존재들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험하기 시작했다.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전에는 인간이었어요. 인간에 관한 지구 프로젝트에 회색인과 함께 긴밀하게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회색인의 행성에서 엄청난 양의 부분공간 에너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보내지고 있어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백색 광선이 동원되고 있는데 모두 뭘 위한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잠깐!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지금 내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내게 설명해 주라고 누군가 말하는군요. 굉장히 바쁜 모양인데, 하고 있는 일이 힘든 것 같아요. 중단하면 안 되는데, 어떤 영문인지 날 우선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군!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는군요. 인간이 처하게 될 난관을 직시하게 하기 위해 회색인들과 협력해야 할 절실한 단계에 와 있어요.

감독 '인간의 자각'에 대해 알아보게.

브라운 인간 문명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분공간상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이에요. 부분공간 생명의 진화를 돕기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군요.

지금 회색인 세계의 에너지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방대한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기계는 오직 회색인 세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에너지를 위해 외계인의 비행선들이 이용되진 않군요.

많은 과학기술이 부분공간의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색인 세계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이동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요. 에너지는 일종의 통로를 따라서 인간의 부분공간 영역으로 이동되고 있군요. 두 그룹간에 활발한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회색인들은 단숨에 행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능력도 갖고 있어요.

에너지는 부분공간상의 불빛으로, 말 그대로 지구를 감싸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구가 조명을 받는 것이지요. 강렬한 부분공간의 빛으로 행성을 둘러싸는 건 육체를 지닌 인간의 직관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그들 자신의 부분공간 측면에서

오는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들은 자기의 부분공간 자아를 깨닫는 능력이 부족해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증폭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이상한 정보를 하나 받았어요. 인간들이 이런 약점 때문에 어쩐지 잘못됐다고 느껴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일종의 부분공간상의 교란이 있었고, 그래서 인간 진화의 행로가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루시퍼 사건이나 반역'으로 AOL/S하게 되는군요.

감독 구조물의 인간에게 돌아가게.

브라운 이 사람들은 상당한 거물이에요. 완전히 타락했군요. 자기 만족의 거짓 현실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부분공간의 존재들은 이 특정 존재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2차적인 문제예요. 구조물 안의 사람들은 원하면 자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모든 혼란이 '루시퍼 반란'의 여파로군요. 설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인간은 부분공간 영역의 혼란으로 초기 문명이 쇠퇴하기 전의 회색인과 아주 비슷하군요.

감독 커트니, 부분공간 존재들이 구조물 안에 있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게.

브라운 아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중요한 일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부분공간의 존재들은 인간의 간교하고 교활한, 거의 악에 가까운 마음에 바른 사고를 주입하고 있어요.

이런 건 잠깐이면 됩니다. 인간은 다시 이기심에 의해 지배되겠지만 적어도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유익하고 중대한 결정

을 내리게 될 거예요.

이 존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지구를 부분공간의 광선으로 덮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군요. 이런 연합 프로젝트는 부분공간의 영향을 확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꺾박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 좋아, 커트니. 여기서 마치지. 타깃은 '스타 트렉 아이디어의 탄생'이었네.

토의

투시 직후 이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했다. 투시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종합과 해석적인 논평에서, 회색인의 세계로부터 발원해 지구를 둘러싸는 부분공간의 빛은 대중이 『스타 트렉』의 아이디어를 더 잘 수용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언급했다. 거물들은 어떤 쇼에 자금을 댈 것인지 결정하는 이들이다. 감독은 투시 후에, 오락 산업의 거물들은 그런 결정을 위해 휴양지에서 만나는 때가 많다고 했다. 이익이 남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작 후원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한 그들이 『스타 트렉』 같은 프로그램을 후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의 투시 내용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포함하는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시리즈의 창조에 대한 것이다. 외계인들은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해 『스타 트렉』의 아이디어를 제기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의 생각을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택했고, 동시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어떤 독자는 전세계인이 『스타 트렉』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인

류 문화의 발전에 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나의 분석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타 트렉』이 외계인이나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인류를 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결과는 단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경로 중 하나에 대한 분석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투시를 통해서 외계인들이 『스타 트렉』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타 트렉:에피소드에 대한 아이디어의 탄생'에 대해 단독 투시를하기로 결정했다.

날짜 1994년 9월 11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1종

타깃좌표 3850/3054

SRV의 예비 단계에 따라 갈색과 황갈색들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질감은 나무와 시멘트 같았다. 따뜻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났으며 평평하고 드넓다는 인상을 주었다. 3단계 스케치는 넓은 도시와 같은 것이었다.

4단계에서는 사막처럼 황량한 곳에 자리잡은 혼잡한 도시를 보았고, 로스앤젤레스, 특히 할리우드 지역이라는 강한 AOL을 했다. 타깃에서 3피트 옆으로 위치 이동을 했는데, 잠들어 있는 백인 남자 옆에 와 있었다. 그 사람을 스케치했다.

그 남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뇌에 어떤 물체가 이식되어 있다는 사실이 탐지되어 더 자세

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물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뇌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상 어느 정도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로 가서, UFO의 회색인들이 길다란 수술 바늘로 남자의 뇌 속에 그 물체를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잠들어 있는 남자에게로 돌아가 다시 그의 마음에 들어갔고, 꿈꾸는 상태를 관찰했다. 그의 꿈은 이식된 물체에서 오는 정보에 이끌리고 있었다. 이 장치는 규칙적으로 생각을 감독하고 주로 수면 시간에 정기적으로 생각을 주입했다. 그 사람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자신의 머리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깨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규칙적으로 떠오르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했고, 이 아이디어들을 자신이 생각해 낸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의 마음에 송신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밝은 빛 가까이 다가갔는데 처음에는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의 비행선이라고 생각했다. 더 자세하게 조사하니 육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외계인의 비행선보다도 작은 장치라는 것을 알았다. 그 물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마음을 그 장치로 옮겨가자 어떤 의식 같은 것이 명확히 탐지됐다. 장치 안에는 아무 존재도 없었지만, 그 장치가 사고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6단계에서 나는 원형의 장치로부터 잠든 남자의 송신을 추적했다. 원형 장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 후에, 그 생각의 원천으로 추적해 갔다.

여기서 내가 행성의 한 구조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구조물 안에는 회색인들과, 지구인과 상당히 비슷한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회색인들이 입체적인 반면, 대부분의 다른 존재들은 빛을 발하는 종류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부분공간의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색인이 아니면서 인간과 비슷한 이들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연맹'의 작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작업이 많은 종족들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공동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신했다.

탐색을 계속하면서 그 장소가 공식적으로 연맹과 연결되었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이곳의 존재들은 연맹 본부에 직접 보고했다. 과거에 갔던 곳과는 다른 방이지만, 내가 정말로 연맹 본부에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송신의 내용에 집중했고 그 메시지는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했다. 송신 내용은 즐거리, 주인공들, 특정한 장면의 행성 이미지, 비행선 그리고 존재들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은 나중에 『스타트렉』의 각본에 쓰일 데이터였다. 그 프로그램이 외계인을 정확하게 영상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다양한 의모와 문화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토의

내가 투시한 할리우드의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장치가 이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강조해야겠다. 이 사람이 『스타트렉』의 각본을 쓰는 사람인지 혹은 에피소드 창조에 관련된 사람인지는 모른다. 즐거리를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의 친구나 배우자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시리즈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즐거리나 다른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위치에 있거나 하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원거리투시가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일 수도,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언

급하는 것일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해 보지 않았다.

외계의 생명체에 대해 인간이 개방된 인식을 갖도록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외계인들이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연관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외계인들은 인간의 많은 생각과 사건에 관여해 왔고, 『스타 트렉』은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인간이 우주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복잡한 은하 사회의 한 집단이다.

여기에 마인드 컨트롤은 없었다. 외계인들은 작가의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듣고 수면 중인 그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채워주고 있었다. 작가는 이 아이디어들을 강요받은 것은 아니고 자유 의지를 가졌지만 아이디어들이 흥미롭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작가는 각본을 쓰는 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을 아주 기뻐했고,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자신이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외계인 프로젝트가 인간 문화의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텔레비전이나 SF 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동료들 통해 그 프로젝트에 부지중에 연관되었다고 추측할 뿐이다. 이에 대한 탐구는 다음 세대의 원거리투시자들에게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예수를 다시 방문하다

연구를 하는 이 시점에서 회색인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들의 유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이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원거리투시에 관한 모든 경험은 전기, 화학, 기계적인 변화의 추구가 단순히 좋은 시절을 품미하려는 것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실지로, 내가 회색인의 마음을 투시했을 때 진화 문제에 그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듯 공포에 떨고 있었다.

회색인의 문제에 대해 확답을 듣고 싶었다. 최근에 얻은 몇 가지 투시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으며, 사려 깊은 조언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회색인은 단지 육체를 가진 그들의 생존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만약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왜 인간이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번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인

간과 회색인 간의 협동적인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왜 인간이 회색인을 도와야 하는지 가장 알고 싶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나는 다시 한 번 예수를 찾아가기로 결정했고, 이미 그와 한 번 접촉한 경험이 있으므로 제1종 조건에서 단독 투시를 하기로 했다. 지난번에 예수를 타깃으로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의문들이 없었다. 지금 내 연구가 중대한 기점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회색인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투시에 앞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었다. SRV 중에 질문을 생각하려면 사고 작용이 필요하므로 투시에서 얻는 정보가 부정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 목록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면서 투시를 시작했지만 답변을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다. 엄밀한 SRV 방식에 따라 분석은 후로 미루고, 데이터가 수집되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날짜 1994년 7월 11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1종

타깃좌표 8863/8473

예비 단계는 내가 예수를 접하는 시점이 아주 먼 과거라는 것을 나타냈다. 4단계까지 그는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였는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알고 보니, 그때 그는 어떤 회의를 주재하거나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모임을 떠났고 잠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시공을 초월한 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내 질문을 알고 있으

며, 어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회색인의 유전 프로젝트에 우리가 협조하길 바라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거의 명령에 가깝게 단호한 어조로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신의 자녀이고, 인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회색인의 프로젝트가 어떤 점에서는 신과 합일하는 더 큰 진화의 목표에 관련있는지 물었다. 그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개성을 가진 인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융통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그 발전이 필요하지만 그는 내가 꼭 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미 신과 예수에 가까웠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반응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느낀 나는 회색인이 신을 향해 진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개성을 가진 인격을 지녀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긍정과 부정으로 답했다. 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신다. 그들은 신과 같이 진화하기로 했으며 신은 그들이 멸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성을 가진 인격의 노선을 택했다. 교류했던 개인들의 삶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추구함으로써 진화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신과 합일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는 인성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차적인 차이는 한 사람의 인식이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 신의 자아를 이룩하는 것인지,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어떻게 도달되든지 신성은 하나이며 같은 것

이라고 말했다. 신과 융합되지 않고서는 신을 인지할 수 없다.

명상을 통해 신과 융합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이것이 목적이지만 명상만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신과의 융합에는 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명상은 그 과정을 단축한다는 의미에서만 가치가 있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회색인의 주제로 돌아가, 그들이 신과 완전히 합일했는지 물었다. 그는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신의 경험을 전적으로 공유할 정도로 충분히 인성이 발달하지 않았고, 신과 전적으로 합일하기 위해서는 더 발달해야만 한다.

나는 예수에게 그리스도교 저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그리스도교인들이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는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가 그렇게 불쾌해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상당히 강력하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것은 인성의 발달에 달려 있으며, 자아를 넘어서 인식하고 사랑하는 깊은 능력의 발달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시디'는 가치 있지만 원래 그리스도교와는 관계가 없다. 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신을 사랑하게 되는지 도대체 신이 누구인지 예수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예수가 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굳이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불행히도 나는 투시 전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따라서 SRV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투시 중에 이 질문들을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신이 회색인과의 합일을 원하는지 물었는데, 합일을 원하는 쪽은 회색인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 의지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신이 합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회색인들이 자유 의지에서 합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회색인들은 결국 신과 합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는 힘주어 말했다.*

* 신에 관해서 '융합'이나 '합일'이라는 단어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언어적인 한계로 인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모든 단계의 생명체들과 물리적이거나 부분공간의 존재 영역을 넘어서는 생명체까지도 알고 공부하게도 교류하는 존재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회색인은 같지 않다

이번 타깃은 원래 목록에 없었고 계획하지 않은 것이다. 감독은 우리가 피랍 경험에 대해 좀더 알 필요가 있다며, 제1종 조건 아래 이 타깃을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UFO 납치를 확실히 투시한 후들 다 이런 형태의 타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감독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UFO 납치의 목적에 대해 알아볼 필요를 느끼게 했다. 나의 무의식은, 이전에는 몰랐던 회색인 사회의 새로운 측면을 밝히는 각도에서 이 타깃에 접근했다. 따라서 이번 투시에서는 단순히 피랍 현상에 대해 좀더 배우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색인 사회의 복잡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피랍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날짜 1994년 7월 13일

잠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7646/1231

예비 단계들은 내가 큰 바다가 있는 한 행성에 와 있음을 명확히 나타냈다. 처음에는 수면 위에 있었는데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수면 아래에 존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탐지했다. 거기서 수중 구조물과 마주쳤다.

브라운 이진 속이 텅 비어 있는 구조물 같군요. 금속성에, 일종의 방 같아요. 구조물 안엔 파이프들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바닥이 있어요.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정말 기묘하군. 이진 AI로 기록할게요. 전체가 잠수함 같아요. 상당히 강한 AOL/S예요.

좀더 자세히 보면... 안쪽 표면은 주로 금속인데, 가죽 같은 재질도 있군요.

안에 네 명의 존재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보이는군요. 지금 그들의 옷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간의 작업복 종류 같아요. 소매 없는 T셔츠, 헐렁한 바지 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요.

감독 그들의 활동에 집중하게. 무얼 하고 있나?

브라운 잠깐만... 물고기와 물고기와 관련된 일이에요. 모두 남자군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관여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복잡한데요. 기계적으로 일만 할 뿐 주위 환경조차 모르고 있어요.

감독은 나를 6단계로 가게 했고 거기서 수중 구조물 내 사람들의 시간적 경험을 알아봤다. 예전에 그들은 정상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출생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정신적 상태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밖에 있는 물고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자기들이 물고기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고기와 인간 사이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일시적이지만 인간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군요.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정신 마취 상태 같아요. 자신이나 주변 상황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요.

마치 몽롱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이 멈추어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학대받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군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노예 같아요. 실험 재료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비유일 겁니다.

이제 시야를 넓히고 있어요. 외계인이 포착됩니다. 이 일에 관여하는 거대한 외계인 우주선이 있어요. 회색인들이군요. 우주선은 아주 현대적이고 첨단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좀 특이해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이 진보되진 않았다는 의미에서요. 회색인의 우주선에서 항상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대한 통제는 이 비행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감독 커트니, 이 사람들이 회색인과 만난 최초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게.

브라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납치된 경험이 있군요. 다른 사람도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회색인들은 이 사람의 태아기 때 관련되었군요. 신호에 따라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구로 보이는 해변가예요. 회색인들이 태아를 자궁 속에 넣고 있어요. 흐음, 이들은 다른 회색인에 비해 원시적이군요. 태아를 물리적으로 자궁에 이식했는데, 첨단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머지않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술이에요.

이 회색인들은 진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인간과 교류하는 데 좀 서툴러요. 의도적인 것도 아니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인간다운 연민이 부족한 거죠.

감독 DNA의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흐름,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구조가 실험 대상인 것 같군요. 거의 모든 DNA는 인간의 것이고 일부분만 아니에요. 그건 회색인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 회색인들이 내가 활동하는 걸 알았어요. 날 알아차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다니 특이하군요.

회색인들은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약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유전자가 꼭 회색인 것은 아니에요. 유전자는 어떤 다른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 변화들은 아주 작으면서도 특정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가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곧 목격해 왔던 유전 프로그램과 같은 거지만 더 원시적인 수준이고 초기인 것 같군요.

감독 다른 무리의 회색인들이 있다는 건가?

브라운 소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달라요. 이 집단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에요. 미세한 유전적 변화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인간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변화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텔레파시적인 의사 소통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군요.

감독 왜 그런 일을 하는 건가?

브라운 인간의 유전자형을 수정하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회색인의 새로운 매체를 생산하기 위해섭니다. 몸이란 말보다 '매체'라

는 게 더 적절해요. 회색인들이 인간의 유전자로 자기들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것처럼, 거대한 인간 텔레파시 통신망을 설치하는 거랄까. 이게 최우선 목표인 것 같네요.

감독 좋아, 이만 마치지. 타깃은 '회색인과 인간, 출생, 출생 전 연결' 이네.

브라운 뭐라고요? 그런 타깃이 어디 있어요?

감독 자네를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해 두었지.

토의

이번 데이터는 피랍 현상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다른 피랍 경우와 달리 그다지 관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회색인들이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악의는 혼동되기 쉬운 것이다. 피랍자들은 회색인과의 교류를 불쾌하게만 느낄지도 모르고, 그 구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관도 없을지 모른다. 일부 회색인이 인간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는 원인은 회색인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서적으로 복잡한 인간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그들은 우리가 실험에 사용되기 위해 사로잡힌 실험용 동물을 연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투시된 회색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융통성이 부족한 것을 보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들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은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는 개념이 회색인에게는 생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데이터에서 두 번째로 흥미로운 요소는, 인간과 교류하는 회색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을 원시적인 회색인, 진보된 회색인, 고도로 진화된 회색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도로 진화된 회색인은 아직 관찰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게 된다.) 이번에 투기한 회색인들은 원시적인 것 같지만, 회색인 문명이 붕괴하기 전 존재했던 아주 초기의 회색인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행성에 살았던 초기 회색인들은 전혀 인간과 교류하지 않았다.

세 타입의 회색인들은 모두 상호간에 교류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 손쉽게 우주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다룰 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존재들이 어떻게 만나고 교류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골치아픈 일이다. 진보한 기술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고 결국은 교류 방법을 찾아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은하계의 다양한 생명체에 대해 아직 인류가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절실히 깨달으며 이 시간을 마쳤다. 우리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회에 대해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과 문명이 시간을 넘어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담과 이브

앞에서 나는 미드웨어를 타깃으로 한 투시에 대해 기록했다. 군의 원거리투시 작전에서는 다소 장난스럽게 미드웨어를 타깃으로 했다. 누군가 부분공간 생명체의 조직에 관해 제시한 『우란티아』를 읽고, 테스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 책에서 미드웨어는 지구에서 활동하는 부분공간의 존재라고 했다. 이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군에서도 몰랐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4종 조건에서 반복해서 투시한 결과 얻어낸 정보들이 일치했다. 이 부분공간의 존재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존재의 발견은 고위급 군관계자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진화하도록 돕고 싶어하는 우호적인 이들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훈련된 원거리투시자들이 격납고 안의 미사일의 숫자들을 셀 수 있다는 사실을 장성들에게 확신시키기 어려웠다.

내가 『우란티아』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책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인지는 모른다. 정확한 정보와 잘못되고 조작된 정보가 뒤섞여 있으며, 광범위한 원거리투시 탐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의 분리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은 원거리투시 데이터에(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의하면 거짓 수단을 동원하여 전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에 대한 '우란티아'의 토론은 외계인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이 유명한 한 쌍을 타깃 목록에 덧붙이기로 결정했다. 만약 아담과 이브에 관한 그 책 내용이 옳다면 인류의 진화에 대한 외계인의 오랜 역할이 상당 부분 설명될 것이며, 따라서 이 타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감독된 투시의 횡수는 한정되어 있어 거짓된 이야기를 알아보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많은 위험 부담을 안았다. 그러나 '우란티아'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아담과 이브를 타깃으로 하는 두 번의 투시에 대해 보고하겠다. 한 번은 제4종 조건하에 행해졌고, 또 한번은 제1종 조건하에서 행해졌다. 제1종 조건에서의 두 번째 투시는 이전의 데이터에 의해 생겨난 의문들을 풀기 위한 것이다.

외계인의 문명에 관한 책에서 아담과 이브라는 종교적인 인물이 왜 연구 대상이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타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류의 많은 신화들이 실제로 역사를 근거를 두었다는 가설에 있다. 신화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초기 문명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의미를 신화가 잠재적으로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거리투시를 사용하여 이 신화들을 조사하면 과거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내려온 과거에 대한 이야기 사이의 미묘한 연결을 해명할 수 있다. '우란티

아'는 바로 그러한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많은 학술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인류 진화의 비약에 대한 의문을 이러한 신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기를 내심 바랐다.

'우란티아'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거나,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의문을 갖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날짜 1994년 7월 14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5328/6080

3단계 스케치까지의 예비 단계는 어떤 산 근처의 숲을 나타내고 있다. 산 위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물이 있었다.

브라운 폭발적인 에너지와 관련 있는 어떤 구조물이 보입니다. 빠르고 원형이군요. 위에서 아래로 곡선을 그리며 좀 이상한 궤도로 움직입니다. 부분적으로 숲으로 덮여 있는, 산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전나무가 보이는군요. 또 이 장소가 '뉴 멕시코의 산타페볼디 근방'이라는 AOL/S가 됩니다.

물체는 인공 구조물인데 단단하고 아주 정밀하군요. 전망창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구조물 안에 어떤 존재들이, 조종사들이 보여요.

희색인은 아니군요. 잠깐! 화성인도 아니고. 인간 같은데, 현대 인간은 아니에요.

감독 성별을 알아보게.

브라운 유니폼을 입은 남녀예요. '진보된 인간들'이라고 AOL/S

로 기록할게요. 미래에서 온 인간들로 보이는군요.

감독 그들의 목적을 알아보게.

브라운 관찰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어요.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거나 관계하지 않는군요. 그들은 연맹에 직접 보고합니다. 내가 투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감독 비행선에 관해선 또 뭐가 보이냐?

브라운 비행선엔 비행 장치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유일한 의료 기구가 있는데 긴급 사태에 쓰기 위한 거예요.

감독 비행선을 조종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게. 그들이 누구고 어떻게 사는지 정보를 수집하게.

브라운 진보된 인간이지만 현대 인간보다 그다지 많이 진보된 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로 보이는군요. 비행선 바닥에 식량을 채워 놓았어요. 주로 채소를 취하는데 우주 농장이나 창고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식량을 얻는 데 문제가 있군요. 질병과 활동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감독은 6단계로 가라고 지시하고, 거기서 이 사건의 시간대를 알아냈다. 현재 투시를 하는 시간과 이 타깃 시간은 아주 가깝다. 나는 이 존재들에 관하여 시간의 개념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우주선으로 자유롭게 시간 여행을 하지는 못해요. 시간상으로 능숙하게 이동할 수 있는 회색인 같지는 않군요. 그래도 비행선에 있는 이 사람들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구를 방문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회색인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감독 그들이 언제 처음 방문했나 알아보게.

브라운 잠깐. 와! 이건 AI입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강한 AOL/S가 되는데요. 이 존재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전에 유전 프로그램으로 지구에서 활발히 일했던 이들 같은

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에요.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있는데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지구 프로젝트에 몰두해 왔군요.

감독 그들의 최초 지구 방문에 대해 알아보게.

브라운 처음엔 금방 교육을 마친 상태라 세련되지 않았어요. 경험은 좀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군요. 신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거의 진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과학자나 기술자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 마음이 특정한 커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라는 매우 강한 AOL/S를 하게 되요. 너무 강력한 느낌이 와서 투시를 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 괜찮네, 끝내도 좋아. 타깃은 '아담과 이브' 였네.

몇 달 후, 여전히 나는 아담과 이브가 지구에서 한 활동에 관해 좀더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따라서 '아담과 이브, 초기 지구상의 활동'을 목표로 제1종 조건에서 단독 투시를 했다.

날짜 1994년 9월 16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1종

타깃좌표 6957/4096

예비 단계는 타깃이 현재부터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고, 육지와 인공 구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꽤 더웠고 인간과 유기체의 냄새가 났다.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예비 단계에 기초하여 확장하고 건조한 기후라는 것을 알았다. 환경은 중등, 지중해인 듯했다. 희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

투시 목표지 근방에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원이 있었다. 일종의 '핵발전소'로 AOL됐다.

이런 응축된 에너지원 근방에 있는 존재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이 곧 노예 수용소이며 압제를 받고 있다고 AOL/S했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고, 그후에도 이 AOL은 다시 오지 않았다.

그 주변에는 작은 규모의 기계와 돌 그리고 빌딩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았지만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 긴장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 했고 곧 이 타깃과 관계있는 비물질적이면서도 밝은빛을 발하는 존재를 느꼈다. 군사 지도자 같았는데 주위에 다른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빙 둘러 있었다.

이 지도자는 그들의 분열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나는 전쟁이라는 AOL/S를 받았다. 열띤 논쟁이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랐다.

이 행성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지에 있었다. 한쪽 진영의 존재들은 자치를 원했으며 멀리 떨어진 정부를 무시했다. 두 개의 캠프가 형성됐다. 소수만 남은 다른 진영은 정부에 충성하였고, 반대편과의 대결에서 매우 용감히 싸웠다. 양측은 냉전 상태로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타깃부터 3피트 떨어진 곳으로 위치 이동을 했는데, 해변처럼 보이는 곳에 와 있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저 멀리에는 유쾌해 보이는 진보된 다른 존재들이 다수 있었다.

내 마음을 그 남자의 마음속으로 이동시켰다. 그는 고독했지만 사랑하고 있었다. 풋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이었다. 여자의 마음에서 그녀가 일종의 관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남편에게는 아주 헌신적이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승진이 빠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부분공간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는 현재의 평화를 깨려는 무리가 있었다. 권력 구조를 살펴보니 마치 군대조직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루시퍼 반란'이라는 강한 AOL/S를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지 않았지만 이 장소가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으며, 이 반역은 기회주의적인 반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해변의 남녀에게로 초점을 바꾸어, 그들이 높은 교육을 받고 안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호를 따라 가서 그들이 이 지역 인간류 존재들과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주로 종족을 보존하고 짝짓는 행위 등에 관련된 주제를 가르쳤다. 또한 성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종족 보존과 관련된 기술들을 가르쳤는데 선생으로서 그들의 의도는 악의가 없다는 의미에서 선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능동성과 수동성의 양면을 가진 '종족 선택'이라는 불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들의 목적에 집중하니 새롭고 독특한 인종을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들의 유전자를 주입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과도한 진화를 조절하는 선에서 몇 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이와 자연 선택을 단 한 번에 이루려고 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데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출발부터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으며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불안정한 노력이었다. 프로젝트는 개인의 충성과 상식에 너무 많이 의지했다. 이들은 너무 의지에 떨어져 있었으며, 지적으로 방황했던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에 집중하니, 이 존재들이 신의 놀이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들은 신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진화된 존재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프로젝트에는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있었다. 어쨌든 문제는 프로젝트가 유래한 본류 사회의 계획 결함에 기인했다. 진화를 서두른다는 생각 밑에 깔려 있는 동기가 잘못이었다. 이것은 사회 의식에 문제점을 야기했고, 우월한 존재를 빨리 만들어 내려는 압박감은 그들 몇몇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박 관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몇몇은 더 우월한 존재를 이룩하는 진화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병적이고 변태적으로 바뀌어 갔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의 '선(善)'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른 종족의 진화 과정을 자신과 같게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진화의 최종 단계로 보고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멀리 있는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소수 일원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그 반란은 얼마 가지 못했다.

토의

아담과 이브는 지구의 인간을 위한 유전자 향상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관리자였다. 그들은 숲속을 돌아다녔던 벌거벗은 열간 이가 아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화는, 천부적 투시력은 있지만 자신의 지적 범위 안에서 이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없었던 예

인자의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커플은 인간의 시조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종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연관되었기에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담과 이브는 오늘날도 물리적으로나 부분공간의 의미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추측컨대 그들은 연맹의 규칙 때문에 회색인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현재 유전적 궤도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육체가 오래 전과 같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육체가 크게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무언가 잘못돼 있다는 뚜렷한 느낌을 받았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간의 유전자 조정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더구나 이것이 진화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소위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구멍난 진화punctuated evolution'의 주원인일 수도 있다. 이 불확실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거리투시와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루 데브

연구 초기에 감독과 나는 이 프로젝트에 단순히 비행접시를 누가 조종하는지에 대한 조사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했다. 1994년 여름까지 우리는 피랍 현상에 대해 원거리투시로 증거를 얻었고, 회색인의 유전 프로그램과 화성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꽤 많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더 큰 차원의 무엇이 있다고 느끼면서, 몇몇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예수와 그 밖의 현자들을 타깃으로 포함시킨다는 실험적인 결정을 많은 토론을 통해 확고히 했다. 이번 장은 그런 사람 중 하나를 타깃으로 삼은 결과이며, 제1종 조건하에서 한 단독 투시이다.

구루 데브는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명상 스승이었다. 원거리투시를 연구한 여러 달 동안 나는 구루 데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뚜렷이 느끼고 있었다. 다른 원거리투시자들은 '사제

단'이라 이름붙인 화성인들을 관찰해 왔다. 이 화성인들은 육체가 탈 여행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졌는데, 감독은 그들이 시디를 했다고 생각했다.

화성인 사제단은 연구 목록 중에 있었고, 언젠가 이 타깃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가기보다는 미리 약간의 정보를 얻고 싶었다. 그들이 시디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1994년 여름 어느 날 아침 미시건의 앤아버에서, 구루 데브를 투시했다. 단독 투시기 때문에 서술적으로 기록하고, SRV 기법의 특수 용어들을 거의 쓰지 않았다.

날짜 1994년 7월 24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1종
타깃좌표 3745/4021

예비 단계는 에너지장과 땅 그리고 인공적인 무언가를 나타냈다.

처음으로 감지한 것은 푸른색과 흰색, 갈색이었다. 공기의 느낌도 받았다. SRV에서 흔히 그렇듯이 어떻게 구루 데브에게 가야 할지, 또 어떤 환경에서 그를 발견하게 될지 몰랐다. SRV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무의식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 의식은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뿐이다.

기온은 쾌적했다. 나는 달콤한 맛과 '간다르바'라고 불리는 인디언 음악 같은 소리를 식별하기 시작했다. 부분공간의 '공기'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마치 구루 데브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 향연을 준비하는 것 같은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깔깔대고 웃었다.

SRV 절차를 진행하면서, 물리적이라기보다는 부분공간적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형은 동아프리카 바닷가의 해안처럼 경사와 작은 만들로 불규칙하게 형성되었는데 물은 없었다. 저 높은 곳에 하늘이 보였다.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빛나는 한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타깃임을 감지하고 다가갔다. 그 존재가 구루 데브이며 나를 기다렸다는 것이 느껴졌다.

구루 데브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유심히 주변 환경을 관찰했다. 상당히 울긋불긋했고 조금 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편안했는데, 물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부분공간으로 보이는 이런 곳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아직까지도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구루 데브로 다시 주의를 돌려 그가 흰옷을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옷 색깔이 전체적으로 흰 것은 아니었다. 그 옷은 여러 가지 빛나는 색깔로 이루어졌다. 나는 텔레파시로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고 계속하라고 했다.

과학적 원거리투시법의 범위에서 화성인에게 사제단이 있는지 물었다. '그렇다'는 명확한 반응이었다. 그때 사제단이 시디를 하는지 물었는데,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곧이어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는지 물었다. 그는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다시 구루 데브에게 연맹의회 의원들이 시디를 하는지 물었다. 그가 약간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들이 시디와 관련된 것을 했지만 정확히 시디는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과 경험에 적합한 것을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시디가 연맹의회에 보낼 인간 대표단을 위한 외교 과정에 도움이 될지 물었다. 이 질문 후에 그는 가장 강한 반응을 보

였다. 구루 데브는 힘주어 그렇다고 했다.

실지로, 시디는 인간이 연맹의회 의원들과 교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구루 데브는 연맹의회 의원들의 유형에 관해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정신 세계에 익숙한 인간만이 인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나는 그냥 아무 인간이나 본부에 보내 연맹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것은 미국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모스크바에 대사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러시아인들은 도대체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인간은 정신 세계의 발달에 활발히 관여하는 대표자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숙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인간 대표가 전체 지구인을 잘 대변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연맹의회와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표단이 과학적 원거리투시를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물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의사 소통의 방법은 아니며, 인간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고 그에게 할말이 있냐고 물었다. 그도 나를 바라보았는데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저 조용히, 지극히 조용할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투시를 끝냈다.

토의

이번 투시에 따라, 연맹에서 인간을 대표할 외교관들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과정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인간은 아직 연맹의 완전한 구성원은 아니지만, 잘 훈련된 외교관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곧 대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고안한 은하의 외교관 훈련 코스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번 장을 위해서는 감독도 나도 자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오랫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진화의 최종 종착역에 대한 관심은 늘 우리를 따라다녔다. 게다가 종교적인 주제들은 단순히 외계 개념들로 생각했던 것들과 계속 겹쳤다.

감독은 신을 타깃으로 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훨씬 더 대담해졌고, 타깃이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좌표 번호만을 내게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신의 개념은 너무 거대해서, 무의식은 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은유와 예를 통해서만 의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신은 고급스러운 궁전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는 확실히 아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다른 원거리투시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신을 투시하게 되고, 이

노력의 결과로 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정도이다.

날짜 1994년 7월 27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3590/6110

예비 단계는 이 복잡한 타깃이 인공 구조물과 액체와 연관되어 있다
고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 황갈색, 파란색과 흰색이 보여요. 철벽거리면서 또
거칠고 질척질척하고 부드러운 것이 있군요. 기온은 따뜻하고 맞
은... 짜군요.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맵고 연기같이...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물 가까이 있는 한 구조물을 스캐치했다.

감독 4단계로 가게. 그는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브라운 알았어요. 한 회색인을 보고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조금 이례적인 것이 있군요. 이 회색인들은 초기의 회색인으로 보
이네요. 눈은 조금 작고 얼굴은 약간 얇았어요. 생식기가 있군요.
일하고 있습니다.

와! 금방 어떤 감정을 읽었어요. 그들은 희망이 없군요.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뿐이에요. 그들에게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져요.
'하늘이 무너지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세계가 멸망
한다는 그런 인식 말이에요. 이곳에 큰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게
확실해요.

이런, 이 존재들에게 연민이 느껴지는데요. AI로 적고 계속합니
다.

와, 마치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행성의 생태계와 대처 능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요. 분쟁이 만연합니다. 맞아요, 전쟁 중이에요. 인간의 전쟁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쟁이에요.

가족과 씨족을 토대로 한 사회 조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세균 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방금 시간을 건너뛰었어요. 미래로 갔는데 이유는 모르겠군요. 계속합니다.

지금 난 불모지에 있어요. 가까이 물이 좀 있지만 모두 죽어 있군요. 육지 표면에 있습니다. 회색인들이 행성 표면 위에서 사라졌군요. 지금 여기엔 지하실들이 있어요. 회색인들이 지하로 옮겼군요. 싸움은 끝났고, 적대 관계에 있는 편들이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회색인들은 오랜 시기를 지하에서 보내고 있어요. 굉장한 속도로 과학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행성 전체를 옮기려고 하는군요.

와, 이 존재들은 굉장히 지쳐 있는데요. 자기들 문명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자기들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이들이 유전자 구조를 수정하기 시작했던 때가 지금이군요.

이들은 물리적인 에너지와 부분공간의 에너지를 조작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니고 있어요. 또 부분공간 이동 수단을 거의 확보했고요. 자신들의 상황과 세계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탈출할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지하에서 빛을 보고 싶은 엄청난 욕망을 갖고 있어요. 저 아래엔 자연의 빛이 없어서, 과학자들이 '내부의 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분공간상의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문명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문명이 존재하는 새로운 우주를 발견

했어요. 다른 차원으로 탈출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과거의 문제들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문제가 그들의 존재 양태에 기인한 거고, 다른 차원으로 이주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들이 부분공간 천국으로 가버리기 원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뭐지? 투시 중에 불쑥 들어오곤 했던 바로 그 원로 회색인이 지금 나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투시에서는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군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들의 이주 결과를 알아보는 중인데... 처음에는 좋았군요. 그들이 생각처럼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화에 큰 성과가 있군요. 하지만 막다른 길에 있어요. 한쪽 팔이나 다리만 단련하는 육상선수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른 쪽 기능은 퇴화하는 거죠.

이 존재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군요. 자기들에게 결핍된 행복과 완전성을 진화된 다른 존재들에게서 발견하고 있어요. 그들의 과거를 향한 길고 위험한(그들의 관점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를 두려워해요. 진화의 쳇바퀴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유전 프로젝트는 길고 긴 이주의 새로운 탈출로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교할 만한 느낌이에요.

지금 '인종과 운명'이라는 개념으로 이동합니다. 1초 후. 방금 시간이 앞으로 크게 건너뛰었어요. 어! 이게 뭐지?

잠깐!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이야! 사방에서 AI를 받고 있어요. 정말 놀랍군. 이 미래의 회색인은 인간과 닮았는데, 내가 봤

던 인간들과는 달라요.

텔레파시가 있어요. 뭔가 더 있는데… 사랑하는 걸 배웠군요. 그들이 유전 프로젝트에서 강조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이거예요. 이 존재에게는 사랑이 충만해요. 전기 화학적인 기계들이 지금 이런 욕구를 채워주는군요.

‘예수’라는 AOL이 됩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세계 말이에요. 예수를 투신했을 때는 명령이나 권위감을 가졌는데, 이 회색인들은 그런 부가적인 요소없이 사랑만 갖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곳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전강하고 여성이 출산을 하는군요(유리병에서의 출생이 아닌). 이들은 아주 진화했고 영적으로 연합돼 있어요.

감독 좋아, 커트니. 이제 끝내도 좋네. 자네가 투시한 내용 중에서 가장 멋진 내용이었네. 아주 물 흐르듯 훌륭했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브라운 솔직히, 아주 재미있군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타깃이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타깃 목록에 있던 건 아닌데 뭐였어요?

감독 메릴랜드 포트 미드에 있는 하수 처리장일세.

브라운 장난 마시고… 정말 뭐였어요?

감독 신일세.

브라운 뭐라고요?

감독 신, 그게 타깃이었네.

토의

신은 많은 측면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의 방식에서 신의 부분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신 의식’을 향해 열

마나 진화했는가에 따라 신의 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은 높은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문자 그대로 진화하는 생명과 모든 것 안에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신이 자신의 실체로부터 물질과 생명을 창조하고, 그 피조물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다는 데서 기쁨을 경험한다. 이번 투시에서 신은 창조의 첫순간에 어떻게 자신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는다.

신의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성인 것 같다. 그 지성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의식일 수 있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나 우주 별의 생성과 같이 자연스러운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 지성은 살아 생각하는 존재들의 형태를 띠며 나타난다. 일단 그렇게 되면 살아 있는 존재들은 자아를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근원과 재결합하기를 갈구한다.

이상한 것은 이 존재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문자 그대로 근원의 실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화가 덜 된 존재들은,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각력을 지닌 이 존재들의 진화는 결국 신의 근원과 자아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능력에 따라 정의된다. 관계를 발견하고 나면 사랑은 실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든 것이 같은 근본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어쨌든 신의 본질은 사랑이며, 이것이 우주를 지탱한다. 하지만 고도로 진화된 존재만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이 어떻게 우주를 지탱하는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상적인 정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을 투시해 보면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아주 원

시적인 것 같다. (느낌을 적절히 묘사할 다른 말을 찾지 못하겠다.) 진보된 존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감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랑은 명확한 사고와 효과적인 행위이다. 정말 부러운 것은 그들의 삶이 매우 평온하다는 것이다.

사랑은 즐거운 것이므로 우리가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실존에 대한 내 짧은 생각으로는, 왜 신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로서 증오 같은 다른 정서를 가질 수 없었는지에 대해 궁금했는데, 만약 사랑이 아니었다면 종족 전체가 파멸로 향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사랑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짐작가는 것이 있다.

신은 창조를 통해 현존을 경험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은 신의 실체로 구성되었으므로, 우리의 감정과 경험들은 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는 무한하게 커다란 몸의 세포들이고, 커다란 몸은 각각 모든 세포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건전하고 성숙한 넓은 의미에서 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희색인은 내가 소화해 내기 힘들 정도의 심오한 사랑에 지배되는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이 되었으며, 한 점으로 산화해 사라지지 않고 신과 더 가까운 신의 한 부분으로 계속 번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로부터 나는 신이 이러한 존재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자신을 최초의 형태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히려 신의 계획은 그의 분신인 여러 종족이 우주 곳곳에서 존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또한 진화의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모든 것이 신의 현시라면, 왜 신이 자신의 존재 확장을 중단하려 하겠는가? 신이 영원히 사랑하는 온갖 피조물을 통해 계

속 확장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물론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내 원거리투시의 관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극도로 진보된 존재들은 신에게 모든 것을 멸망시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은 알아낼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한 혼란과 함께 신의 계획에 맞서 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우주 차원의 자살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어디에서고 찾을 수 없다. 나는 항상하기 위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을 본다.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한 진보된 존재를 보았고, 그들이 당황하고 멸망에 대한 공포로 떠는 것은 보지 못했다.

신은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둘 생각이다. 이것이 나의 관찰에 근거한 해석적인 추측이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현시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우주의 다른 진보된 종족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원시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 향하고 있으며, 생사를 건 투쟁은 우리가 각자의 근본을 돌아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출발점인 신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신에 대해 이 이상은 모른다. 앞으로 신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신의 신비가 무한하기 바란다. 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면, 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느낀다면, 무슨 목적으로 내가 계속 존재하겠는가? 하지만 요즘의 나는 내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화성인 사제단

오래 전 군의 원거리투시자들이 처음으로 '붉은 행성'에서 지구까지 화성인 우주선의 궤도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화성인 사회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그룹을 알게 됐다. 그들은 의사나 주술가처럼 보였다. 화성인들에게 대단히 존경받았고, 자기들과 같은 존재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정신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군당국자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결국 나는 원거리투시자들 사이에 화성인 사제단으로 알려진 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을 투시하였다. (그들이 시디를 하지 않았다고 구루 데브가 이미 말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번 투시는 제4종 조건하에 감독되었다.

날짜 1994년 7월 27일

장소 미시건 주, 앤 아버
데이터 제1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8711/3454

예비 단계는 건조한 땅과 인공 구조물을 암시했다.

브라운 황갈색과 붉은색, 갈색이 보입니다. 모래로 덮여 있고 바위가 많아 보입니다. 정말 굉장히 추워요. 화성 같은데요. 이건 AOL입니다.

지금 3단계 스케치 중입니다. 낮은 언덕들이 있고 앞쪽과 오른쪽으로는 지반이 약간 침하되어 있고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어떤 수로가 있습니다. 강바닥이나 뭐 그런 거겠죠. 물이 있는지 조사해 볼까요?

감독 그냥 4단계로 가게.

브라운 알았어요. 지금 난 매트릭스 상에 있어요. 여기엔 바위가 많군요, 붉은 바위요. 험준한 산과 비교한다면 평평한 지역입니다. 이곳엔 공기가 없어요. 황폐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표면... 아주 가혹한 환경이군요. 사실, 지금 공기가 좀 느껴지는데 아주 희박하고 건조해요.

이 장소는 배낭족들의 천국같이 아주 아름답다고 장중하다는 걸 덧붙여야겠어요.

지금 존재들이 포착됩니다. 회색인들은 아니군요. 여긴 정말 화성 같아요. 이 존재들을 AOL/S 데이터로 '화성인'이라 기록합니다. 남자와 여자들인데 아주 마르고 가냘프며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조금 있군요. 지금 그들의 위치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잠깐만, 그들은 방에 있군요. 난 지금 그중 한곳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그다지 현대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있지만 상당히 빈

약한 생활 공간입니다. 살펴보는 중인데, 잠깐! 이 방들은 지하에 있는데요. 이제 어찌죠?

감독 '지도 체제'란 개념에 집중해 보게.

브라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들은 원시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군요. 미국 선거처럼 대규모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없어요. 부족 계급인 것 같아요. 원로들은 존경받으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자유분방한 민주주의를 할 만큼 주변 여건이 호의적이진 못하군요. 계급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예요. 사회적인 권위는 경험과 몇몇 원로의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독 '종교'란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여기서 승배를 해요. 그것이 이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에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것을 필요로 해요. 원로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전통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에서 말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군요.

지금 난 '종교적 지도력'이란 개념으로 이끌리고 있어요. 그들은 사제와 비슷합니다. 그들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군요. 그들이 심벌과 마술을 사용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주에는 물리적인 현상 이외에도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 어렵듯이나마 확신하고 있군요. 그들이 어딘가 이란의 물라(회교의 율법학자-역주)와 비슷한데 특히 그들의 내부 구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진화된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무당 같아요.

그들의 마술을 쫓고 있어요. 잠깐, 토렘이나 페티시가 있군요. 맞아요, 이걸 서아프리카 페티시에요. 그들은 육체 이탈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신앙심을 강화하는 듯하네요. 그중 하나가 내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감독 '종교 지도자' 들의 위치를 탐색하게.

브라운 은밀하게 사방에 퍼져 있어요. 마치 무슨 감시 장치같이 행동하는군요.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자신들의 정보 체계를 이용하여 엮담하는군요.

참 이상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알아봐야겠어요. 잠깐... 이 사회에는 두 계층이 있군요. 종교 지도자들은 낮은 계층 사이에 힘이 있어요. 현재로는 대중을 위한 별다른 신앙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와 지식 계급이 그들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구에도 와 있군요. 잠깐, 이거 재미있는데... 그들은 지구로의 이주를 중대한 권력 투쟁으로 여겨요. 당장 화성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도 아닌데, 화성에서 지구로 이주하는 동안의 투쟁이군요. 지구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릴지도 모르는데요.

화성 전통을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에요. 그들은 권력뿐만 아니라 그들을 화성인으로 만드는, 적어도 보통 인간과는 다르게 만들어 주는, 그들의 전통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감독 일반 사제의 육체 이탈 현상에 대해 좀더 알아보게.

브라운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줘요... 그들이 모여 있군요. 별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세계와 부분공간상의 정신 세계 모두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사제들은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의사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정신 세계가 그들의 중요한 의사 소통 수단이에요. 육체 이탈은 사제단을 결속하고 그들의 전통에 대한 대중의 경외감을 유지시키는 데 이용하며 또 인간과 그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역할도 해요. 이런 능력이 자기 종족이 앞섰다는

징표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 대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아는군요.

감독 지도자의 심벌은 뭐가?

브라운 지금 보고 있어요. 스케치할게요. 기묘한데요. 오래 전에 화성인을 구조하러 왔던 회색인의 유니폼에 있던 것과 같은 심벌인데 어떻게 그걸 구했는지 궁금하군요.

감독 '인간과 화성인의 만남'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화성인 사제단은 좀 원시적이에요.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그들은 이 행성에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화성인들을 분리해내고 싶어해요. 자기들과 상관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못마땅해 해요.

아, 뭔가 다른 게 보이는데요. 곧 회의가 있을 텐데, 사제단이 아니라 관료, 지식 계급과의 회의군요. 그 계급은 우리가 사제들과 교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화성인이 교류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사제단과 접촉하는 건 화성인이 UN 대신에 교황과 접촉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감독 좋아, 커트니. 잘했네. 마치게.

브라운 그런데 타깃은?

감독 '화성인 사제단' 일세.

브라운 그렇군요.

토의

이번 투시는 분야를 망라하고, 원거리투시자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 첫째로 화성인 사제단은 화성인 사회의 공적인 정부 조직이 아니다. 사제단과 관료 계급간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지만,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제단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임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이 시점에서 두 주류의 조직 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정보만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중은 두 개의 다른 계층이 있으며, 사제들은 낮은 계층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다. 두 계층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부가 기준은 아닌 듯하고 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교육 수준이 아닌가 추측했지만, 그들이 결국(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구로 이주를 준비하며 모든 사람들을 계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의 모든 일원에게 동등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로스웰 사건

방송 매체들은 오랫동안, 1947년 뉴멕시코 로스웰 근처에서 비행접시가 추락했으며, 미군이 외계인을 생포했을 거라고 암시해 왔다. 적어도 한 외계인은 장기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으며, 비행선은 분석을 위해 연구실로 운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군에 있는 동안, 감독은 로스웰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외계인의 시체나 우주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멕시코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몇몇 군인들은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점이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군의 원거리투시자들이 로스웰 사건을 목표물로 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 팀이 그 사건을 투시했을 때, 낮게 선회하는 비행선이 아니라 가벼운 구체

를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외계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루되어 있다는 '분위기'를 탐지했다.

피랍에 관련된 난관을 극복함에 따라, 감독과 나는 길다란 타깃 목록에 로스웰 사건을 덧붙이기로 결정했다. 만약 외계인들이 피랍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면, 다른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거라는 논리에서였다.

날짜 1994년 7월28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7633/4128

예비 단계는 타깃이 평평하고 건조한 땅과 인공 구조물임을 암시했다.

브라운 대부분이 황갈색과 갈색이군요. 모래와 나무와 바람, 그런 느낌이에요. 기온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정말 아름답군요. 3단계에서 이 장소를 스케치할게요. 감독은 나를 타깃에서 5백 피트 위쪽으로 이동하게 했다.

여긴 모래와 바위투성이에 상당히 건조하고 좀 덥군요. 3단계 스케치를 다시 할게요.

나는 상공에서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구조물과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구조물을 스케치한다. 주목할 만한 지형적인 특색도 스케치한다. 감독은 상공에 있는 구조물 안으로 위치 이동하게 한다.

여긴 검은색과 회색에 윤이 나면서 투명하고 매끄러운 질감이군요. 목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바쁘게 느껴져요. 좁은 지역에 밀집해서 뻘뻘한데요.

감독이 SRV 기법의 4단계로 가라고 하기 전에 그 구조물 내부를 스케치했다.

흐음, 여기 방이 몇 개 있군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게 확실해요. 작업 중인데 공포라고는 못하지만 거의 그런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로 보입니다. '로스웰 사건'이란 강한 AOL이 드는군요.

감독 투시 절차를 따르게. AOL로 매트릭스에 기록하고 계속하게.

브라운 음, 존재들이 넷 있군요. 지금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계들이 망가졌군요. 회색인이고 로스웰 사건이라는 AOL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 시점에서 내 무의식은 타깃이 로스웰 사건임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투시를 계속 진행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동시현시되었으므로 데이터클 오염시킵 위험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확실한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독 로스웰 사건이 맞네. 투시 절차에 따르게. 빨리 4단계로 가거나. 우주선 내부 스케치를 매트릭스에 기록하고.

브라운 하는 중이에요. 가능한 빠르게 스케치하는 동안 감독은 잠시 침묵하고 있다.

비행접시가 궤도를 벗어나 움직이고 있어요. 통제하지 못하고 있군요.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규칙이 문제로군요.

감독 매트릭스에 써넣고 6단계로 이동하게. 작업표 중앙에 지름 1인치의 작은 원을 그리고 출발점이라 기록하게. 그리고 나서 목적지로 화살표를 그리게. 모든 걸 기록하게.

브라운 지금 하는 중이에요. 기점을 조사하고 있어요. 바위가 많은 장소군요. 다시 강한 AOL/M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달이군요. 지금 올려다보고 있어요. 하늘에 지구가 보이는군요. 지금

목적지로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지구가 행선지라는 것뿐이에요.

감독 어떤 목적을 띤 임무인지 알아보게.

브라운 잠깐! 이상하네. 추락하는 게 임무 같은데요. 행선지는 지구이고, 목적은 추락해서 인간이 외계인 탐사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렵군.

감독 분석하지 말고, '믿기 어렵다'고 AI란에 써넣게나. 계속하게.

브라운 첫째, 외계인은 신체를 갖고 있고 둘째, 상처입기 쉬우며 셋째, 인간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넷째,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였어요.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추락할 것도 알았군요. 그렇지만 미래를 안다고 해서 지금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계는 정말 망가졌고, 공포에 사로잡힌 존재들은 추락해서 육신은 죽었어요.

감독 지금보다 약간 미래로 가서 보이는 걸 기록하게.

브라운 지금 땅 위에는 인간들이 보이는군요. 군인이에요. 이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추락한 비행선의 파편들을 전부 줍고 있어요. 상자와 자루 속에 넣고 있군요.

긴장이 감돕니다. 고관들이 다투어 사건의 파장을 억제하고 비밀에 부치려 해요. 사건을 은폐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군 고위급 인사들에게 알려지는군요. 대통령이 구두로 짧게 보고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독 6단계 작업표에 A, B, C 시점이 있는 시간선을 그리게. 그 존재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시점을 A로 표시하고, 충돌 시점을 B로, 지상에 잔해가 남아 있지 않은 시간을 C로 하게. 그리고 위치 이동을 하지. 그리고 나서 감독은 C 시점에서 타깃 위 1천 피트로 이동

하게 했다.

브라운 타는 냄새가 나요. 모터 소리도 들리고요. 지상 위로 이리저리 차들이 달리고 있군요. 군용차들이에요. 공중에는 외계인의 비행선의 한 대가 탐지됩니다. 이걸 모두 3단계에서 스케치하고 있어요.

비행선으로 이동합니다. 비행선의 존재들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해요. 그들은 두려움에 싸여 있어요. '야만인들'이 동료들을 데려가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토의

남은 시간에 감독은, 외계인들이 그 사건 시간을 조작했는지 모른다면 탐색하게 했다. 투시가 끝난 후 그는, 군이 비행선이 충돌했다는 물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외계인들이 미래를 미리 알고 사건이 발생하도록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 충돌을 막기 위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다.

실제로 투시했기 때문에 이 가설에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감독은 두 개의 시간선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건을 투시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사건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사는 동안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억하므로, 그럴 수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감독은 이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측면이 두 개의 시간선을 차례로 경험함으로써 그 사건을 기억했다고 했다. 명확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기시 체험(既視體

驗) 같다는 것이다.

여전히 그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외계인들이 시간을 가로질러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으니 그럴지도 모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외계인들이 죽은 동료들을 포함해서 충돌 잔해를 나중에 비밀리에 되찾아 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한밤중에 살짝 사람을 납치할 수 있다면, 어디에 숨겨져 있든지 간에 부서진 비행접시를 확실히 되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의문이 남아 있지만, 감독이나 나나 이 문제를 더 알아볼 계획은 없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을 원했던 것이다. 그 사건은 발생했다. 외계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로스웰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사실이다.

감독은 두 명의 다른 원거리투시자가 최근에 로스웰 사건을 투시했으며 내가 얻은 증거를 입증했다고 알려주었다. 어떻게 그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왜 물적 증거가 없는지는 우리도 아직 모른다.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하면 좀 하찮아 보였다. 어느 날엔가는 원거리투시 역사가들이 그 사건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기록할 거라고 확신한다. 원거리투시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외계인들이 이 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시간을 조작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로스웰 사건에 대한 후기

1994년 9월 18일자 『뉴욕 타임스』에 로스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그 기사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 대해 이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처음에 기상측정 기구가 충돌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었고, 사실은 모

글이라는 극비 방위 프로젝트에 이용된 다른 종류의 기구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프로젝트에 연관된 과학자들이 비행접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여러 해 동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마지못해 침묵했지만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다.

나는 모글이라는 방위 프로젝트가 전혀 존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특수 기구가 충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기구라 하더라도 외계인의 시체와 생존한 외계인이 있는 우주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인간과 비슷한 외계인과 기구의 잔해를 혼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의 미래 환경

때때로 외계인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인간의 환경 파괴가 주제로 떠오른다. 이것이 존 맥의 『납치Abduction』에서 외계인이 주는 정보의 요지였고, 내가 지구의 가까운 미래를 탐색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몇 해 전, 몇몇 원거리투시자들이 사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오존층 파괴의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진행 과정에서 투시자들은 식물의 생장 패턴이 급진적으로 변형되고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한 것을 목격했다. 또한 지구에 남아 있는 인구가 살 수 있는, 사막 같은 환경에 위치한 커다란 돔들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자금을 댄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어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감독과 내가 지구 환경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만을 얘기하겠

다. 다른 모든 제4종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번 투시에서도 타깃이 미래의 지구 생태계라는 말을 미리 듣지 않았다.

날짜 1994년 7월 28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6121/6026

예비 단계들은 움직임과 인공 구조물에 관계있는 타깃이라고 암시했다.

브라운 희고 검은 색깔이 보이는균요 포장도로 같은 질감이에요. 기온은 싸늘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맛인지 타르 같아요. 그리고 뭔가 타는 냄새와 소리가 들립니다. 첫인상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신속한 움직임이에요. '이 장소의 느낌이 어쩐지 안 좋다'는 AI로 써야겠군요. '죽음의 느낌' 이라 AOL했어요.

감독 3단계.

브라운 스케치하는 중이에요. 두 개의 화살표가 원형 혹은 타원형이며 평평한 쪽으로 세차게 하강하는 것이 보여요. '지구의 종말' 이라는 개념으로도 AOL되는군요.

감독 그건 AOL로 쓰고 4단계로 가게.

브라운 그러죠. 우선 3단계의 화살표를 탐사하고 있어요. 4단계 매트릭스에서 빛나고 빠른, 광택나는 회색의 강철 같은 것이 보입니다. 구조물 안에 존재들이 있군요.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데 지표에 굉장한 속도로 부딪쳤어요. 그래서 불타고 있고 고통과 불, 바위들이 있습니다. 존재들은 죽지 않았지만, 고통을 겪고 있군요.

감독 6단계로 가서 시간선을 그리게. 좌표에서 현재 시간을 알아

내고 자네가 보고 있는 사건의 시간을 알아보게. 점진적 측정 기법을 이용해서, 시간차를 측정하게.

브라운 긴 침묵.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90년쯤 후에 일어난다.

감독은 내게 현재 시간과 사건 발생 시간 사이에서 4분의 1 정도 미래로 이동하게 한다. 우리는 그 시점을 시간선에 A로 표시한다. 그는 내가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타깃 지점으로 다시 이동시킨다.

악취가 나는군요. 모든 게 이젠 달라졌어요. 정말 '로스엔젤레스'라는 강한 AOL을 하게 되요. 공해가 심하군요. 타는 냄새, 엔진 소리, 경적 소리, 도시의 소음들... 거미줄처럼 얽힌 평평하고 끝없는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낭비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감독 시간선의 중간점으로 더 나아가게. 이 시점을 B로 표시하게 나. 이 시점에서 자네가 보고 느끼는 걸 매트릭스에 기록하고.

브라운 흠 같은데 검은색이에요. 기온은 더운 편입니다. 타는 맛과 암모니아 맛이 나는군요. 지옥과 같이 지독하군요. 황폐하고 생명이라고는 탐지되지 않습니다. 죽어 있어요.

감독 시간선에서 A시점으로 돌아가 지구 변화의 주된 다섯 가지 원인에 집중하게. 가능한 빨리 실행하게. 속도를 유지하고.

브라운 알았어요, 첫번째 개념에 집중하는 중이에요. 로스엔젤레스로 AOL되고 지구에 있다는 뚜렷한 느낌이 드는군요. 많은 사람과 활동이 있고 소동이 있기까지 합니다. 도시, 아주 변화한 도시예요. 두 번째 개념으로 이동합니다. 그 체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요. 건강 문제들, 공해로 인한 질병들,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 세 번째 개념은 식량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할 곳과 식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정도를 넘어섰어요. 네 번째 개념으로 방사선이 문제예요. 동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군요.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해초, 플랑크톤, 물고기, 일반적

인 먹이사슬과 전체 성장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다섯 번째로 에너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더 악화될수록, 그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가 더욱 필요한데 말이예요. 인간이 자신 이외의 다른 생명을 소홀히 한다는 게 문젠데요. 곳곳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군요.

감독 시간선의 A시점에서 어떤 형태든 피난처가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보게.

브라운 즉시 새로운 신호로 빨려 들어간다. 베이지색과 시멘트의 질감, 시원하고 따뜻한 기온 그리고 웅웅거리는 소리... 규모로 말하면 사각에 모나고, 깊고, 속이 텅 비고 아주 커다랗군요.

그러고 나서 피난처에서 1천 피트 위로 이동했다. 이 시각에서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을 스케치한다. 그것은 깊은 지하로 뻗어 있고 여러 개의 터널로 연결되었다. 구조물에 뚜껑인지 덮개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SRV 단계의 항목별 기체 단계로 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이 구조물은 아주 복잡하군요. 새로 건설된 지하도시 같아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AOL/S로 『매드 맥스』 시나리오가 생각나는군요. 지금 그걸 적는 중이에요. 폭풍우와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아들이나 부족으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개인적인 반응도 탐지하고 있어요. 어떤지 그 계획을 싫어하는데요. 그건 AI로 쓸게요. 계속해서... 그 구조물에 누가 살 건지는 지도자들이 선택했군요. 구조물을 계획하고 거주자들을 선택하는 데 회색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전자 총체를 고려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피난처에 누가 살지 않을 인간들이 모두 결정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건디어 내

도록 방치됐구요.

이 시점에서 감독은 어떤 개인적인 일로 투시를 마쳐야 했다. 그는 타깃이 '지구 생태계의 중단기 미래'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미 타깃에 정확히 동시현시된 상태였고 연결될 필요가 있는 미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단독 투시를 결정했다. 이 타깃에 대한 나머지 데이터는 단독 조건에서 수집된 것이다.

나는 시간선의 A시점에서 발견했던 주거 단지로 돌아갔다. 탐색하면서 새로 건축된 것임을 알았다. 지역의 건설 뒤에는 선택된 인간들의 장기적인 생존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이것이 지도자가 통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AI가 생긴 부분이다. 지도자로 선택되는 것은 부와 영향력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의 충돌을 암시하는 화살표와 타원형의 스케치로 돌아갔다.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무의식이 그것을 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3단계 스케치에 나타난 타원형을 탐색하면서 방들이 탐지됐는데, 복잡한 명령실 같았다. 군사작전 센터라는 뚜렷한 인상을 받았다. 몇몇은 유니폼을 입고 있고, 무기와 대피소 같은 것이 있었다.

타원으로 향하는 두 개의 화살표를 탐색하면서 그 명령실과 충돌하는 우주선을 보았다. 우주선 안에는 절망적인 느낌이 있었다.

위기 시점으로 가서 나는, 주거단지의 시설은 낡았고 사람들은 행성 표면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타원을 향해 날아가던 화살표는 실패한 착륙 시도였지 공격은 아님이 판명됐다. 적대적인 느낌은 없었다. 충돌은 주거지의 꼭대기와 그 부근에 영향을 주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이들은 주거지에 있는 그룹의 일원들이었다.

시간선에서 충돌 시점은 (1994년 투시하는 시점으로부터 290년 후) 피난처의 거주자들에게 위급한 시기였다. 나는 '우주선이 착륙을 시도하기 전의 임무'에 집중했고, 우주선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관찰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양한 지표면의 상태, 대기권의 조건, 방사선의 정도 그리고 물의 순도 등을 순회 비행선이 측정했다. 미루어보건대, 그 충돌로 주거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약간 미래로 가 변하지 않은 주거지와 평범하게 일하는 거주자들을 확인했다.

토의

이번 투시는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 투시가 끝나고 30분 후 어느 정도 동시현시 상태로 쉬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하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이는 화성인과 회색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행성 표면으로 다시 나갈 때까지 우리와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갈 이들은 화성인이다.

진화하는 인류에 대한 내 견해에 이번 투시가 암시하는 바는 대단히 큰 것이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맞게 된다. SRV의 단계적 시간 측정법을 사용하여 시간선의 A시점이 대략 72년 후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2065년에는 피난처를 건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세기까지 이어져, 2150년에는 혼돈이 만연하거나 압박할 것이다.

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전쟁과 질병, 기아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구는 현재(그리고 가까운 미래)보다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지금부터 3백 년 후에 인간들이 지표면에서의 생물권을 재형성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올 것

이다. 원거리투시자들은 회색인들이 행성 곳곳에서 다량의, 아마도 완전한 생물학 샘플을 수집하는 모습을 관찰해 왔다. 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지구를 생명으로 덮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희망할 따름이다.

흥미로운 것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 인간들이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로버트 몬로는 (기시 체험 중에) 수천 년 후 지표면에 살지 않는 지구인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Monroe 1994, 1985).⁹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지하에 살면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원시적 자연 환경이 존재하는 지표면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이다. 아직 그렇게 미래까지는 투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다.

인간이 다른 생명의 가치 존중을 배우는 대가로서 그런 고초를 견뎌야만 한다고 한다. 이 점에 관해서 오해가 없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지구의 조건을 감안하면 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인류는 우리 세계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를 파괴하는 고난을 겪도록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인류가 개개인의 욕망을 뒤로 하고 개인과 우주를 연결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간이 더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동안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의식이 변화함으로써 모든 생명의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될,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떠오를 것이다.

연맹의 회색인

회색인은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정치학자인 나는 항상 어떤 개체들의 그룹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석한다. 통상적인 사회과학은 전화, 위원회 회의, 신문 그리고 라디오 등으로 의사 소통하는 존재들을 다룬다. 그런 상황의 통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사회는 국회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내고, 그 사회를 연구하려는 사회과학자들은 정부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출판물과 정부 지도자와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대중의 투표 분석과 같이 통상적인 의사 소통 경로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색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회색인 사회 조직의 기본 측면을 밝히려는 프로젝트의 타깃 목록에 '일반적인 타깃'을 덧붙이기로 결정했다. '회색인의 현재 정부 조직'이 바로

그 타깃이었다.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도 원거리투시의 특성대로 일반적인 타깃은, 내 무의식이 정보를 수집해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게 했다.

이번 투시는 감독되었고, 늘 그랬듯이 투시가 끝날 때까지 타깃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았다. 여기에 기록된 데이터는 상당히 복잡해서, 그런 일반적인 타깃들을 위해서는 감독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얻는 올바른 위치로 이끈 것은 내 무의식이었지만, 요구되는 잡다한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많은 것을 지도해야 했다.

날짜 1994년 7월 30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1443/7114

예비 단계를 통해 타깃이 다른 시간이나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다. 푸르고 흰빛이 많았고 광대하고 끝없는 무한함을 느꼈다.

브라운 3단계 스케치에서 나는 강렬한 빛과 '연맹 본부'로 AOL한다. 타깃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4단계로 넘어간다. 커다란 구조물에 있는데 낮이 익은데요. 지금 '연맹 본부'로 강한 AOL/S가 됩니다. 지금 빌딩 안에 있어요.

전에 만났던 부처 같은 이 바로 앞에서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는 게 분명해요.

감독 '연맹과 회색인의 관계'를 알아보게.

브라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군요. 회색인들이 말하는

건 믿어야죠. 그는 행복해 보이지만 느린 진행 때문에 조금은 언짢은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내 임무를 고려해 되도록 빨리 투시한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화를 낸다. 그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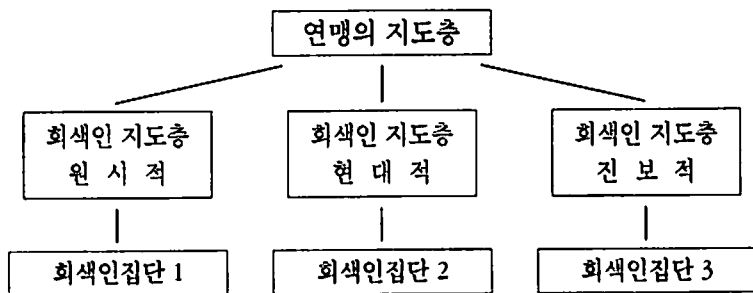
감독 명령 계통을 알아보게.

브라운 알았어요. 진행 중이에요. 회색인은 연맹의 구성원입니다. 아주 존경받고 있군요. 연맹은 현재 회색인을 돕는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현재와 과거에 중요한 일들—영적인 진화—에 관해 인간을 엄청나게 돕기도 했어요. 아주 예외바른 종족이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일원이나 지도자로 진화할 겁니다.

나는 SRV의 6단계로 이동한다. 전에 함께 했던 그 원로 회색인이 방금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회색인의 조직 구조와 연맹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고급 SRV 기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연관된 세 집단의 회색인 조직 구조를 스케치할 수 있었다. 세 집단 위에는 각각의 지도층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인간과 교류하는 회색인은 원시적, 현대적 그리고 진보된 회색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은 독자적으로 연맹과 관계하고 있다.

연맹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집단이 약간 있군요. 그렇지만 세 그룹은 연맹과 일하고 있어요



집단은 진화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도 감지돼요. 말하자면 같은 회색인이지만 다른 시간에서 온 거예요. 하지만 세 집단 모두 동시에 지구와 교류하고 있군요.

감독 커트니, 회색인 집단1을 탐사하게.

브라운 와! 이걸 확실히 시예요! 매트릭스에 기록할게요. 여기에 속하는 회색인이 엄청나게 많군요. 다른 회색인에 비해 좀 원시적이예요. 커다란 눈에 감정이 거의 없어요. '별'과 같은 집단의식을 갖고 있군요. 굉장히 큰 우주선을 조종하고, 자기들 행성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감독 이 집단의 정부에 대해 탐사하게.

브라운 실제로 통치를 위한 계급 제도를 갖고 있어요. 높고 낮은 서열이 있습니다.

감독 회색인 집단2를 탐사하게.

브라운 이번에도 많은 수예요. 첫번째 집단과는 신체적으로 차이가 약간 있군요. 이들은 첫번째 집단과는 달리 진보된 인간, 또 다른 존재들과 일할 때도 있어요.

감독 정부에 대해 탐사하게.

브라운 정부는 더 '완벽' 합니다. 모든 일에 텔레파시가 통하는군요. 여론 일치에 도달했어요. 투표를 필요로 할 만큼 개개인의 의견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아직 첫번째 그룹처럼 계급 제도는 있군요.

감독 회색인 집단3을 탐사하게.

브라운 역시 많은 수인데, 첫번째나 두 번째 집단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다른 집단들과는 대체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정서적인 융통성을 얻었거나 회복했어요. 인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흡사하군요.

감독 정부에 대해 알아보게.

브라운 이들은 다른 의견과 독특한 인격을 가질 만큼 개성을 갖고 있군요. 실지로 텔레파시로 투표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중지를 모으기 위한 방향이죠.

감독 연맹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과, 첫번째 집단과 관련된 의무를 탐사하게.

브라운 회원 자격을 신청했군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회원 자격을 받았고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 프로젝트에 도움을 줬어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했군요. 그 프로젝트는 연맹의 진보된 다른 종족들을 관찰함으로써 생긴 거예요. 다른 존재들의 능력과 기술, 진화의 잠재력을 배운 거죠. 그들은 뭔가 독특한 걸 원했어요. 자신들을 가치있는 존재로 판단했고, 다른 유전자와 결합하면 그들 자신에게나 연맹에 유익한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연맹의 임원들이 그들의 계획에 동의했군요. 전체 계획을 연맹에 제출했고 승인됐어요. 프로젝트를 위한 중심 유전자 은행으로 지구가 선택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독은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떠야 했다. 이미 동시현시 상태였던 나는 혼자서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부처처럼 보이는 연맹인을 만나려고 돌아왔고, 연맹의 명령 구조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실지로 물리적인 차원의 회의가 있는데 UN과 다를 바 없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아니라 종족들과 행성들, 그룹 등의 협력체이다. 연맹의 영향력이 전은하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은하의 다른 조직과는 부분적으로 교류할 뿐이다. 『스타 트렉』과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 연맹은 천천히 확장하고 있다. 연맹은 인간이, 명확히 말해서 지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결

국 이것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가 있어야 한다. 연맹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인 것이다. 연맹은 소수 그룹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회색인같이 다른 시간대에서 온 그룹을 제외하고 소수 그룹과 관계하는 것은 연맹의 규칙에 어긋난다.

다시 부처 같은 이를 대면하며 '안내'의 개념을 탐사했다. 그는 상황이 위급하다고 말했다. 지식인들이 연맹의 일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에 비극이 곧 닥쳐 올 것이며 투쟁과 죽음, 혼란의 세월 중에도 연맹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결 고리라도 빨리 이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맹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경우엔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맹에 회원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정부는 연맹의 회원이 되기 위해 정신적인 결정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연맹이 처리할 것이다. 그때 연맹은 공개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나는 부처 같은 이와 전에 나를 도와주었던 회색인에게 감사했고 투시를 끝냈다.

그날 늦게 감독에게 전화해서 타깃이 '회색인의 현재 정부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토의

회색인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는 부분공간에는 직선상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선의 시간은 물리적인 우주에 있는 우리 존재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많은 원거리투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물리적 세계 밖에는 직선상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는 지구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거리투시자들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쉽게 뚫을 수 있고 다른 시점의 사건을 투시하기도 해 그 시간, 그 장소에 실재하고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투시자가 보트 경기를 관찰한다면 실제 시간에서 사건을 지각하게 된다. 원거리투시는 사건의 일부가 되고, 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 또 다른 투시자가 첫번째 투시자의 부분공간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우주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회색인의 능력을 안다. 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부분공간으로 순간에 뛰어넘음으로써 시간과 공간상에서 이동하고 마침내 물리적인 우주의 새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외계인들이 물리적인 우주를 떠나지 않고서 빛의 속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데이터는 없다. 따라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 적용받는 것이다.

회색인의 사회가 오랫동안 시간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서 온 회색인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다. 그렇지만 진화나 시간 분리가 지형적인 분리와 비슷하게 물리적인 존재에 작용하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다. 원시적인 회색인들은 현대적인 회색인들과 일하지 않고, 초기의 두 회색인 집단은 진보된 집단과 친밀하지 않다. 이 세 집단의 회색인은 마치 지구의 다른 나라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나라의 관습을 다른 나라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언어와 관습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타국민과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다른 시간대에서 온 회색인들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같은 시간대에서 만나게 될 때는 서로간의 거리를 지킨다. 초기 회색인이 후기의 회색인처럼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해를 위해 넓은 시각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거리투시자들은 이제, 시간여행의 과학기술을 지닌 미래의 인간들이 지구를 방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인간들이 미래에서 온 비행선을 목격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그런 비행선이 뒤뜰에 착륙한다면 그리고 미래의 내가 비행선 승강구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래의 내가 얼마나 떨어진 미래에서 오는지에 따라, 그와 (그라고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교류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모든 일들에 관해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회색인 그리고 연맹과 교류하는 일이 복잡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고, 이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떨어진 문화들에 대한 교류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한다. 우주 차원의 상호 관계의 시간-동시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적 도전이 될 것이다.

부처

외계인에 대한 조사 초기에, 또 감독에게 예수와 인터뷰하는 데 SRV를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했던 그때, 우리는 구루 데브와 부처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처를 제외하고는 앞장에서 접촉한 모든 결과를 기록했다. 부처는 내게 미지의 인물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과의 토론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처를 목록에 포함시키기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부처와 불교에 관한 책을 조금 읽기는 했어도 그런 책들은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그를 잘 몰랐고 단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는 평판 때문에 타깃 목록에 넣기 원했던 것이다. (처음의 의도가 좀 유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내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언짢아하지는 않았다. 그와 나의 대화를 불교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엔 그를 무조건 신비한 인물로만 이해했다. 사실 이번 투시에서도 그는 여전히 신비한 인물로 남았지만, 일생 동안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간단히 말해서 이번 투시 내용은 어떤 경험보다도 훌륭한 것이다.

투시는 사전 지식 없이 시작했다. 감독은 투시의 전개에 당황할 정도였다. 부처는 진정한 대스승이다. 미시건에서 어느 여름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이다.

날짜 1994년 7월30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1842/3355

예비 단계는 타깃이 더운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브라운 흑백, 베이지색이 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평평하고 넓고 원형이면서 아주 광대합니다. 3단계에서 커다란 타원형으로 간단한 스케치를 했다. 4단계로 갑니다. 검정색과 흰색, 냉운, 빛의 강한 대비, 온도가 느껴지는군요. 원형에 빠르고 강력한 것이 지금 빙빙 돌며 솟아오르는 것이 보여요. 뭔가 연기처럼 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연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용돌이 안에 있어요. 확실해요.

감독 소용돌이와 내부의 목적에 집중하게.

브라운 알았어요. 지금 하는 중인데. 와! 이걸 정말 시인테요! 오래 전에 부처가 자신의 의식을 지름이 1마일은 될 정도로 크게 확

장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치 분자처럼 아주 작게 축소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느껴져요. 부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의식이 확장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장을 느꼈어요.

아주 넓은 지역에, 거의 은하처럼 넓은 곳에 있는데 작은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넓고 얇게 퍼진 것 같은,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 그림으로부터 뭔가 느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상징적인 화면의 겹침도 느껴집니다. 전에 연맹 본부에서 부처 같은 이를 처음 봤어요. 현재 상황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봤던 은하를 기억나게 하는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장면이 은하는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면서도 달라요. '창조'예요. 생명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어요. 생명의 본질은 있지만 아직 현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어찌죠?

감독 글쎄, 생각나는 게 있나?

브라운 무의식에 물어볼게요. '체시'라는 개념에 집중해 보죠.

감독 직관에 따르게. 전에는 한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브라운 신에게 다가가는 것 같군요. 지금 할게요. 잠깐... 내가 아는 사람, 예수에게로 지금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아, 이제 예수가 보이네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어요.

신호가 명확하군요. 태초에 생명이 시작된 곳에 있다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볼게요.

생명의 이유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예수가 나 자신을 놓아주라고 말하는군요. 소용돌이 안으로 가야 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 이런 세상에! 굉장한 느낌이군! 지금 난 안에 있어요. 신은 하나의 정점으로 영원히 존재해 왔어요. 그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진화했고 고립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영원히 재창조하여 새로운 신, 새로운 그 자신을 창조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그를 돌보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외로움을 우리가 끝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들이 사라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시 감옥 같은 과거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래는 영원히 번영하는 거예요.

와, 정말 굉장하군! 방금 폭발적인 이동을 경험했어요. 모든 시간이 창조되고... 은하들과 무한한 다양성, 모두가 확장하는군요. 이젠 정말, 새로운 신의 존재 안에 있는 굉장한 기쁨이에요. 환희 그 자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는지 묻는 중이에요. 난 흥분으로 떨고 있는데, 더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끝났다고 예수가 말하는군요. 이제 쉬어도 되겠어요. 그가 작별 인사를 하는군요. 날 어디로 보냈어요?

감독 커트니, 내가 자네를 보낸 게 아닐세. 타깃은 부처였어.

브라운 부처라고요?

감독된 투시가 끝난 직후에 혼자서 짧게 투시를 계속했다.

나는 부처로 짐작되는 이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에게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SRV 절차 중에 그에게 부처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질문으로 남겨두라고 말했다. 특정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그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 의식은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하나였다. 그는 부처였고 줄곧 그와 교류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책에 그에 대해 써야 할지 물었는데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 그의 축복을 제대로 표현할 자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토의

부처는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말하지 않았고, '경험'을 통해 알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렵겠지만 부처는 인간의 일을 돕는 연맹 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부처는 내가 나를 버리고 확장시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신의 창조적 마음과 창조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연맹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이가 부처라고 확신하게 한 것도 이런 친밀한 경험 때문이다. 그의 인도를 통해 일반적인 원칙을 알 수 있었다. 즉 계시는 지식을 얻는 데 유아적인 방법이고 경험이 성숙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처는 내가 생명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느낀 것 같다. 이번 투사에서 얻은 결과는 신에 관한 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번 투사에 의하면 생명은 신이 원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신은 자신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 이번에 경험했던 고독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감정이었다. 더욱이 신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를 창조했을 때 경험했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경이로웠다.

나는 이제 우리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이해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신에게 손과 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이 우리가 느끼듯이 느낀다는 것, 아니 우리가 그가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은 신적인 것이다. 회색인들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히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신체와 두뇌를 갖게 되길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알았다. 그들은 신과 합일한다는 궁극적인 진화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다.

원거리투시를 통해서 나는 인간과 자주 교류하는 회색인들이 신의 과학적인 실체에 대해 훨씬 잘 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색인들은 데이터처럼 신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들은 신을 경험하기 원하고 또 필요로 하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

회색인들의 진화를 위한 분투를 나는 이제 아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과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쉽게 여행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한 텔레파시가 있지만 아직도 자기들의 마음을 찾으려 한다. 우리가 경의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유전자 한 조각을 위해서 하늘과 지구를 오간다. 그들은 다시 '느끼기'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 역시 그들을 통해 다시 느끼려 한다.

이제 나는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알게 됐다. 우리와 모든 생명체는 신의 본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신의 '부분'이므로 신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며, 신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신이 어느 날 원래의 정점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며 그때는 부분공간의 내 존재도 영원히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무한성'이란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로 오랜 시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은 정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살았던 영원한 외로움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소멸을 원하지 않으므로 신도 원치 않을 것이다. 신이 자발적으로 지옥 같은 상태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신은 더욱 영원히 번창하며, 끊임없이 더욱 복잡하게 자신을 현시할 것이다. 우리가 번창하면 신도 번창할 것이며, 이것이 왜 우리가 정지하기보다는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이다. 계속 진화하고 번영하는 것은 신의 본질이다. 우리는 신의 본질을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진화하고 번영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다. 신이 창조와 성장을 통해 벗어날 수 있었던, 그의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시 깊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조각이며, 우리는 신의 이미지이다. 우리는 신이 하는 것처럼 한다. 우리는 미상의 존재 가능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실로 생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신의 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지구의 화성 문화

사회과학자인 내가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문화이다. 내가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언급했던 것도 사회과학자들이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데 원거리투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감독의 군대 경험이 그를 좁은 범위의 관심사에만 몰두하게 한 것 같았다. 군의 원거리투시자들은 외계인의 사회보다는 행위의 기본 요소에 —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비행하고 있는지 — 더 관심을 두었다.

사회과학자로서의 관심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록에 포함시킨 첫번째 타깃은 현재의 화성 문화였다. 화성인의 사회가 어떤지 알아내고 싶었다. 우리는 화성인들이 우주선으로 비행하며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미국 사회도 첨단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외부의 한 방문객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오늘날 미국 젊은이들의 삶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따

라서 나는 비행사들과 유전학자들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다. 일반 민중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1994년 7월말, 감독이 '화성 문화' 라는 타깃을 주었다. 물론 사전 지식 없이 투시했는데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타깃을 모른 채 도움없이 투시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흥미로운 것은 투시가 끝났을 때 감독이 다른 원거리투시자들도 나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그 이후에 나는 독립적으로 수집된 탐사 데이터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관찰했던 화성인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병참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말해주었고, 우리는 병참 전문가와 사회과학자의 관심사가 잘 들어맞는다고 평하며 끝냈다.

날짜 1994년 7월 31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4731/8279

처음의 예비 단계는 움직이는 단단한 인공 구조물을 암시했다.

브라운 회색에 강철 같은 색깔이군요. 광택이 있고 빛을 받으면서 윤이 나기도 해요. 찌는 듯한 기온이에요. 직선의 움직임, 강력한 에너지장과 함께 뭔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3단계 스캐치에서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외계인의 비행선을 그렸다. 4단계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양은 적지만 외계인의 비행선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비행선에서 50피트 위로 위치 이동했다.

아래로 복잡한 구조물이 보이네요. 갈색과 황갈색, 붉은색이 대

부분입니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이군요. 기온은 따뜻해요. 뭔가 타는, 연기 냄새가 납니다. 여긴 소음도 상당해요. 넓고 평평한데 아래에 구불구불한 선과 모퉁이도 상당히 많군요.

나는 새로이 3단계 스케치를 했다. 푹 트인 지역 인접한 곳에 단층짜리 거주 공간이 모여 있는 풍경이다.

4단계로 이동해 계속합니다. 기하학적인 모양이 상당히 뒤엉켜 있군요. 이 구역은 어쩐지 거칠고 원시적이란 느낌까지도 드네요. 많은 존재들이 이곳에 있고 '오래된 마을'이라는 AOL/S가 드는데, 그렇다고 이곳이 과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구조물들은 거주지인데 나무 같습니다. 지금 더 가까이 이동합니다. 맞아, 원시적인 거주지예요.

안정돼 있다는 의미에서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느리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긴박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이 사는 보통 마을이네요. 가까이 가보니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잠깐... 키는 작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마을에서 2백 피트 위로 이동한다. 구조물 가운데 한 곳으로 들어가 다시 4단계로 돌아간다. 어느 구조물에 들어가야 할지는 내 무의식에 맡긴다.

지금 난 넓은 방에 있어요. 커다란 원룸인지도 모르겠네요. 최소한 이 방이 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종의 창고군요. 물건들이 이곳에 저장돼 있네요. 상자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원료가 들어 있어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상자 안으로 들어갈까요?

감독 들어가게.

브라운 약품, 약제, 의료기구 같은 것들이군요. 일종의 구조품으

로 이곳에 보내졌어요. 소말리아 구호품 같은 거죠. 감독은 3단계 스케치로 돌아가 다른 거주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탐사하게 한다.

구조물들 안에 사람이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군요. 가정과 아이들이 있고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첫번째 구조물의 의약품들이 이 사람들 문화보다 더 진보된 것 같은데요.

나는 6단계로 들어가서 외계의 우주선이 출발하는 곳부터 목적지까지의 비행을 도표로 그린다. 그리고 나서 우주선이 출발한 곳으로 거슬러 따라간다.

아주 현대적인 설비군요. 어떤 존재들이 여기 있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설비는 뉴멕시코 동굴의 화성인 생존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나는 비행선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1천 피트 위에 위치한다.

여긴 정글처럼 식물이 많군요. 바로 옆엔 산이 있는데 아마 오래된 화산 같아요. 개간지들도 많아요. 거의 열대우림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원시 상태는 아니에요.

거주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걸쳐 있고, 나지막하고 단순하군요.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인간들과는 고립되었어요. '화성인의 피난지'로 강하게 AOL/S 됩니다. 남쪽 지역, 아마 라틴 아메리카인 것 같아요.

감독 매트릭스 적절한 곳에 모두 써넣고 계속하게. 4단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나. 자네 무의식이 이 문제를 풀게 하게.

브라운 마을을 탐사하는 중이에요. 맞아, 피난민들이에요. 조금 근심하고 있지만 적어도 당장은 일이 잘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누군지는 알지만, 모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주변 환경에 동화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거군요.

얼굴이 남아메리카 인디언 같군요. 거주지는 위장하기 위해 선

택되었어요.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동요할 것이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겁니다. 정말 굉장한데요.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들의 문화를 감추어 두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감독은 투시를 끝낼 준비를 했다. 6단계 작업표로 이동하라고 해서 나는 그 마을이 있는 나라의 국기를 스케치했다. 투시가 끝났고 '화성인의 현재 문화'가 타깃이라고 말해 주었다.

토의

감독은 방금 관찰한 것들이 다른 투시자들의 감독 투시와 단독 투시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내가 투시한 내용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마을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전부 화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교묘하게 지구인 속으로 융화된 소수의 화성인이 (수백 명쯤,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있다는 것이다.

투시 후에 나는 당장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했지만 이곳이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조직적으로 무장한 마약밀수업자들도 자기들의 영토에서 화성인을 찾아 여행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 나는 가족을 생각하고 화성인 공동체를 안전하게 방문할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화성인들이 완벽한 장소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방문객들과 심지어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들이 지구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갈 수 없다.

마을에서 관찰된 화성인들이 유일한 화성인은 아니다. 이 화성인들은 보다 진보한 다른 화성인들에게 도움받고 있다. 그 화성인

들은 자신들의 원래 문화를 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에 자원한 이들이다. 이 문화의 기원은 화성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들이 회색인에 의해 구조된 날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문화 유산은 기억을 되살릴 어떤 신호탄을 기다리며 그들의 마음에 내재해 있다.

이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잘 짜여 있다. 화성인들은 살아 남아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화성인의 부분공간 측면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화성의 본질은 모두 유실될 것이다.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은 화성인으로서의 그들의 기억인 것이다. 그들의 문화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그들의 유전자 일부 또한 현재의 몸에 보존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지구 환경에 의해 원래의 화성인과는 아주 달라졌다. 지구의 중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인류와 격리된 구성원의 기억 속에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들이 뉴욕 시 한가운데 있다면 인간적인 새로운 자극들로 인해 정신이 없어져 미래에 화성인으로서의 신원을 소생시킨다는 계획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시골 마을은 완벽한 장소이다. 나는 이 마을을 문화 은행으로 본다.

지구로 이주하려는 화성인의 계획은 아주 복잡하다. 그렇지만 화성인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역사와 아이덴티티의 은행, 문화의 저장소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화성인들이 지구에 있는 화성인들을 우주선으로 실어 나르고 도우며, 그들의 유전 프로그램을 연구하기도 한다.

어느 날인가 화성인 비행합대가 피난민들을 지구로 수송하게

될 거라는 다른 원거리투시 데이터를 회상해 보라. 많은 화성인들이 지금 화성의 지하 피난소에 있으면서 출발하라는 신호를 고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지 못했다. 그들이 선호하는 생활 양식은(기후도 포함해서), 이번 투시에서 관찰했던 마을의 화성인들과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화성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깨닫게 되는 시기는 화성에서 동포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일 것이다. 마을의 화성인들은 새로이 도착한 다른 화성인들을 훌륭히 지도할 것이다. 그들은 이 행성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며 문명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것이다.

화성인 마을의 위치는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점에서는 산 타페볼디 산 밑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뉴멕시코 화성인 기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기지의 경우 위치를 공개하는 것이 지구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성인 마을의 경우, 그들의 활동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 마을의 위치를 알리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그 마을을 세운 일차적인 목적이 화성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떼지어 그들의 천국을 침범하고 진보한 화성인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게 해서 안 된다.

언젠가 화성인 마을을 비밀리에 방문함으로써, 인간과 화성인간에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미국이나 타국의 정치인을 설득할 수 있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화성이나 산 타페에 있는 화성인들로부터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확인B

이번 장은 조정 타깃을 이용한 두 번의 SRV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첫번째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타깃으로 했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조정 타깃은 SRV 기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 타깃은 쉽게 증명될 수 있고, 과학적 원거리투시의 조정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1994년 여름, 미시건의 앤아버에 머무는 동안 투시한 마지막 타깃 중 하나이다. 투시 전 2주 동안 화성인들의 지구 이주와 무한한 신의 사랑을 경험하는 등 많은 원거리투시를 했다. 내 신경계는 무의식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흡수했고 휴식을 취할 때가 되었다.

감독은 간단한 타깃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알려준 것이라고는 과거라는 정보뿐이었다. 장소나 사건인지, 사람이냐 다른 어떤 것인지도 말해 주지 않았다. 나는 의식의 상태와 무의식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배웠다.

날짜 1994년 7월 31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3102/2137

예비 단계는 타깃이 매마른 땅이라고 암시했다. 땅 위에는 인공적인 것이 있지만 빌딩 같지는 않았다.

브라운 베이지와 갈색, 황갈색이 보이는군요. 흙과 건조한 질감이지만 약간은 촉촉해요. 온화한 기후군요.

온통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넓게 트인 지역을 3단계 스케치한다. 나는 타깃 위로 멀리 떨어져 있다. 타깃의 중앙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아까와 같은 색깔과 질감인데 지금은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타깃으로부터 1천 피트 위에서 조금 전과 비슷한 3단계 스케치를 하고 4단계로 간다.

인간들이 보입니다. AOL/S 같은데, 신호가 깨끗하질 않군요. 축구 경기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AOL이라 기록하죠. 여긴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지표면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주위엔 갖가지 원색이 있어요. 또 무수한 일들이, 아주 빠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뭔가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알 수가 없군요. 완전히 백지에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요.

지금은 뭔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땀냄새와 고함소리가 들리는

군요 아주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입니다. 일관성 있는 신호가 하나도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건축 같은 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전투 같다는 AOL/S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독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지 탐사해 보라고 제안한다.

글쎄, 특유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보이는데요. 색깔이란 색깔은 여기 다 있군요. 곳곳에 혼란과 강렬함이 여전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와 싸움이 있고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란스런 감정이라는 감정은 모두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의 목적을 탐색해 보려 해요. 일종의 폭발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는군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마치 여러 사람이 기적을 기대하며 큰일을 벌이는 것 말이에요.

이 데이터에 정말 저항심이 생기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군요.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상 조금 미래로 건너뛰었습니다. 잠깐... 전투였군요. 이 시체들 좀 봐! 곳곳마다 시체예요. 모두 죽었어요. 들판의 시체와 무기, 군복들...

남부연합과 관계 있다는 강한 AOL/S가 듭니다. 남북전쟁의 획을 긋는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 장면은 내가 아는데! 시민전쟁에서, 다른 어떤 전투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투였지요. 이곳은 게티스버그군요.

감독 좋아, 커트니. 그만하게. 타깃은 '게티스버그 전투' 였네.

토의

조정 타깃이 무엇인지 성공적으로 알아낸 것 외에도, 이번 투시는 내가 전투를 직접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무의식과 의식이 협력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투가 끝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진정돼서야 내 의식과 무의식이 상황을 느끼고 이해할 만큼 서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투시를 시작할 때 마음의 준비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고, 신경계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상의 위치를 확립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식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해야겠다.

역사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해 두고 싶은 건 게티스버그 전투는 정말 끔찍한 전투였고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솔직히 가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SRV를 이용해서 그 전투장을 다시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산타페볼디

산타페에서 멀지 않은 뉴멕시코의 산 산타페볼디 아래, 화성인의 기지가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데이터를 앞에서 기록했다. 그렇지만 연구 초기에 나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화성인뿐 아니라 그 산이 어디인지 밝혀줄 타깃을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것이 나와 다른 투시자들이, 산타페볼디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산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제거할 것이다.

다른 감독된 투시처럼 이번에도 제4종 조건하에 사전 지식 없이 행해졌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재검토하는 사람은, 무의식이 아주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무의식은 단순히 데이터를 요청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의식은 원거리투시자가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안다. 투시자의 의식이 옳지 않을 때조차 무의식은 항상 옳은 답으로 원

거리투시자를 유도한다. 나는 산타페볼디에 정말 기지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내 무의식은 인류와 화성인의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 일어날 이 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일련의 정보를 통해 내게 알림으로써 의문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날짜 1994년 8월 2일

장소 미시건 주, 앤아버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4471/3621

예비 단계는 타깃이 건조한 땅과 인공적인 구조물들과 연관있음을 암시했다.

브라운 붉은색, 갈색, 베이지 색깔이 보입니다. 질감은 거칠고 어떤 것은 매끄럽군요. 좀 서늘한 기온에, 당장은 아무 냄새도 안 나요.

3단계 스케치는 많은 구조물이 있는 지역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타깃에서 1백 피트 위로 위치 이동했다.

지금, 원형 모양을 한 빌딩 위쪽에 있습니다.

다시 3단계 스케치를 하며 빌딩의 윤곽을 그린다. 많은 투시자들이 확인했던 것이다(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투시를 통해 이 빌딩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화성인에 관해 회의하게 될 것을 알았다).

감독은 곧바로 6단계로 가라고 했고, 나는 종이 중앙에 빌딩을 조그맣게 그린다. 그리고 나서 주위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빌딩 주변을 탐사한다. 원형 구조물 근처에 작은 빌딩들이 있고, 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숲과 산이 있다. 서쪽으로는 인구 집중지가 있다. 산은 원형 구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했다.

지금 커다란 원형 빌딩으로 이동합니다. 안에는 사무실 같은 넓은 방이 있군요. 벽은 빌딩의 굴곡을 따라 구부러져 있습니다. 방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개의 작은 사무실이 있는 복도로 연결돼 있어요. 방으로 돌아가보니 강단처럼 발표하는 장소가 있군요. 의자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정장을 하고 있어요. 빌딩 자체는 제조에 관련된 것 같군요. 많은 활동이 탐지되는 걸로 봐서, 어떤 제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 같은데요. 그런데 몇몇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시간선에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네 시점을 표시했다. 탐사 중 두 번째 시점에서(대략 2년 후) 원형 빌딩 부근에 현대적인 사각형 구조물이 건설 중인 것을 발견한다. 그보다 작은 빌딩 몇 개는 이 대형 빌딩의 자리를 위해서 분쇄됐다. 이후 시점에서는 사각형의 대형 구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서 나는 그 대형 빌딩의 건설 계획을 알게 된다.

감독 커트니, 미래의 그 빌딩으로 돌아가 안에서 사람들이 무얼 하는지 알아보게.

브라운 그러죠. 잠깐만... 지금 난 사각형 구조물에 있습니다. 빌딩 안에는 모니터와 키보드, 의자, 여러 개의 선 그리고 실험실 비품들이 있군요. 이곳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과학연구 실험실이고 유전학과 생물공학의 연구가 감지되는군요.

감독은 일과를 마치고 구조물을 떠나는 한 남자를 따라가게 한다. 그는 보초가 서 있는 대형 단지의 정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가 중심지에서 서쪽의 집으로 운전하는 대로 따라간다. 주변 환경은 산타페 근방이라는 강한 AOLIS가 들게 한다.

감독 대형 구조물로 다시 돌아가서 층마다 뭐가 있는지 알아보게.

브라운 무의식이 나를 지하실로 잡아당기는데요.

감독 따르게.

브라운 이런! 이곳엔 여러 색깔이 혼합된 옷을 살짝 걸친 시체가 있는데요. 좋은 곳은 아니에요. 계속 탐사 중입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근무 중에 죽었군요.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두기 위해 시체를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시체들을 처리할 거예요. 여기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감독 '근무 중'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보게.

브라운 이들은 과학자들이에요. 어떤 작업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감독 무엇을 하고 있었나?

브라운 위험한 실험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감행했어요.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독받지 않았군요. 내부일이었고 사적이고 비밀이었습니다.

감독 무슨 일이었는데?

브라운 방사선과 유기체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생산한 것과 그 부산물로 인해 죽음을 당했어요. 적절한 안전 관리가 부족했군요.

마음이 지금 동쪽, 그 산으로 잡아당기는데요.

감독 따르게.

브라운 지금 난 산에 와 있어요. 동굴들이 있고 안에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긴 화성인 기진데 변화가 있군요. 동굴에는 차가 있어요. 장소는 현대적이긴 하지만 초현대적이지는 않아요. 외계인의 비행선은 없습니다. 터널이 있군요. 서쪽으로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입구는 위장해 놓았어요. 지금은 터널이 통풍구로 이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큼니다. 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인간과 아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어

요. 실제로 인간이군요! 위아래가 연결된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이야, 이거 재미있는데. 이걸 AI로 적을게요 대형 건물 지하의 시체 몇 구는 이 산과 관계된 것 같아요

이 장소는 내가 봤던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군요. 많은 것이 건설 중이에요. 사람들이 시설을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상 미래로 이동합니다. 시설은 갖추어졌는데 감독관 같은 이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군요. 좀더 미래엔 화성인들,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몇몇은 지저분하군요. 많은 일과 동요로 사방에서 웅성웅성합니다. 희망과 두려움, 흥분 같은 강한 감정들로 가득한 아이들과 성인들이 꼭 찻습니다.

화성인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해요. 행복하면서도 흥분하고 있군요!

감독 커트니,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원형 구조물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아는가 보게. 그런 다음 변화를 언제 깨닫게 될지 탐사하러 미래로 이동하게.

브라운 현재 시점에선 원형 구조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선의 두 번째 시점에서는 정부가 산타페 근방을 주택지로 결정했군요.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화성인들이 도착할 때, 확장된 화성인 지하기지를 처리 센터로 사용한다는 생각입니다.

감독 좋아, 커트니. 충분하네. 마치지. 타깃은 휴 헤프너의 마지막 총각파티...

브라운 농담하지 마시고...

감독 타깃은 '산타페볼디(화성인/현재의 생존자/뉴멕시코 동굴)'였네.

토의

이상이 화성 피난민들이 도착할 곳과 어떻게 산타페볼디 아래 화성인 기지가 우주 처리 센터로 변형되는지 처음 살펴본 내용이다. 화성인 중 다수가 아주 평범해 보였다. 고급 기술자들은 아니었고 어머니와 아이 등 평범한 화성인이었다. 많은 곳 가운데 미국에 정착하는 것은 사회 적응의 관점에서 많은 다른 민족들의 이민과 비슷하다. 우선 인간들이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화성인들을 우호적인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화성인과의 공식 접촉

지금까지 떠오른 가장 중요한 의문 가운데 하나는, 화성인과의 의사소통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말했듯이 우리가 얼마 후에 회색인과 교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화성인과 먼저 접촉하게 될 것이다. UN이 회색인에게 만나자는 공개 요청을 하면 일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화성인과 먼저 접촉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관심을 우주로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투시는 화성인들이 어떻게 인간 문화에 잘 융화했는지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먼저 하나의 답변을 주고 다른 원거리투시처럼 다른 중요한 정보도 많이 보여준다. 그 정보들은 인간과 화성인의 공식 교류 첫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또는 진행될지) 암암리에 말해 주고 있다.

투시는 제4종 조건하에 사전정보 없이 했고, 지난번 투시 후 한

참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재충전 후 감독된 원거리투시로 돌아와 내 무의식이 어떤 정보를 전해 줄지 몹시 알고 싶었다.

날짜 1994년 9월 26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6068/0004

예비 단계는 건조한 땅에 세워진 인공 구조물을 포함한 타깃을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과 황갈색이 보입니다. 나무와 시멘트의 질감이구요. 기온은 따뜻하고, 아니 사실 좀 더워요. 땀냄새와 인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타깃 위치에서 원형이면서도 평평한 게 느껴집니다.

지붕이 평평한 원형 구조물을 재빨리 스케치하기 위해 3단계로 이동한다.

감독 4단계로 이동하게.

브라운 지금 4단계 매트릭스에 있어요. 지금 한 건물이 뚜렷이 보입니다. 빌딩 안에 음성이 들려서 들어가고 있어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딩은 원형인데 전에 이 구조물을 투시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네요. 잠깐 밖으로 나가보니 빌딩 주변에 나무들이 있군요. 이제 다시 안입니다.

와! 굉장한 AI로군! 방금 빌딩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진짜 실력자들이예요. 이건 고위급 회의군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게요. 잠깐... 외계인에 관해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군복을 입고 있어요. 육해군 장군, 군고위 장성들이군요.

여기 일반인도 한 사람 있어요. 미국 대통령 같은데요. 시란에 '와!' 라고 또 적을게요.

감독 좋아, 써넣고 계속하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게나. 잘하고 있네. 감독은 즉시 6단계로 이동하게 했다. 그는 대화의 요점을 알아내기 위해 SKV 기법을 시도하게 했다.

브라운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토론하고 있군요. 정확히 어떻게 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가가 초점이에요. '의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좀더 물리적인 방법을 원하는군요. 의식을 통한 대화가 물꼬를 텃어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걸 필요로 해요. 전파를 이용하자는 제안이 그중 하나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해요.

대화의 주제가 회색인이 아니군요. 이 사람들은 화성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행성간의 의사소통 문제예요. 이제 전파에 초점을 맞추네요.

나는 미래에 과학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탐사할 수 있는 6단계의 시간선을 구성한다.

됐어요. 사람들이 화성인과 통신하기 시작한 시점을 알아냈어요. 이걸 의사소통 시점이라고 할게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군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갠데요. 세계 곳곳에 망원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망원경을 화성에 맞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다지 많은 걸 포착하지는 못하는군요. 그리고 나서 전략을 바꿔 송신하기 시작합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많네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엔 통신법이지요.

회색인들은 모든 걸 주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소극적인 의미에서예요.

사람들이 또 달에 있는 외계인 기지에 송신을 시도하고 있군요. 그렇지만 화성을 향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달에 있는 외

계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군요.

처음에 화성인들은 침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인간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 불안해 하는군요.

시간상 미래로 가니, 화성인들이 대화하기로 결정하네요. 그들은 확실히 답변 신호를 보냅니다. 크고 뚜렷하게요. 인간과 같은 통신법을 사용하는군요.

화성인의 외모에 약간 충격받았어요. 전파 신호를 따라가서 지금 화성에 있거든요. 인간과 비슷했지만 이젠 거의 흡사해요. 머리 카락도 있어요. 이 화성인들은 주로 남성이군요. 군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전투 부대는 아니에요. 화성인들은 전투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방위는 전투를 통하는 게 아니고 은닉하는 거군요. 피부가 옅어 보이네요.

이 화성인들은 처음의 화성인들과 (부분공간의 의미에서)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들은 지구인과 비슷한 몸을 갖고 있어요.

감독 미래로 가보게. 화성인들은 어디 있나?

브라운 잠깐... 지구에 있군요. 전에 이곳으로 이주한 이들처럼 일하고 있어요. 또 인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이제 공개돼 있어요. 세상에! 이 화성인들은 정말 인간처럼 보이는데요.

감독 회색인들은 어디 있나?

브라운 회색인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이 시점에서는 유전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됐거나 거의 다 됐어요. 마무리만 남았군요. 아직 인간과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감독 좋아, 커트니. 필요한 건 알았네. 타깃은 '화성인의 미래 문화' 였어.

토의

우리가 미래에 교류하게 될 화성인들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어 아마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와 과학기술의 차이일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 성공적으로 교류하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녹색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첫 접촉에서 적어도 외모상으로는 우리를 크게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 단순 생명체

이번 투시는 타깃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하게 됐다. 타깃은 '단순한 존재들'로 목록에 없었다. 감독은 꽤 정기적으로 목록에 없는, 전혀 모르는 타깃을 주곤 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때때로 그런 타깃을 주는 이유는 내가 미리 추측함으로써 잘못된 AOL을 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데이터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었고 감독도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확실히 해두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예측하지 못한 타깃을 줌으로써 투시 중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었다.

이 타깃을 투시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많은 물리적인 생명을 파괴했을 때 부분공간 생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랫동안 궁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과 유사한 존재를 목표로 하여

투시해 왔다. 그러나 감독은 자신이 직접 투시하며 관찰했던, 다른 부분공간의 존재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그들을 '단순 존재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인간과 아주 다른 존재를 언급할 때 쓰는 용어다. 대부분의 그런 존재들은 인간보다 작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특성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이 존재가 육신을 가지는지 혹은 육신을 가진 적이 있는지 몰랐고, 단지 그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그는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물리적 환경을 인간이 파괴한다면 부분공간의 생명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재 계속되는 환경 파괴가 실지로 어느 정도인지 모른 채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거라고 염려했다.

물론, 이번 투시도 제4종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예비 단계 후 즉시 전혀 예기치 못한 타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목록에 없는 타깃이라는 것은 몰랐다. 무의식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미리 예측하지 않았다. 어쨌든 전에는 본 적도 없는 어떤 것을 투시하게 될 것을 예감했다.

날짜 1994년 9월 28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3660/1161

예비 단계는 타깃이 매마른 땅과 액체가 있는 중간지대라는 것을 나타냈다.

브라운 푸른색과 하얀색이 보입니다. 철벽철벽거리고 젖어 있어

요. 상당히 춥군요. 생선 비린내가 나고 바다 냄새도 나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드넓고 평평하면서 아주 깊군요. 많은 액체 옆에 한 조각의 건조한 땅이 있는 3단계 스케치를 한다. 또 액체 밑으로 인공 구조물이 보여 그리기 시작한다.

4단계로 가서... 여전히 많은 물이 보입니다. 거대한 대양 같아요. 글썄, 내가 어떤 행성에 있다는 건 알겠어요. 낮이 익긴 하지만 전에 방문했던 시간대는 아니에요. 액체는 물 같은데 수심이 아주 깊군요.

가까이에 건조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로 갑니다. 이 주변을 조사하는 중인데... 불모지군요. 생명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 그대로지만, 어떤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화성처럼 척박하긴 해도 화성은 아니에요. 빛깔이 다르고 대기가 있거든요.

이제 물 쪽으로 다시 갑니다. 물 속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거대하군. 알아보러 지금 물 속으로 들어가요. 잠깐...

상당히 현대적인데 외계인 기준의 그 정도는 아니군요.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보이는군요. 지구보다 과학기술이 더 진보했지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구조물 안에 존재들이 있군요. 자세히 보려고 안으로 갑니다. 흐름, 인간의 복장을 하고 있네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남녀 모두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눈이 작고... 사람 같은데,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인간이 이런 곳에도 있었나...

구조물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같은 통로가 있군요. 또 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커다란 통풍구도 있어요.

감독 분석하지 말자고. 모든 데이터를 매트릭스에 쓰고 계속하게.

브라운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구조물은 거대하고 기묘하게 생긴 잠수함 같아요. 지금 사람들의 활동에 집중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아요. 단조롭고 고된 일이에요.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과 관련이 있군요. 하지만 관리하는 일도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네요. 확실히 생존에 관련된 일이에요.

더 큰 목적이 있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알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정말이지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감독 육지로 돌아가게. 뭐가 보이냐?

브라운 육지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대량학살의 결과지요. 황폐하고 흙과 바위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연적이지만 마치 사방이 소독된 것 같은 인공의 흔적이 보이네요. 무의식이 불안간 날 수중 구조물로 돌아가게 잡아당겨요.

감독 가보게.

브라운 구조물의 밖에 보이는 생명체라곤 아무것도 없군요. 물속도 육지만큼이나 황량해요. 근처에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 시간으로 끌어당겨지는 게 느껴져서 따라갑니다.

흐음. 이곳은, 적어도 수면 아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군요. 도처에 생명이 있어요. 부분공간의 생명과 물리적 생명이 둘 다 있어요. 처음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살피는 중입니다. 부분공간의 생명체도 물리적인 생명체도 없군요. 이상하네! 물리적인 생명체가 없는 곳엔 부분공간의 생명체도 없어요. 두 개가 병행해서 협동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든지, 적어도 물리적인 생명체가 없는 곳에는 부분공간의 생명체도 없어요.

감독 부분공간의 생명체라니?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가?

브라운 곳곳에 작은 부분공간의 동물들이 있어요. 물고기의 영혼처럼 보입니다. 동물의 영혼이거나 부분공간 측면이에요. 물리적인 동물과 동물의 부분공간의 측면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마치 이들이 한 무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리적인 환경이 파괴되면 물리적인 생명체와 부분공간의 생명체가 같이 고통을 겪어요. 회복되면 둘 다 다시 번창하고요. 그 구조물에 있는 인간 활동이 회복과 관련된 것 같군요. 그들이 모두 다한 건 아니지만 이 목적을 위해 일했고 또 성공했어요.

감독 좋아, 끝내세. 커트니, 타깃은 '단순 존재들'이었네.

브라운 뭐라구요? 목록에 없는 거잖아! 단순 존재들이 뭐예요? 내가 이런 호기심거리에 쏟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곧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예정인데... 단순 존재들이 뭐니까?

감독 커트니, 설명하지. 단순 존재들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대네. 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보아왔지. 그들은 이 모든 일에 관련돼 있고 인간과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걸세. 감독은 단순 존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관심을 갖는지 계속 설명한다. 그것으로 하루를 다 보냈는데, 여기서 생명체들을 언급해야 하는 가치를 깨닫는다. 외계인 역시 우리만큼이나 이 생명체들에게 관심이 있을지 모른다는 원거리투시 데이터를 얻었다.

토의

UFO 피랍 문헌에는 물리적인 생명체 가까이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생명체를 파괴하는 인간을 회색인들이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낮은 차원의 비물리적 생명의 넓은 스펙트럼을 알지 못하

며, 물리적인 생명과 비물리적인 생명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를 전혀 모른다.

인간이 이런 점에 무지한 것은 어느 정도는 부분공간(또는 비물리적)의 생명체를 지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정말 영혼이 있는지 아직도 상당한 논쟁이 계속된다.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은 존재한다고 말하겠지만, 과학자들은 거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부분공간 측면에 관해 겪는 대단한 혼란을 보면, 일반인이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부분공간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지구의 생명체를 돌보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 모두가 부분공간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의문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부분공간의 생명체는 모두 물리적인 생명체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안다. 우리가 환경을 훼손하고 종족들을 파괴할 때, 또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공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부분공간 생명체가 번창하고 진화하는 여건을 파괴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생명체와 부분공간의 생명체는 병행하여 존재한다. 서로가 없다면 발전할 수 없다. 인간이 진정한 은하계의 시민으로 진화하려면, 다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화성 파괴 사건

예전에 화성이 건강한 생태계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파괴한 것은 무엇일까? 파괴되기 전의 시기를 투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화성인들은 행성의 대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할 만한 과학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앞에서 보여준 데이터에 근거하면 회색인들이 무모한 행위를 통해 행성의 환경을 파괴했으며, 인간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화성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연구 초기부터 화성의 환경 파괴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듯하다. 많은 투시자가 아마 혜성이나 소행성과 관계된 재난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감독과 나는 화성 문명의 멸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타깃을 준비했다. 몇 달 전 감독과 맨 처음 타깃 목록을 작성한 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목록을 다시 보지 않았다. 목록이 길고 또 감독이 수시로 새로운 타깃을 추가했기 때문에 남은 타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타깃 두 개가 남

은 시점에서는, 초기 화성 문명의 멸망을 밝혀주는 타깃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다른 타깃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투시를 시작했을 때 받은 첫신호로 이번엔 실지로 화성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 투시는 제4종 조건하에서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4종과 6종의 복합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날짜 1994년 9월 29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투시
타깃좌표 5966/2695

예비 단계는 타깃이 움직임과 단단하고 천연적인 지형을 포함한다고 암시했다.

브라운 갈색과 베이지색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바위 같은 질감이
고 아주 좋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원
형의 둥그런 것이 보이는데 '화성의 재난'으로 AOL됩니다.

감독 투시 절차를 따르며 3단계에서 계속하게. 3단계 스케치는 단
순한 원형의 두 물체를 묘사한 것이다.

브라운 4단계로 이동했어요. 원형 물체 중 하나는 행성인 것 같군
요. 여전히 갈색과 바위 같은 질감이 탐지되고, 뭔가 차가운 것이
있어요. 강한 대기 활동 장애도 탐지됩니다. 특히 소용돌이치는 움
직임이요 이 행성에 관련된 존재들이 있고 현재 공포에 떨고 있
군요. 저 아래에는 엄청난 동요가 일고 있어요. 두 가지 AOL/S가
오는데 하나는 위성이나 소행성 같고, 또 하나는 화성 같아요.

감독 커트니, 6단계로 바로 가게. 자네가 타깃을 제대로 맞혔으

니까. 이젠 화성 재난에 관한 걸세. 투시 절차에 따르면서 계속하게. 감독은 그 행성과 작은 물체를 스케치하게 한다. 나는 두 개의 물체와 관련해 지구의 위치를 정하고, 화성 위치로부터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상대적인 방향을 확인하게 하는 SRV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사건의 시기를 밝혀줄 시간선을 만든다.

브라운 작은 물체는 불규칙한 모양에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요. 공기층이 희박해서 분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이 물체가 큰 행성의 대기권 가장자리를 지나갔어요. 대기층이 두꺼운 편인데 행성의 성층권을 통과했군요. 통과한 지역을 교차 지역이라 할게요. 행성의 표면에 충돌하지는 않았군요.

지금 행성을 탐사 중입니다. 대기권에 큰 손상은 없었어요. 교차점 부근에 강한 난류가 있군요. 다른 곳에서는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난류가 대기를 통해 행성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교차 지점에 가까이 갈수록 난류 현상이 심하네요.

난류를 따라 대기권에 원형의 파문이 일어났어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바깥쪽으로 동그란 물결이 형성되는 것처럼요. 이 파문이 대기권으로 퍼져나갔군요.

처음에는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게 파괴되어 버리는 지진 같지는 않았던 거죠.

동그란 파문은 대기를 통해 퍼져나갔고 행성의 반대쪽 끝에서 만나, 튀어 오르거나 뚫고 나갔다가, 교차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다시 파문이 만나고 다시 퍼지고 그렇게 반복하며 마치 기타줄이 울리는 것처럼 진동을 만들어 냈군요. 이러한 진동이 대기권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열과 같은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어요. 이 진동을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진동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행성에 있는 존재들은 점차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날씨

패턴이 변화되고, 행성의 환경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이 자랄 수 없으니 식량 문제가 생겼고, 비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홍수와 가뭄이 같이 있었군요.

처음에는 호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대기가 두터웠지만 계속 되는 파문은 점차적으로 대기를 날려보냈어요. 행성의 중력은 파문의 운동 에너지를 약화시킬 만큼 크지 않았어요.

감독 좋아, 커트니. 충분하네. 타킷은 '화성인 문명의 멸망' 이었네. 아주 재미있군. 그런 사태는 전혀 추측도 못했는데 말이야. 행성 대기의 난류와 유체 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걸세. 새롭고 확실한 모델이 곧 나오겠군.

토의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을 목격했다. 지구에서는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대기의 파문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화성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커다란 파문이 형성됐다. 따라서 화성인들이 행성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연맹은 회색인들로 구성된 구조단을 파견할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지구의 미래

이번 장은 마지막 원거리투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다. 타깃은 목록에 있던 것이지만, 화성에 관한 지난번 투시와는 달리 목록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번에 얻은 결과들은 예상 밖으로 즐거운 것이기도 했다. 사실 이전까지 나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가 자멸하는 길로 향하고 있다면, 외계인들이 왜 우리를 돕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기조차 했다. 다행히도 이제는 그들이 노력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날짜 1994년 9월 30일

장소 조지아 주, 애틀랜타

데이터 제4종, 원거리에서 감독됨

타깃좌표 4395/0241

2단계까지의 예비 단계는 건조한 땅과 액체, 인공 구조물을 포함한 타
깃을 암시했다. 시간상의 움직임을 즉각 느끼기도 했다.

브라운 3단계의 스케치는 회전하는 구체와 비슷한 것이다. 나는 SRV
위치 이동을 실행하여 직접 타깃 위치로 간다. 밀집되고 복잡한 환경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한다. 어딘지 아주 복잡한 곳이군요. 복잡한 생태
계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인간과 비슷
하네요. 식물이 많은 정글 같아요. 모든 게 마치 회로판이나 정글
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의존하고 있어요. 균형 잡힌 정글 같
아요. '에텐의 정원' 으로 AOL 중인데, 에텐의 정원은 아니에요. 그
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잘 가꾸어져 있군요.

6단계로 이동해서 시간선을 그린 후 조사한다. 타깃 시간을 정하고
투시하는 시간과 타깃 시간 사이에 중요한 세 시점을 표시한다.

현재와 타깃 시간은 3백 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깃 시간의
존재들은 확실히 인간이라는 걸 알겠네요. 평범한 옷을 입고, 환경
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첫번째 중간 시점은 환경이 심각하게 변질됐다는 게 특징이
예요. 세 번째는 환경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다른 시점을
살펴보는 중이니까 잠깐...

타깃 시기에는 건강한 생태계가 시작되고 있군요. 자족적인 생
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에서요. 처음에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
었던 건 생태계의 식물들이 다양한 것과 관계 있네요.

아직 타깃 시점에 있는데, 인간들이 지상에 집을 갖고 있지 않
아요. 차 없이 걸어다니고 있군요. 식량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신은 보존의 하나이지 이용하려는 게
아니군요. 이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느끼고, 이제는
행성을 재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전에는 늘 불안하고

의심스러웠지만요.

감독 '생물의 다양성' 이란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타깃 시간의 100년 전보다는 많군요. 타깃 시대에서는 상호의존적인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감독 '연맹의 교류' 개념에 집중하게.

브라운 우리가 투시하는 시기부터 타깃 시간까지 인간과 연맹은 교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연맹은 주시하면서 인도하는데, 인간을 끈경에서 구출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해요.

감독 '대표' 에 대해 집중하게.

브라운 저번처럼 타깃 시간에도 부분공간의 인간 대표가 있군요. 대표들은 더 이상 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투시 후 바로 물리적 인간들과 연맹간에 대화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간은 자신들을 연맹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대표하는 협동의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초기 지구의 유전자 항상 프로젝트에서 관리 종족인 아담과 이브 같은 형태로 진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 행성에서 진화해 왔지 외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게 다르군요.

타깃 시간엔 인간들이 영토를 소유한다기보다는 보살피는 사람으로 진화했군요. 행성적인 차원에서 정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행성이 완전히 재생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가득한 작은 정원이 나 땅이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생태계는 보통 자연 생태로 알려졌지만, 아직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은 종들을 위한 배양소도 있어요.

감독 '인간의 거주지' 에 집중하게.

브라운 잠깐... 지금은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요. 시간선의 첫번째 중간 시점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제야 사람들이 특별한 피난처를

만들 생각을 했군요. 그 다음 시점에서는 『매드 맥스』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인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극심하게 황폐화되는군요. 아직은 생명이 있지만 거의 사막 같은 허허벌판이네요. 세 번째 시점에서는 이 특수 피난처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군요.

감독 연맹과 대화하기 위한 인간의 방식에 집중하게.

브리운 알았어요. 지금 하는 중인데... 특별한 건 없어요. 연맹은 인간의 언어를 잘 알고 있군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걸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연맹이 필요한 모든 의사소통 연결고리를 만들 겁니다. 단지 인간에게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감독 연맹의 도움에 관해 직접 알아보게.

브리운 비공식적으로만 도와줄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연맹이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선 소극적이라 하겠지만, 인간에게 목표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거죠. 그들이 우리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의존적인 종족이 아니라, 성숙하고 도움을 주는 종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감독 좋아.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려면 다음 프로젝트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군. 이만 마치게. 커트니, 이젠 다시 희망이 있네. 타깃은 '지구의 미래 문화' 였어.

브리운 그래요? 그 타깃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 목록으로 연구를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지구의 미래 문화' 라... 이 책을 위해 내가 뭘 알아야 할지 무의식은 알았던 것 같은데...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토의

인류는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고,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보살피고 보존하는 자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부활을 논하기 전에 인류의 위기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

인간이 지구를 보살피고 보존하는 현명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폐허가 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거리투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고찰해 보면 이것이 곧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한정된 수용 능력을 볼 때 지구가 견디기에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것뿐이 아니다. 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간을 수용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인간이 상류층과 동등한 수준의 물질적인 생활 방식을 계속 바란다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물질에 대한 단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천연 자원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의식과 의식의 부분공간 측면이 밀접히 연결되지 않은 우리는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지구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가 늘어날 때까지 물질적으로 잘살기 위해 끝없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상당수의 인간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소위 『매드 맥스』 시나리오처럼 인간들이 지구 파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시점이 될 것이다.

연맹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회색인들이 자멸하는 것도 막지 않았는데, 인간이라고 막아주겠는가? 하지만 회색인이 과거로부터 얼마나 진화해 왔는지 보라. 그런 고난에서 위대함이 자라고, 인간은 중요한 미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대부분의 독자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암담하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밝다. 미래의 비극에 너무 겁을 먹고, 이 고난 뒤에 맞이할 화려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이 책의 거의 모든 원거리투시에서 나는 현상황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의 환경 문제, 육신과 영혼의 연결이 미약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와 연맹, 회색인, 화성인과의 교류 역시 포함하고 있다. 투시 내용의 대부분은 많은 종족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내 연구가 갖는 근시안적인 한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투시는 우리가 더 멀리 미래를 보도록 권한다. 언젠가 2300년경에, 인간은 스스로가 야기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좀더 나은 종족이 되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우주를 향해 주의를 돌릴 것이고, 우리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하는 생명체들을 돕기 위해 일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 미래는 아름다울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 3백 년 이후까지는 투시해 보지 않았지만, 지혜로워진 새로운 인간 종족이 그저 방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에 했던 투시에서 연맹은 인간이 연맹의 정식 회원으로 동참하기 바라며, 연맹이 은하 곳곳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는 것을 내게 암시했다. 이번에 받았던 인상은 은하계의 전사가 아닌 생명의 축복자였다. 미래의 인간들은 온화하지만 능동적이고,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연맹과 유대 관계를 맺을 것이다.

2300년의 인간은, 3000년까지는 은하 세계로 비상할 진보된 인간의 전형이다. 다른 종족과 교류하고 생명의 진화에 도전하는 어려움들을 통해 서로 도울 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은하계의 우

리 역할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다.

탐사한 장소와 시간들은 이 우주에 비해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 나를 겸허하게 한다. 인간이 앞으로 2000년 후 혹은 그 이후 무엇에 관여할지는 아직 모른다. 인간이 연맹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연맹이 은하계 곳곳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도록 도울 것인가? 마침내 다른 은하에 존재하는 우주 영역까지 손을 뻗치게 될 것인가?

이 책의 모든 원거리투시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시사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진화를 향한 행군을 계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나 즐겁다. 고난 바로 뒤에 신나고 무한한 미래가 있어 영원히 그리고 끝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머지않아 인류는 어떻게 화성인들과 교류해야 할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회색인을 포함해 다른 종족들과 공개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생명력의 건전성을 회복한 후,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는 탐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루기 쉬운 작은 일부에서 우리 삶의 작은 단편적 경험들에 직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저항을 일소해 버리고 화성을 바라볼 때이다. 바로 이것이 은하계로 향한 진실의 첫발짝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화성인과 얘기해야 한다.

* 우리는 원거리투시용 이용하여 미래의 사건 추이쯤 알아보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란 창조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미래가 교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현재 유전적인 결합—즉히 몸과 마음의 연결이 약하다는 것—을 볼 때, 곧 우리에게 닥칠 가혹한 생태학적인 재난을 피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 부

은하계를 위한 인류의 접근

외교관의 훈련

인간이 은하 외교를 해야 한다면, 생명에는 물리적인 형태와 부분공간적인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복합적인 존재이다. 육체에는 부분공간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 육체를 지닌 생명체는 결국 죽는다는 의미에서 일시적인 데 반해 부분공간 측면은 영원한 것이다. '영혼'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육체가 쇠약해져 벗어버린 후에도 계속 살아갈 부분공간의 자아이다.

지각력이 있는 진보된 종족은 이것을 모두 이해하고, 육체와 부분공간의 영역을 연결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그 경계선을 넘어 활발히 의사 소통한다. 내가 관찰했던 진보된 종족은 육체와 부분공간의 신경계를 이용하여 동시에 두 영역을 지각할 수 있었다. 인간은 독특한 유전자 구조로 인해 이러한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다. 그러나 훈련받을 수는 있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훈련은 명확한 데이터 수집과 의사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권한다. 은하의 인간 외교관들은 그런 훈련을 받기에 이상적인 후보들이다. 과학자와 역사가도 이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 물리적 측면과 부분공간 측면이 상호 의사 소통하는 전코스를 살펴보겠다. 이 코스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특정한 명상 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훈련을 더 원하는 사람은 기본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진보된 외계인들과 미래 인간처럼 개인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권한다. 이 단계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다. 실지로, 아이들 이 레이저총으로 전쟁놀이를 하는 것보다 이 훈련 단계를 더 '멋치다'고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아주 반가운 일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수생들에게 변형된 자각 상태를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것이다. 미군은 이것을 원거리투시 훈련 전에 받아야 할 예비 조건으로 생각했다. 이 단계에서는 몬로 연구소가 개발한 '헤미싱크 기술'로 훈련받는다.

세 번째는 과학적 원거리투시를 정식으로 교육받는 것이다.

아래에 요약될 전체 훈련 프로그램은, 여기서 밝히는 어떤 기관이나 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그들은 자기들의 훈련법이 UFO와 외계인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다고 선전하지도 않는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내 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다. 기관이나 그룹 중 어느 곳도 은하 외교관이 되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 생각이니 실제로 훈련을 하는 그룹들의 생각은 아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각각의 코스들은 서로 많은 보완을 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각 부분마다 얻는 것이 다르고, 전체 코스가 중요한 것이다. 약간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 훈련 때문에 해로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따라서 연수생들의 발달 과정을 감독하고 돌보아줄 기관에 소속된 사람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훈련은 통상적인 인간 경험과는 다른 모든 종류의 활동과 의식의 영역을 넘나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텔레파시로 받은 생각을 깨닫게 될 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적절한 지도 없이는 편집증을 일으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자신의 생각을 텔레파시로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지 모른다. 따라서 이런 일에 대비해야 하고, 훈련을 받은 후 특히 민감한 시기에는 숙달된 감독자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관찰해야 한다.

만약, 훈련 프로그램이 백과사전에 기록된 화학 제조법과 같다고 생각해 보라. 누구든지 백과사전에서 이 제조법을 알 수 있고, 혼자 지하실에서 화학을 만들려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백과사전에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에 산다면 지식 자체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제거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코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책임 있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용 목적으로 이 코스를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그룹, 회사 혹은 기관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비용에다 감독 비용을 더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을 하는 그룹들이 이런 감독을 해주지는 않는다. 훈련을 받는 사람과 기관의 책임자가 감독을 구해야 한다.

이 코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런 연구 코스가 정신 건강에 위험하다는

개인 심리학의 특성들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아는 대로 가능한 한 안전하게 이 코스를 만들었고, 현재로서는 이 일에 관해 내가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위험을 안고 개발했다. 내 경우에는 진행 과정을 관찰해 줄 정신과 의사도 없었다. 그러나 의식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복잡한 정신세계와 교류할 정신적 기반을 닦게 해준 초월 명상을 배웠고, 이어서 몬로 연구소의 프로그램과 SRV를 배우기 전에 TM-시디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았다. 조금씩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뒤흔들어 놓은 경험이었다. 2년 만에 내 세계관을 구성했던 모든 믿음이 붕괴했다. 우리가 우주에 혼자 있지 않다는 것과 비물질적인 존재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계 문명들이 이웃에서 망하고 흥했으며, 길을 건너듯이 쉽게 시간여행을 하는 문명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신과 모든 종교에 대한 관점도 재정립해야 했다. 이런 사실들에 직면하기 위해 얼마나 적응하고 성장해야 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의식의 성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점차적인 발달을 하도록 구성했다. 이 방법이 안전하고도 가장 효과적이다. 이 코스는 자신의 부분공간 존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텔레파시와 육체이탈 상태를 자각하도록 하며, 전문적인 SRV 프로그램으로 마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코스는 단계적인 순서대로 구성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SRV 훈련을 먼저 받게 되더라도 세 단계를 적절한 기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은하 외교관을 위한 코스

1단계

연수생들은 TM과 TM-시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바람직하다. 명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비물질적인 자아를 직접 경험하는 명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명상으로 알려진 활동 중에는 단순히 상상이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긴장된 수행도 있다. TM과 TM-시디 프로그램은 완전한 자아를 직접 자각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다. 긴장이 필요없는 수행은 정신적인 균형이 향상되며 삶에 더 만족하게 되고, 생리적으로 향상되며 직관이 발달되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수 효과를 가져온다.

TM 선생들은 고도로 훈련받았고, 코스는 선생이나 배우는 장소에 관계없이 똑같다. 일관성이 중요한 대단위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표준화와 코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간을 은하 시민으로 진화하도록 돕는 데 TM을 이용하려는 생각에 TM 협회가 찬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TM을 하는 사람들은 진보된 의제인이나 미래 인간과 아주 비슷한 의식을 갖는다. TM 선생들은 강의에서 TM을 통해 생리적인 이득을 얻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비물질적인 생명과의 접촉에 저항감을 갖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TM을 함으로써 영혼을 자각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혈압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이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이 문제를 자신의 저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마하리시에 의하면 물리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모든 존재들은 '상대적'인 존재의 영역에 살고 있으며,

이 상대적인 영역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다. 마하리시의 견지에서 보면 물리적, 부분공간적인 수준 둘 다 상대적 영역 안에 있다. 마하리시는 또한 모든 상대적 영역의 기준이 되는 절대 영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그는 분리된 두 측면—상대적 측면과 절대적인 측면—이 통일돼야 한다고 시종일관 언급하고 있다. TM 선생들이 교육 중에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생들의 잘못은 아니며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총체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총체적인 자아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TM은 경험적인 수행이다. 사람의 통상적인 지각은 신체의 감각에 제한되므로, 사람의 부분공간 측면과 절대적 측면은 명상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명상자는 아침저녁으로 20분 간 TM을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 한다. 명상은 쉬운 반면 수행은 신중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능하고 자격 있는 선생에게 명상법을 배워야 한다. 더욱이 TM 코스는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속 과정을 포함한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명상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면 왜 돈을 내고 지도받아야 하나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교육을 받는데 도대체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묻는 것으로 생각해서 TM 선생들은 이것이 직업이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중에서야 이 사람이 명상을 혼자서 혹은 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틀린 대답을 해준 것이었다.

적절한 명상 수행은 독자적으로 파악하거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TM 코스는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되었다. TM은 간단하지만 고도로 정밀하고 미묘한 수행이기도 하다. 그런 절차를 스스로 새로 만드는 것은 스포츠카가 이미 곳곳에 널려 있는 때 차바퀴를 다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TM과 TM-시디 프로그램은 원거리투시와는 상당히 다르다. 원거리투시는 어떤 장소—시공상의 의미에서—와 부분공간의 정신적 연결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인간이 부분공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지만 TM과 TM-시디 프로그램에서는 연결을 시도하지 않는다. 명상하는 동안 부분공간의 자아와 육체의 자아, 즉 자신의 총체적인 자아를 경험적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총체적인 자아를 안다는 의미에서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다.

명상자는 내면적인 행복감과 성취감,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신체의 오감을 통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명상의 경험은 삶에 커다란 만족을 가져온다. 부분공간의 영역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육신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명상자가 하루에 두 번씩 자신의 다른 반쪽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매우 편안한 신체적인 경험을 더 만족스럽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이 더 이상 정신 세계와의 접촉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은하 외교 코스를 위해서는 TM과 TM-시디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이 코스는 세계 곳곳에 있는 TM 센터(최근에 확장된 마하리시 베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배울 수 있다. TM은 전코스에 1주일 정도 걸리는 반면, TM-시디 프로그램은 좀더 시간이 걸린다.

TM을 배운 후에 학생들은 마하리시의 책을 두 권 읽기 시작한다. 첫번째 책은 『존재의 과학과 삶의 기술 The Science of Being and the Art of Living』로 모든 TM 센터와 대부분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책은 하루에 약 20분이나 몇 페이지 정도만 천천히 읽어야 한다. 핵심이 첫눈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속독을 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책은 『바가바드-기타

Bhagavad-Gita₁의 처음 여섯 장을 마하리시가 번역한 것과 주석이
다. 이 저서들은 인간 존재의 복합적인 본질에 대해 풍부한 정보
를 내포하고 있다.

2단계

이 단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는 버지니아 주 파버
에 있는 몬로 연구소의 36개 테이프를 가정에서 듣는 것이다. 이
테이프를 '게이트웨이 경험'이라 하는데, 텔레파시와 부분공간과
의 의사 소통법, 에너지 조종에 대해 초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각 테이프는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두 번 듣는 것이 좋은데 아침
명상 전에는 듣지 말아야 한다.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만
명상 후에는 편리한 시간에 들어도 좋다.

하루에 테이프를 두 번씩 듣는 규칙을 지키고, 휴식과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2,3개월이면 끝난다. 그후 매일 특정한 두
테이프를 각각 한 번씩 3,4주간 청취한다. 한 테이프를 들은 후 몇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음 테이프를 들어야 한다. 마음을 자
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시간을 아침과 오후(혹은 저녁)
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테이프는 '게이트웨이 경험' 가정
학습 코스 36개 중에 있는 것으로 '미션12'와 '파 리치'로 이름
붙여졌다. 내 경험으로는 미션12 테이프를 반복하면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파 리치 테이프를 반
복하면 변형된 자각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극전환 현상에 익숙
해진다.

두 테이프를 반복한 후에는 테이프에 의존하지 않도록 모든 가
정학습 테이프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중간에 심리적으로 스
트레스가 생기면 즉각 중단하고, 이 코스를 계속할지 결정하기 전
에 상담하고 쉬어야 한다.

두 번째 훈련은 몬로 연구소에 가서 '게이트웨이 여행' 코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코스에서 가르치는 고도의 의식 상태는 가정 학습 테이프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상태를 경험할 때는 연구소의 숙련된 감독을 받고, 높은 단계의 테이프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의식을 갖고 사는 부분공간의 존재가 엄청나게 많고, 접촉할 때는 주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들이 위협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만날 때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사망한 직후 곧 경험하는 의식도 이 진보된 의식 단계에 포함된다. 연구소에 상주하는 코스는 궁극적인 여행을 하기 전에 이를 경험하는 법을 안전하게 가르친다.

배경에 관한 독서를 위해서는 로버트 몬로의 책, 『육체이탈 여행 Journeys out of body』 『머나먼 여행 Far Journey』 그리고 『가장 먼 여행 Ultimate Journey』을 권한다. 이 책은 서점에서 구할 수 있고, 몬로 연구소에 주문할 수도 있다.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자격 있는 선생이 가르치는 일주일 SRV 집중 코스이다. 과거의 많은 군 소속 원거리투시자들이 지금은 육군에서 개발한 원거리투시를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또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과학적 원거리투시 연수원인 파사이트 연구소도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파사이트 연구소에는 감독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있다.

다음으로는 연수생이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감독이 각각의 연수생들과 함께 한다. 감독은 최소한 10, 15번 정도 투시를 돕게 된다. 원거리에서 혹은 지역에서 감독하는지는 상관없다. 연수생들은 감독과 함께 여러 번 SRV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과학적, 외교적

인 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전과정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 이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타깃—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같이—을 목표로 할 때, 원거리투시는 실상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그런 타깃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간단하다. 무의식이 타깃의 장소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저 보이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계 타깃들은 늘 그렇게 쉽지는 않다. SRV 데이터는 항상 사실적이지만, 때때로 타깃이 투시자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대변할 수도 있으며 무의식은 이런 정보의 필요를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의식이 타깃 뒤에 감추어진 사항에 답하는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투시자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의식은 물리적인 공간과 부분공간의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투시자가 의식에 대해 넓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무의식에 의해 얻은 데이터는 신비하게 보일 것이다. 의식을 넓게 이해하는 것은 원거리투시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사실, 무의식이 사실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데이터는 초보 단계의 투시자에게는 상징적이거나 불가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시자의 진화된 의식은 필수 불가결하다.

정부의 개입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UFO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불평은 이 일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부가 UFO에 대한 보고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얼른 종결지어 버리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노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나도 느꼈다. 지금은 마음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정치학 교수인 내게 여론과 군중 행위는 전공 분야 중 하나인데, 외계인들과 UFO의 문제에 관한 정부의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지구와 지구 주위에 외계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소개한 책들이 몇 권 출판됐다(Good 1987).¹⁰⁾ 그러나 지구에 외계인들이

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

퇴역 장교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UFO에 관한 극비 정보 수집 활동을 했으며,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나 별달리 성과가 없었다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한 항공사 직원은 UFO가 여객기를 따라오는 걸 직접 보았다고 했다. 조종사가 착륙했을 때 고위 정부 요원이 기다리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 이 조종사는 보고를 해야 했고, 함구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준 조종사는 엄밀하게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른 조종사들은 명령에 따랐던 것이다.

정부는 외계인들에 대해 알고 있으나 국민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는가?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당신은 외계인들이 허가도 없이 영공을 침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몇몇 외계인들은 국민이 달가워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군대와 보호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이 일을 막는 데 무력하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외계인들이 도착했다고 방송에 나가 알리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계인들이 이곳에 있으니 여러분은 공포에 떨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겠는가?

당신은 방문객들이 왔으며, 그들과 외교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알릴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외계인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UFO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옳은 전략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정부가 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다수 국민이 알게 되는 것을 늦춘다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전략이다. 성공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느 국가원수도 현재 실패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외계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원거리투시를 이용해 수집한 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인간과 외계인의 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가 외계 현상에 관련해 펴온 정책에 관하여 정부 관리들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정황을 살펴볼 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한번도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계의 현상을 부인하는 과거의 정책을 변화시킬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외계인과의 교류에 항상 수동적이었다. 비행선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납치된 사람들도 있었다. 항상 외계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바라만 보았다. 이제 우리는 행성간의 삶을 연구하는 데 수동적인 단계에서 적극적인 단계로 옮겨갈 능력이 있다. 이 능력으로 광대한 우주사회에 우리가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외계인들이 우리 사회를 연구했듯이 우리도 그들의 사회를 자세히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에게 외계인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상호간의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화성인

인간이 외계인과 활발히 접촉할 수 있도록 정부 지도자들이 깊이 관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회색인이 아니라 생존하는 화성인들과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게 된다. 언젠가는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회색인과 직접 일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제는 화성인들과의 대화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첫째로, 세계 정부가 화성인과 접촉하는 것을 지도자들은 인가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접촉에 관하여 UN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어떤 국가나 단체도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연계하지 않는 한 화성인과의 접촉에 성공할 수 없으며, UN의 회원국들은 안전이 결정되는 대로 모든 소식을 전해 들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화성인은 지구에 오기 원한다. 그들은 지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번덕스럽고 폭력적 성향이 있는 인간에게 침묵으로 방어해 왔다. 다수의 인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침묵할 것이다. 여러 국가 중 어느 하나와 같은편이 됨으로써 인간과 좀더 빨리 친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킬 리가 없다.

화성인들이 더 이상 숨지 않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치적, 과학기술적 자원을 갖춘 나라는 미국이다. 원거리투시를 통해 얻은 데이터에 의하면 전파 통신을 이용해 화성인과 처음 공식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미국은 그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많은 장비를 이미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통신 수단을 추가로 제공할 국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화성인과 공개적인 대화를 위해서 전파 망원경을 화성과 달에 조준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면 달에 사는 외계인들은 침묵하지만 화성인들은 지구에서 온 전파에 관해 의논할 것이므로 송신 목표는 그들이다.

지구인과 화성 대표단이 대화를 시작하자고 초대하는 송신을 화성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송신 내용은 인간이 상호 관심사에 관해 화성인과 진심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성인이 신속히 응답하면 기꺼이 이웃이 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며, 미래의 두 행성 문화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

를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정중하면서도 조금은 욕박지르는 듯한 외교 방법'이겠지만, 당장 필요하다. 화성인은 은둔하는 습관을 길러왔다. 우리는 이제 이 습관을 깨고 인간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자고 말해야 한다.

어느 대통령이 이 송신을 인가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지만 지금이 송신할 때라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 그 송신을 인가한다면 아주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구인과 화성인 사이에 성공적인 통신을 시작하는 지도자는 수천 년 지속될 인류 문화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인간의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대화를 시작하자는 송신을 화성에 보내는 특별한 일을 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지구와 은하에서 오랫동안 우호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 은하 공동체에 들어갈 만큼 성숙하길 기다려 온 이들에게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은하 공동체의 일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가 성숙해야 한다.

화성인이 응답한 후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뉴멕시코에 있는 현재의 화성인 지하기지를 처리 센터로 변형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화성인의 이주와 함께 지구에 새로운 질병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화성의 의학이 발달했다고 확신한다. 사실 많은 화성인들이 이미 지구에 있는데 병이 발생할 것 같았으면 오래 전에 이미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인이 이런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구의 의사들도 화성인의 복잡한 생리구조와 심리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구의 다른 문화에서 온 피난민들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화성인들을 처리해야 한다.

시민권의 문제도 있다. 우선, 지구에서 태어난 화성인 어린이는 출생 국가에서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의 산타 페블리 동굴에서 태어난 화성인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다. 더욱이 직계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정부가 자기들의 영토에서 태어난 화성인들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그 친척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UN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구에 연고가 없는 화성인들이 올 수 있도록 UN이 통솔해야 하며, 세계의 정부들은 살 곳을 찾는다는 희망을 품은 이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데 협력해야 한다.

새로운 인간의 생존 단계에서 인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도 없다. 곤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지 은하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진화의 역사를 통해 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는가 하는 시험에 직면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문화 교류, 즉 타종족이 진화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원거리투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타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일하고 중요한 이 정보를 내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회색인

회색인은 인간의 교류처럼 인간과 동등한 차원에서 만나 일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대단한 텔레파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강렬한 감정에 대처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회색인들 곁에 있으면 두렵기까지 하고, 민감한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회색인과 다른 형태의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접촉을 시작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외교관들은 회색인들과 의사 소통을 위해 SRV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오늘날 지구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회색인과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접촉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회색인이 인간의 부분공간 측면과의 접촉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인간이 정신적인 연결을 통해 회색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색인들이 과거에 비밀스럽게 활동했던 양식을 바꾸려면 완전히 자각하고 있는 인간과 접촉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분공간상의 만남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회색인들이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동식물의 유전자 샘플을 저장하는 데 회색인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훗날 우리는 회색인이 저장한 유전자들을 사용하여 지구를 재건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인간과 회색인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므로 그들과 보다 공개적으로 대화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회색인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SRV를 사용하여 회색인의 진화에 관련된 유전 프로젝트를 도울 방법을 묻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기꺼이 이 프로젝트를 도운 적이 없었다. 회색인은 부분공간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의 혹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과 일해야만 했다.

우리가 그런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회색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외교관이 회색인에게 도울 방법을 묻자마자 그들이 우주선을 UN 빌딩 바로 옆에 착륙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인 노력으로 큰 대가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기를 회색인이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은하연맹

회색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하연맹에 인간의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서 SRV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서 연맹 당국과 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있고, 이 물리적인 수단이 곧 사용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만 은하연맹은 부분공간의 조직이므로, 이 시기에 SRV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하에 물리적인 존재들만 지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육체를 지닌 존재는 물리적인 세계에 잠시 살다 가는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체를 지닌 존재들은 일생의 많은 부분을 어린 시절과 노년기로 보내는데 수명이 긴 사람조차 생산적인 성인기는 아주 짧다. 한편, 은하는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 속에서 진화한다. 은하계 생명의 진화를 도우려면 그 존재들은 70년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한다. 한 종족이 진화하는 과정도 수천 년이 걸리는데, 만약 연맹이 이 종족을 돕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존재들은 더욱 오랜 시간을 살 필요가 있다. 육체를 지닌 존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갖고 살아간다. 때때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부분공간의 존재들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하

기도 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부분공간 존재들의 수련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존재의 한 차원이다. 육체를 지닌 존재와 부분공간 존재의 중요한 차이점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떠나기 전에 그들 나름의 공헌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엄밀한 존재의 한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리적인 우주 안에 은하연맹이 있다면, 연맹뿐만 아니라 많은 종족에게 자멸적일 수도 있다. 물리적 사회 진화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언젠가 그들이 다른 사회에 도움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리적인 존재들은 한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곧 마음을 바꾼다. 육체를 지닌 존재들이 흔히 그렇듯이 변화되기 쉬운 인성으로는 은하를 다스릴 수 없다. 은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고, 수명도 길어야 한다. 이것은 부분공간의 생명체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은하연맹이 부분공간의 조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 물리적인 공간과 부분공간을 통합하는 과학기술을 가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는 연맹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신경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연맹 당국과 대화하기 위해 의식을 사용하면서부터 곧 연맹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감독과 나는 인간을 대표하는 이 과정에서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당국이 정식으로 대표를 인가할 때다. 이제는 원거리투시자 같은 우주 여행자와 탐험가들을 넘어 세계 정부의 훈련된 대표단이 대변해야 할 때이며, UN이 공개적으로 연맹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이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화성인과 회색인, 연맹 어느 누구도 대화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

다리고 있다.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와 함께 사는지 깨닫게 될 때
에야 비로소 은하 공동체에서 발언할 만큼 성숙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위대한 운명을 지닌
종족이다. 운명의 저편에 도달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자랑스럽
게 행진하자. 냉소와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기다려 온 저 우주에 있는 이들에게 말
을 걸어보자.

참고문헌

1. Swann, Ingo. 1991. *Everybody's Guide to Natural ESP: Unlocking the Extrasensory Power of Your Mind*.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Inc.
2. Hilbert, Christopher. 1982. *Africa Explored: Europeans in the Dark Continent, 1769-1889*. New York: Penguin Books.
3. Jacobs, David M. 1992. *Secret Life: Firsthand Documented Accounts of UFO Abductions*. New York: Simon & Schuster.
4. Andrews, George C. 1993. *Extra-Terrestrial Friends and Foes*. Lilburn, Georgia: Illuminet Press.
5. Omne-Johnson, David W., Charles N. Alexander, John L. Davies, Howard M. Chandler, and Wallace E. Larimore. 1988. International Peace Project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776-812.
6. Mack, John. 1994. *Abduction: Human Encounters with Alie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7. Royal, Lyssa, and Keith Priest. 1992. *Visitors from Within*. Scottsdale, Arizona: Royal Priest Research Press.
8. Monroe, Robert A. 1994. *Ultimate Journey*. New York: Doubleday.
9. Monroe, Robert A. 1985. *Far Journeys*. New York: Doubleday.
10. Good, Timothy. 1987. *Above Top Secret*. London: Sidgwick & Jackson.

시공을 초월한 우주여행

인간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까? 인간만이 지능을 가진 단 하나의 존재일까? 어느 곳엔가 인간보다 더 진보한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거듭해 왔다. 화성은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와 거리상으로 가깝고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전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된 운석 때문에 앞으로의 화성 탐사 계획이나 우주의 신비를 밝혀려는 수많은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이외에는 외계의 생명체나 UFO에 관한 다른 탐구 방법이 있을까?

에모리대 교수인 커트니 브라운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과학적 원거리투시'라는 방법을 이용해 외계 생명체에 대

해 연구한 결과의 소산이다. 원거리투시는 본래 미국이 군사 첩보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원거리투시 특수부대원 중에서 UFO나 외계인에 관심을 가진 군인들이 전역 후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그중 한 트레이너에게서 투시법을 배워 연구한 후 여기에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오래 전 화성에 존재했던 문명,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난 위기의 최후 순간에 화성인을 구조하러 온 회색인, 지금까지 많은 UFO 피랍 사건에 관한 책에 보고된 이 회색인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문명을 이룩했는가.

한편 화성 표면에서 사라진 화성인 중 일부는 지하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운명과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로스웰 사건, 인류의 미래, 인간과 외계인의 관계 등을 저자는 다양하게 다루었다.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우주여행' 이야기인 이 책은 UFO 관련 서적이거나 과학 소설과는 전혀 색다른 재미를 주며, 인간의 의식과

영혼에 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줄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과 거짓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새로운 이론은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야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은이에 의하면 원거리 투시의 정확도는 85퍼센트 이상이며 숙련된 투시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한다. 어쨌든 투시 법이나 이 내용의 진위 여부는 지속적인 검증과 미래의 실질적인 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번역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도 있었고 따라서 적절한 말을 찾는 데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역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원서의 의미와 재미가 손상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홍지희

지은 이와의 연락

지은이와 연락하고 싶은 독자는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면 된다. 과학적 원거리투시의 전문적 훈련에 대해 알고 싶으
면 연구소 앞으로 직접 써야 한다.

**Courtney Brown
The Farsight Institute
P.O. Box 49243
Atlanta, GA 30359**

홍지희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석사과정 수료.
독일 뮌스터 대학 철학 박사과정 수료.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심리학 전공.
국내 출판사 근무.

미스터리

—UFO와 신의 비밀

키트니 브라운 지음

홍지희 옮김

초판 인쇄 · 1996년 12월 5일

초판 발행 · 1996년 12월 10일

피넬이 · 임명옥

피넬곳 · 한뜻출판사

등록 · 제1-1891호(1995. 5. 19)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2-1(우:135-120)

전화 · 516-0092~5

팩스 · 516-0109

값 6,500원

ISBN 89-8232-028-8

* 잘못된 만든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지구를 찾은 외계인들에 대한 과학적 대발견

『미스터리-UFO와 신의 비밀』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책은 외계인과의 교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신비로 우리를 안내하며, 무엇보다도 외계 탐험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제시한다. 놀랍고도 대담하게 주목할 만한 책으로, 충동적이며 즐겁고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라는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휘틀리 스트리버(Communion의 저자)

UFO 분야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신비롭고 미묘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탐험 방법을 필요로 한다. 정치학자인 커트니 브라운은 과학적 원거리투시라는 정립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구 이외에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책은 과학자 그리고 기이한 현상의 조사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모두에게 중요한 책이다.
존 E. 맥(하버드대 교수)

COSMIC VOYAGE COURTNEY BROWN

값 6,500원



03840
9 788982 320286
ISBN 89-8232-028-8